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827 1982년 5월19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Wednesday, May 19,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정 서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MAY 21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TORONTO, CANADA M5S 1A5

굳건히 선『교민의 벗』… 본지 1일로 일간 한돌

"캐너다·뉴스죠?" "아닌데요. 토론토·한국일보 입니다."

주2회 발행되던 캐너더·뉴스가 사라지고 일간 토론토·한국일보가 고고의 성을 울린지 오는 6월1일로 만1년.

토론토에서도 과연 일간지가 파산하지 않고 존립할 수 있을까?

"한국일보가 문 닫는 날은 시간 문제"라는 일부 교민의 우려속에,

42일간의 우편파업을 겪으면서도,

연리 24%라는 고 이자율을 부담하면서도,

기사에 불만을 품은 일부 업체들의 광고 보이콧 압력속에서도, 토론토·한국일보는 굿굿이 자라 강인한 뿌리를 대지에 박은 그 힘을,

보도들의 신속성, 공정성, 독자들의 신뢰성이라고 제작진은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 4대의 윤전기가 도입, 자체 인쇄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컴퓨터식자기가 설치되어 신속성에 박차를 가했다.

81년5월 캐너다·뉴스시절 7명의 인원이 1년만에 20명으로 늘어 편집·취재진만도 7명이요, 광고부는3, 5명이 일한다. 8개월째 본사의 인쇄주문, 경리등을 맡고 있는 수잔·아담스양은 "성장하는 또 하나의 작은 신문"(Another Little Paper that Grows : 급격한 성장을 보인 토론토·썬지의 캣치·프레이즈)이라고 표현했다.

이제 토론토·한국일보는 주5회 발행(금·토일자는' 합판)하면서 매주 약60페이지 이상씩을 발행한다.

주간지 시대를 벗어나 7명의 편집·취재진은 거의 모든 교민행사를 뒤쫓는다. 전화로 불러주는 홍보자료에 의한 기사에서 「발로 쓰는 기사」체재로 돌입했다.

「전대통령 암살 모의사건」취재에서 드러났듯이 본보의 보도는 모국의 각 신문·방송사를 자극, 그들은 워싱톤 주재 특파원을 토론토로 급파하기도 했다.

와중에서 고소도 당했다. 하나는 최홍희씨로 부터, 또 한건은 식품도매상으로부터. 그러나 고소자라고해서 근거없이 비난하지 않은 편집자세 때문에 본지는 더욱 한인사회의 신낭을 얻었고, 날로 느는 구독신청이 이를 증명한다.

광고면에서도 거의 기적이 이루어졌다. 주 60여 페이지에 광고가 계속해서 채워지는 것이다. 평균 주2페이지를 발행 광고확보에 어려움이 없었던 캐너더·뉴스시절 누구도 토론토 교민사회에서 주60페이지의 신문에 광고를 채울수 있으리라고는 예견하지 못했다.

교민사회업소 전화부격인 안내광고(Classified Ad.)는 또한 중면을 거듭 현재 매일 2면씩 장식하고 있다. "불황일수록 광고를 이용하라"는 현대경영 이론이 입증된 셈이다.

지난 4월부터는 시내 소매제도를 개선, 한국식품점에 주5회 신문을 배달, 독자들이 다음날짜 신문을 하루전에 볼 수 있게 했다.

그동안 한인민축상을 제정, 올 6월이면 두번째 시상이 있으며, 이민의 뿌리를 보존하기 위해 이민사 자료실을 설치했다. 위니페봉재사 위문공연을 주선했는가 하면, 오는 7월에는 스포츠를 통한 2세교육, 아이덴티티 전수를 위한 어린이 야구대회를 주최한다.

한인회 주최의 미인대회를 힘껏 밀어 성공적으로 끝나게 했다. 모두가 음·양으로 지원해준 교민사회 전체와 이 속에서 자란 일간지 덕분이었다.

1주년을 맞아 김명규 토론토발행인은 「일간지가 있는 사회는 그만큼 발전의 템포가 빠르다」는 언론이론을 지적, "신문의 발전은 바로 교민사회의 발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기자〉

Without fear
or
favor
—The Korea Times—

◆제527호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 캐너더·뉴스의 종간호 81년 5월30일자와 작년 6월1일 고고의 탄성을 울린 교민최초의 일간지 토론토·한국일보의 제1면.

◆텅빈의사당 : 자유당의원들의 총퇴장으로 텅빈의사당에 울리는것은 의원들 등원을 알리는 종소리 뿐. 자유당의원들의 예산안 항의 퇴장으로 4일간 주의회가 마비됐었다.

자유당 의원들 재등원

예산안 항의 일제 퇴장 4일만에

보수당 정부가 최근 발표한 예산안에 불만, 항의를 표시하기 위해 지난14일 일제 퇴장한 야당 자유당 의원들이 18일 오후 재등원했다.

33명의 자유당 소속 의원들은 예산안중 판매세가 확대 적용되는데 항의하기 위해 퇴장, 그동안 계속 의원들의 등원을 요구하는 의사당의 벨 소리도 요란했었다.

보수당, 자유당, 신민당의 3당 의원들이 모두 참석해야만 투표가 실시될 수 있는 의회 관례에 따라 그동안 의회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됐었다.

18일 오후6시 자유당의원들의 재등원에 따라 개시된 판매세법 수정안 표결에서 보수당은 63대46으로 두 야당을 눌러, 그동안 면세 혜택을 누렸던 어린이용품, 애완용품에도 예산안대로 판매세가 붙는다.

자유당의 등원 거부에 대해 윌리엄•데이비스 수상은 "미 성숙한 처사"라고 논평했고, 데이빗·피터슨 자유당수는 "소수 야당으로서 최선의 항의책이었다고"말했다.

지난13일 발표된 온타리오주 여당인 보수당 정부의 예산안을 두고 야당인 자유당과 신민당은 "세금을 붙이기 위해 심지어 호텔 변소까지 뒤졌다"면서 저 소득층 서민을 완전 무시한 예산안이라고 혹평했다.

또 야당의 재정전문가들은 중소기업들의 기업세2년 면세 조항에 대해서도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업이면 이미 이익을 내고 있다. 세금뿐만 아니라 불황으로 도산하는 기업들을 전혀 고려 안한 조치이다"고 맹공격했다.

온타리오주정부의 프랭크·밀러재무상은 최근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 불만 또는 주민의 30~40%밖에 안된다고 말한 반면

자유당 당수는 90%가 불만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공공임금 통제하라"

대기업주들, 정부에 촉구

(오타와) 로열뱅크, 임페리얼석유, 잉코철강등 캐나다 최대기업에 속하는 11개회사 대표들은 17일 트루도정부는 공무원등 공공단체들의 임금을 통제, 2차대전이후 최악의 캐나다 경제를 개선시키라고 촉구했다.

자산만도 $1,550억이 넘는 이들 회사의 모임인 국가경제문제위원회는 이날 연방정부가 대기업의 어려움을 이해 못해주는데 기업주들은 "당황하고 기가 막혔으며 침통하기 까지 하다"고 말하고, 연방정부는 석유회사에 부과한 세금을 깍고, 국가 에너지계획 시행을 늦추고 해외투자법도 강화시키지 말고 투자가를 보호, 경제를 개선시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비록 고 이자율이 사업가들에게 어려움을 주는것은 있으나 계속 긴축통화책을 사용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라고 주장했다.

전면적이 임금·물가통제에는 반대하나 공공임금만이로도 통제하라고 권고한 기업대표들은 캐나다의 임금인상율이 절반으로 떨어져 연7%가 이상적이라고 분석했다.

전대통령 장인 이규동씨 사임

(서울18일=연합) 한국노인협회 회장인 전두환대통령의 장인 이규동씨(72)가 18일 회장직을 사임했다.

이씨는 최근 장여인사건에 관련, 체포될 것으로 보이는 이규광(57)씨의 형이다.

주한미군사령관에 세네월드장군

한국인 모독발언한 위컴씨 퇴진

(워싱턴 14일=연합) 레이건 미 대통령은 14일 한국민에 대한 모독적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존·위컴주한미군사령관의 후임으로 로버트·윌리엄·세네월드(53) 미 육군중장을 임명했다.

캐스퍼·와인버그 국방장관은 이날 세네월드장군이 대장으로 승진됨과 동시에 미 제8군 사령관및 주한미군사령관으로 임명됐다고 말했다.

세네월드사령관은 상원 인준을 거쳐 오는 7월에 새 임지에 부임한다.

세네월드장군은 81년7월까지 미8군및 한미합동사령부작전 참모로 한국에서 근무했었다.

위컴장군은 미 육군참모차장에 임명됐다.

〈워싱턴·타임즈〉 발행

통일교가 경영 10만부찍어

(워싱턴18일=연합)통일교가 인수한 〈워싱턴·타임즈〉가 18일 발행을 개시함으로써 워싱턴시는 〈워싱턴·포스트〉와 함께 두개의 신문을 가진 시가 됐다.

통일교의 방계신문이라는 점 때문에 워싱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못얻고있는 〈워싱턴·타임즈〉는 첫날 10만부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즈〉와 쌍벽을 이루는 권위지 〈워싱턴·포스트〉는 761,000부의 발행부수를 자랑한다.

〈워싱턴·타임즈〉는 125명의 기자및 편집진의 3분의1 이상이 통일교도이나 통일교의 대변지는 아니라고 강조해 왔다.

이민의 문화적·사회적 자아(Identity)를 밝혀 가는 신문.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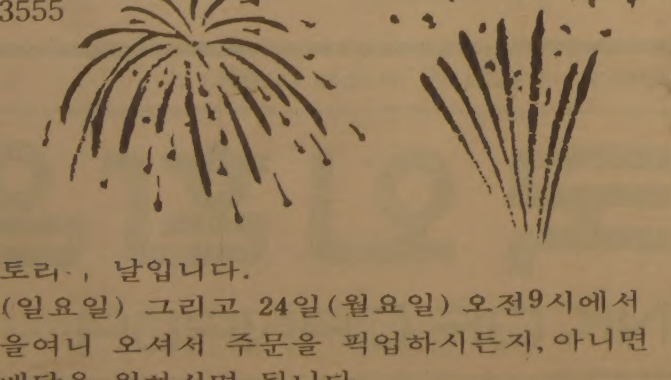
오늘의 예금금리 (4월23일 부터)

종별	기간	신용조합	일반은행
정기예금	30일	14.5%	13~13.5%
	90일	15.25%	13.75~14.5%
	180일	15.5%	13.75~14.75%
	365일	15.75%	14.75~15.25%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불꽃놀이

Rolls & Darlington
419 Coxwell Ave.
Toronto, Ont M4L 3B9
Tel. (416) 461-3555



5월24일은 빅토리[illegible] 날입니다.
저회는 5월23일(일요일) 그리고 24일(월요일) 오전9시에서 오후4시까지 문을여니 오셔서 주문을 픽업하시든지, 아니면 아니면 전화로 배달을 원하시면 됩니다.

IATA

특별할인봉사
○ 서울단체 매일출발
○ 방문초청 특별요금
이제는 친구및 3촌이상 친척까지 초청의 문호개방.
단 : 항공료와 체재비 부담조건
○ 구라파 9개국관광 20일간 $1,600
출발 82.7.22 등록마감 5월31일
○ 국내, 국제항공표 일체

신세계 NEW WORLD TRAVEL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김창범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536-2155·2156
R) 492-7525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한인Y합창단 제1회 발표회

"음악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활동목적"

지난 80년 창단, 그동안 한번도 빠짐없이 매주 연습을 가진 Y합창단이 오는 24일 하오7시30분 제1회 발표회를 갖는다.

새로 단장한 웨스트·엔드 Y회관(College × Dovercourt)에서 도라지, 희망의 속삭임을 비롯한 민요, 성가등 가볍고 흥겨운 노래 약15곡을 선사할 Y합창단은 안병원씨 지휘, 김진숙씨 반주로 매주 목요일 20여명의 단원이 약 두시간씩 화음을 가다듬었다.

고 한성진씨 지휘의 한인청소년합창단이 해체된 이후 청소년 상대 '유일한 합창단인 Y합창단은 현재 10학년부터 대학2년까지의 한인학생들로 구성돼 있으며, "공연보다 서로 모여 노래로써 정서를 가꾸며 봉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년간 합창단을 이끌며 가장 힘들었던 점은 꾸준히 빠짐없이 학생들을 출석시키는 일. 그러나 지금은 고정멤버가 빠짐없이 출석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다"고 안병원 지휘자는 말한다.

◆발표회를 앞두고 연습에 열중한 Y합창단원들.

오샤와에서 딸 현주양을 데리고 매주 빠짐없이 연습에 참가한다는 학부형 김천남씨는 "부모들이 헬퍼가 없으니 가게나 보라고 하는등 자칫 무관심하게되기 쉬운 것이 청소년문제입니다. Y합창단과 같은 건전한 오락·교제의 기회를 다른 부모들도 많이 이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인 YMCA 김창열 총무는 또 "담배나 마리화나등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나이들입니다. 하지만 저 노래 부르는 눈들을 봐요. 얼마나 반짝거립니까"라고 말하면서 성악에 소질있는 청소년들과 학부형들의 활용을 권했다.

1년전 조직된 후원이사회 이사장으로 이영현, 사무장으로 강찬영씨가 수고하고 있고, 창설때부터 힘쓴 이석현이사의 공도크다.

합창단원으로는 소프라노 유성순, 김현주, 윤미희, 호주희, 정진숙, 이은정, 권혜연, 엘토에 안숭례, 송정아, 이기정, 호연희, 김마리, 이은주, 테너에 정연갑, 권혁일, 이임성, 이광호, 김덕영, 우용호, 유만식, 김 정, 안원순, 김현규, 베이스에 김대익, 주권태, 김승욱, 이웅건, 김대준등이고, 토론토대학2년 재학의 권혁일군이 반장으로 수고한다.

Y합창단 제1회 발표회의 입장료는 $5이며, 이날 발표회후 다과회도 같은 장소에서 있을 예정이다.

연락처 한인Y 총무 김창열(전화 : 536-1166)

(조미래 기자)

82·83 회계연도 예산안과 세제해설　마지막회

맥주, 커피, 자동차등록비 일제 인상

C.A.현영일

커피에도 세금 6월 14일 부터

총세입 목표 1,100만 달러인 이부분은 오는 6월13일 자정을 기하여 지금까지 음식비가 6달러 미만의 세금면제 그리고 6달러 이상에 대한 10%판매세가 완전히 바뀌어

가격에 관계없이 7%가 적용된다.(주류는 종전대로 10%)

만들어내서 파는 음식이라 하여도 보통음식, 점심, 간식 등 술종류가 아닌 모든 식품및 음료수(커피, 우유, 가벼운음료수등) 가 포함된다.

병원과 양로원 그리고 인가를 받은 종교단체에서 제공하는 음식은 여기에서 제외가 된다.

가.도나츠·숍인 경우

(보기1)	
도나스2개	$.80
커 피1컵	.40
	$1.20
판매세$1.20×7%	.08
총금액	$1.28
(보기2)	
담배1갑	$1.20
커피1컵	.40
	1.60
판매세(커피)40c×7%	3
총금액	$1.63

나.술을제공하는 식당

(보기3)	
불고기2인분 a$5.00	$10.00
우 유2잔a$ .50	1.00
	$11.00
판매세 $11.00×7%	.77
총금액	$11.77
(보기4)	
불고기2인분 a$5.00	$10.00
맥 주2병 a1.50	3.00
	$13.00
판매세 $10.00×7%	.70
$ 3.00×10%	.30
총금액	$14.00

다. 배달 또는 Pick·Up하는 식당

(보기5)	
갈비(대)	$8.00
배달비	.50
	0
판매세$8.50×7%	.60
총금액	$9.10

*배달비도 음식값의 일부분으로 인정, 7%의 판매세를 부과하게 되여 있다.

(보기6)	
갈비(소)	$4.40
펩시1Can	.50
	4.90
판매세$4.90×7%	.34
총금액	$5.24

주류세 인상

오는 5월25일부터 카나다에서 생산되는 맥주는 현 20%에서 21.2%로 생산허가세를 인상(24병당 15센트)하며 맥주를 제거한 주류는 현 이익점에서 카나다 제품과 수입품에 대해 5%(30센트)와 3%(25센트)Points 각각 인상하게 된다.

자동차등록비

온타리오 주정부 운수·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ation & Communiction)에서 1983년부터 신등록제에 의거 1982년 12월1일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1년등록비

	온타리오주 남쪽	북쪽
(Toronto포함)		
차중량2,400Kg 미만승용차및 상업	$48	$24
상업용3,000Kg이하	$72	$72
Motorcycles	$24	$24
Mopeds	$6	$6

온타리오주 남북간 경계선은 프렌치강(French River)으로 하고 있다.

편집자주 : 지난13일 발표된 온타리오주정부 예산안은 세제및 투자정책면에서 대폭 개편된다. C.A.현영일씨가 분석한 예산안 해설을 세금정책면에 치중, 3회로 끝내고 내일부터는 2회예정으로 온타리오·하이드로에 근무하는 경제학박사 김상용씨의 기고로 신 예산안이 온타리오 경제면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예산안에 관한 문의는 현영일씨(863-3766)나 본사 편집부로(533-2361)하면 된다.

인터뷰

공인회계사 현영일씨, 몬트리얼서 토론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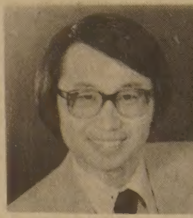
"한인사회의 경제 수준도 이젠 캐나다 경제계에 뛰어들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됐다고 생각한다."

79년에 C.A.(Chartered Accountant)가 된뒤 주로 몬트리얼에서 활약하다가 최근 토론토로 온 공인회계사 현영일(40)씨의 말이다.

그는 "몬트리얼에서는 한인사회가 좁아 혼자서 세금, 경영, 투자등 모든 경제분야를 다 다루었다. 한인이 많이 모여사는 토론토에서 이곳의 한인 전문가들과 손잡고 한인사회의 경제 성장에 힘이 되는 것으로 보람을 찾고 싶다"고 포부를 말한다.

42년생으로 대전고를 거쳐, 성균관대 상학과 재학시 미국에 유학, 70년도에 캐나다에 이민왔다. 75년에 몬트리얼 소재 콩코디아대학에서 일반회계학 학사를 끝냈다.

78년 맥길대학에서 공인회계학 석사를 딴뒤 79년



◆현영일씨.

캐나다 공인회계사 고시(Uniform Examination-Canadian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에 합격했다. C.A자격시험은 캐나다 전국에 다 통용되나 각 주목별로 다른 세법때문에 C.A자격을 딴지 일년내에 신청하면 각주의 C.A멤버 자격을 얻는 캐나다의 제도에따라 80년 온타리오주 공인회계사회원 자격도 얻었다.

현씨는 한인 공인회계사로 오타와에서 온타리오주 재무성에 근무하는 피터·고씨를 비롯 두명이 있으나 토론토에는 없는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C.A자격을 딴 뒤 유수한 공인회계사 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80년부터 개인사무소인 공인회계사 현영일사무소를 개업했다.

지난 5월1일부로 부임한 토론토회사 피트, 마익, 미첼 공인회계사 사무소(Peat, Marwick, Mitchell & Co.)는 현씨의 부임과 아울러 한국부를 창설했다.

이미 독일부, 일본부를 설치하고 있는 이 회사는 세계적 회사로 캐나다에만 23개의 지사를 갖고 있으며, 경영상담, 사업확장, 투자를위한 시장조사, 재무보고서 제출, 세금절약을 위한 세무계획및 보고사업체 매매시의 세금 절약성을 타진해주며, 투자이민 사업계획서도 작성한다.

현씨의 가족으로는 부인 장명숙씨와 5살, 2살짜리 2남이 있으나 아직 가족은 토론토로 이주하지 못했다.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씨알학교 여름학생 모집

영어·예능·수영등 푸짐한 프로

씨알한국인학교가 여름방학동안 보람있게 여름학교의 학생을 모집한다.

7월5일부터 8월13일까지 250 브룩데일 애비뉴 (로렌스와 에비뉴로드)의 John Wanless Public School에서 있을 여름학교의 신청마감은 6월20일까지, 수업료는 학생당 $160, 한가족 2학생은 $310이다.

수업시간은 월~금 오전9시30분~오후3시까지, 학생들을 위한 데이케어는 오전8시~오후6시까지 제공되며 비용은 $60이다.

여름학교를 위한 스쿨버스는 한학생당 $140, 두학생 $270, 미시사가 지역은 한학생 $160 두학생 $300으로 동, 서, 다운타운, 미시사가 지역에서 운행된다.

씨알여름학교는 한국어를 비롯한 예능, 영어, 수학, 과학, 수영, 운동경기, 축구, 야구, 현지견학, 소풍 능 으로 진행 된다.

연락처 441-2986

액운겹친 여교수 교통사고로 사망

미시건대 박순정박사

〈시카고지사〉가정불화로 인해 남편으로부터 총격까지 받고 이혼을 했던 교포 여교수가 겹친 액운끝에 교통사고로 숨졌다.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시의 미시건대 디어본캠퍼스 수학과 부교수로 재직중인 박순정(36)씨는 지난 8일 상오11시께 차를 타고 가던중 디트로이트 시내의 화밍턴과 에잇마일로드 교차지점에서 밴트럭에 받혀 현장에서 숨졌다.

박교수는 서울대 문리대 수학과를 졸업, 테네시대로 유학와 지난 74년 수학분야의 박사학위를 받았다.

당시 테네시대에 함께 다녔던 박씨의 남편은 박사학위 취득을 못해 이로 인한 열등감으로 평소 부부사이가 원만치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80년에는 디트로이트공항 파킹장에서 부인에게 총격을 가하다가 오발로 옆에 있던 미국인 1명을 숨지게 했다.

이 사고로 박교수는 총격을 받고 목에 부상을 입었었다.

박교수의 남편은 당시의 사고로 현재 복역중이며, 이들 부부는 이 사건직후 이혼했다.

23일 방생법회

선련사 주관

한국불교회선련사(주지 : 김삼우스님)는 오는 23일 칼라타전법도장(Hwy41× Hwy7)에서 방생법회를 봉행한다.

봄·가을 두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방생법회는 사람에 의해 살생당하는 생물들을 구해 놓아줌으로서 인간에게 생명의 존엄성과 사랑과 동정의 보편성을 가르치는 불교계의 중요행사다.

방생법회에 관한 문의는 533-6991 또는 532-3491.

구자승 개인전

체류3년의 역작모아

화가 구자승씨가 토론토 체류 작품생활에서 얻어진 우수작들로 개인전을 연다.

그간 수차에 걸쳐 개인전·합동전등을 열어온 구씨는 오는 27일 하오7시30분부터 3시간 동안 오픈·리셉션을 가지며, 전시회는 28일부터 6월9일까지 Set-adel Gallery(302 King St. E. Tor)에서 갖는다.

(연락전화 598-2119)

축

일간지 발행 1주년기념

한국일보 토론토지사의 무궁한 발전을 축원하오며,

더욱 교민을 위해 일하는 신문이 되도록 기원합니다.

※캐나다 은행들이 취급하는 모든업무를 보다 더 신속·정확하고 친절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캐나다 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P.O.BOX 402, TOR., ONT. M5X 1E3
364-2890

불루어지점
629 BLOOR STREET WEST
TORONTO, ONTARIO M6G 1K8
533-8593

갤런트여사 총독상수상

캐나다문학계의 최고권위상

캐나다위원회(Canada Council)가 해마다 수여하는 캐나다 문학계의 최고권위상 총독상(Governor General's Award)의 소설부문상이 메이비스·갤런트(58)의 〈홈·트루스(Home Truths)〉로 돌아갔다.

지난 30년간 파리에서 거주해온 갤런트여사가 캐나다인들의 이야기를 회고조로 엮은 단편집 〈홈·트루스〉는 마가렛·앳우드, 로버슨·데이비스, W.O.미첼, 브라이언·무어, 마리언·엔겔, 잭·호진스등 쟁쟁한 캐나다작가의 작품들을 누르고 뽑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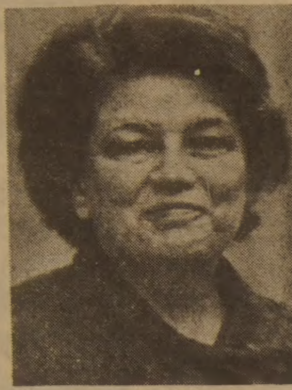
17일 발표된 5천달러의 상금이 걸린 총독상은 상금보다 권위면에서 캐나다 최고급으로, 특히 질적·양적으로 큰 수확을 올린 금년도 캐나다 소설계의 수상자가 누구일 것인가는 큰 관심사 였다.

시부문상은 〈F.R.스콧의 시모음(Collected Poems of F. R.Scott)〉의 스콧에게로, 〈혈연관계〉의 샤론·폴록(Sharon Pollock), 비소설부문상은 조지·칼레프의 〈순록과 황폐한 땅(Caribou and The Barren Lands)〉에게로 각각 돌아갔다.

오는 6월1일 위니펙에서 에드워드·슈라이어 총독으로부터 직접 상을 받을 갤런트는 몬트리얼 출신 작가로 미국의 권위지 〈뉴요커〉지에 자주 단편을 발표해 왔으며, 오는 9월학기부터 토론토대학에서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부문 수상자 F.R.스콧은 맥길대학의 법학교수를 지낸 헌법전문가로 나이가 82세, 〈헌법에관한 에세이〉로 총독상 비소설류 부문상 수상 경력이 있으나 시로써 수상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총독상은 영어작품, 불어작품을 따로 심사 시상하며 두차례 수상한 마가렛·앳우드등 성공한 캐나다 작가들은 대부분 이 상의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다.



◆금년도 총독상 수상자 메이비스·갤런트

대규모 성령세미나

한국서 강사6명 파견

토론토한인천주교회 최초의 "성령세미나"가 오는 20일(목)~24일(월) 4박5일 일정으로 토론토 동부 킹스톤로드의 쎄인·어거스틴 신학교에서 실시된다.

신앙쇄신을 위한 대규모 묵상회인 이번 세미나를 지도하기 위해 김창렬 신부등 6명의 강사가 한국서 오며, 이번 수련자는 74명이다.

성령세미나의 준비 묵상회를 지도하기 위해 신시나티성당의 왕영수신부가 특별파견되어, 13일밤은 던다스성당에서, 14일밤은 가톨릭회관 소성당에서 "하느님과 나의 관계 쇄신", "참기도", "신앙—기쁨과 감사의 생활"등 주제로 묵상지도했다.

◀독자의 광장▶

적자에 허덕이는 한인회에 제언

최 학 철

현재 한인회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나 수십개가 되는 교회와 소수 단체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한번은 생각할 문제다. 왜 재정적자를 면치 못하는가를··· 문제점과 타개책을 제언해 본다.

(1) 회장단과 이사진을 전체 교민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사가 뽑혀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예를 들자면, 한인연합회에 회비냈다는 소리(헌금)를 들어보질 못했다. 이것은 전국에서 목에 힘주기 좋아하는 몇 사람이 모여 "너는 회장, 나는 부회장, 나머지는 이사"하니 누가 그 단체를 우리의 최고기관이라 우러러 보겠는가?

일을 많이하고, 잘하고, 또 고명한 분들이란 것은 불문가지 이다.

이와 유사하게 된것이 근래의 토론토 한인회가 구성되었기에(이유야 어떻든) 회비내는 사람이 줄 수 밖에.

(2) 한인회는 모기관과 종적관계가 되어있는 것 같이 주지된사실로 보여지는데, 횡적관계로 운영되는 것 같이 교민에게 보여주라.

그렇지 않고 계속 이와같이 운영하려면 그 기관과 회장이 운영비를 전담하고, 몇몇 인사들 계속 목에 힘주고 일하고, 교민은 회비 낼 필요가 나변에 있는가?

(3) 이사회를 대의원제로 바꾸어라.

이사회는 기십명, 많아야 1~2백명때 구성체지, 기만명일 때는 감당을 못한다.

즉 이사회란 그 단체의 재정(적자재정)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우리 교민은 꼭 한인회란 것이 있어야한다.

교회와 소수 단체가 100이 넘는 현실에 모 기관과 목에 힘만 줄줄아는 유지들이. 이제라도 힘을 모아 한인회를 재건해 주길 바란다.

(참고)1968년말 한인회장 선거때 천여명 인구에 600여명이 선거에 참가한 기억이 난다.

지금도 3만여명의 현실에서는 위와 같은 비율로 참석하려면 2만4천이다. 그러니 대의원제도로 할 수 밖에. 이 글은 비난이나 누구를 모독하는 글이 아니다. 그저 교민 의 마음으로 제언했다.

교 민 동 정

◆송관현(바우광고 사장)=1년여동안 싸인·간판업계에서 활약이 컸으나 5월말로 문을 닫고, 6월초부터 다른 사업에 착수한다. 그동안의 고객중 아프터·써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은 465-1772로 연락 바란다고.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三國志 378 글·高羽榮·그림

진정한 2세교육 없이는 깊은뿌리 내리지 못한다

「새벽이 오는 들판에서…」 소녀들 윤간소식을 듣고

◇이충열 씨

이 충 렬
(문학평론가)

필자는 캐나다 한국문인협회(회장 조정대) 회원이며, 동협회 공모 제3회 신춘문예(80년1월1일)평론부 입상자로 현재, 미국 서부로 이주, LA서살고 있다.

밤새껏 잠을 설치다 새벽이 될 무렵 아직도 잡초가 무성한 작은 들에 나와 아침을 기다리며 어제 저녁 TV뉴스가 안겨준 슬픈 소식을 되새겨 본다.

한국인 소녀들이 같은 한인청소년들에게 납치되어 윤간을 당했다는 어제 저녁의 뉴스는 졸립던 눈을 번쩍 뜨이게 하면서 그 일에 대해 무능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는 사치스러운 감정일지도 모를 그 소녀들의 아픔을 생각하였다.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오는 부모따라 왔을 그 소녀들이 왜 이국땅에서 그런 변을 당해야했고 무엇으로 그 아픔과 상처를 보상받아야 할지 밤새껏 들판을 달리는 바람소리조차 괴로움에 잉잉거리고 그 바람소리속에 소녀들의 울음소리가 스며들어와 잠드는 혼을 흔들어 놓곤하여 결국 바람소리에 끌려 이 새벽의 들판에 나왔다.

주제넘게 그 소녀들의 슬픔을 찾는다고 나와, 우리나라의 들판이 아닌 캘리포니아 작은 도시의 들판에서 우리의 진달래 개나리가 아닌 소녀들의 아픔이 스민 미국잡초를 꺾으며 그 소녀의 슬픔이 남겨놓은 아픔의 깊이와 이 아픔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남겼는가를 생각해 본다.

싸움만 일삼는 한인사회 득이 무엇인가
소녀들이품었던 세계를 활짝열어 주자

이제는 막연히 오늘의 미국 사회가 위험한 사회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기성세대가 어린세대들을 이 어려운 사회속에서 어떻게 보호해야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반성해야 할 때 인것같다.

작은 한국타운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당파싸움하듯 밤낮없이 대의명분만 내세우며 싸움을 하는 그 한인사회 인사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싸움이 과연 한인사회를 위하여 무슨 이익이 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하여튼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은한인사회를 빨리 정상화시켜 대외적으로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사회를 만들고 나서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사업도 중요하지만 2세 교육의 중요함에 더욱 신경을 써 돈으로 시키는 교육이 아니라 마음과 대화와 건전한 가정풍토속에 이루어지는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져야겠다.

소수민족 2세가 미국사회에서보다 떳떳하게 되는데 돈도 중요하지만 미국을 살아나가는 지혜가 중요함을 깨달아야 한다.

오늘의 한인사회가 다른 소수민족 사회와 비교해 볼때 짧은 시간에 빨리 성장한 사회임에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급격한 경제적인 고도성장에 따른만큼 2세교육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가 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경제적인 기반도 중요하지만 튼튼한 2세교육이 없는 이민사회는 결국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는, 모래위에 세우는 고층건물 밖에 안됨은 기성세대들은 깨달아야 할 때 인것 같다.

힘들여 파출소를 세워놓고도 파출소 뒤에서 일어나는 강도사건도 외면하고 어린 소녀들이 무서움에 떨며 납치되어도 못 본척하며 돌아가는 서로만의 지나친 과잉보호 풍토가 만연되어 있는 이 어둠의 사회에 이 어둠을 걷어가는 새벽의 시간이 하루 빨리와야 겠다.

오늘날 우리 이민1세들이 당하는 고통과 서러움은 우리의 2세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밑거름이 되어야할 것이다.

아침이 오는 새벽 들판에 슬픔의 바람이 분다.

우리들의 깊은 상처, 소녀들의 아픔이 담긴 바람이 부는 새벽이 오는 이국의 들판에서 아침 햇살에 사라져가는 어둠의 그림자처럼 그 소녀의 아픔도 하루 빨리 씻어져 설움과 슬픔에 주저앉아 좌절하지 않고 사랑과 평화, 하늘의 밝음을 향하여 당당히 걸어가 가슴속에 품었던 자신의 세계를 이 사회속에서 더욱넓고 깊게 펼쳐나가기를 바래본다.

유난히 바람이 찬 새벽, 어둠이 들판속에 묻히고 햇살은 가늘게 외로움을 비벼대며 아침을 연다.

프로축구 블리쟈드를 즐기자
입장권 예매처
한국일보사 533-2361
브랜돈스포츠 598-3732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영철

추도식에 초대합니다

우리는 2년전 이때쯤 우리 조국 광주에서 일어났던 불행한 사태를 기억하고 있읍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치다가 억울하게 숨진 수많은 원혼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추도식을 갖고저 하오니 뜻있는 교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 5월23일(일) 오후 7시
장 소 : 한인연합교회 (300 Bloor St. W.)

광주희생자 추도식준비위원회

위원장 : 윤택순
고 문 : 김재준
위 원 : 이상철 박찬웅 윤용섭 박재선 엄광열 박주삼
최동규 송남성 박기호 정철기 임승철 (무순)

제1회 한국일보사 배 어린이 야구대회

일 시 : '82년 7월 3일(토) 아침 9시부터
장 소 : 코로네이선 파크(구장 2개 사용함)
(CNE 정문앞, 레이크쇼어 × 더퍼린과 베더스트 사이)
선수자격 : 197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참 가 비 : 팀당 $50
시 상 : 1~3등, 최우수 선수상, 피처상, 타격상, 미기상, 감투상
★OASA(온타리오 아마츄어소프트볼협회) 규칙을 적용하되 자세한 내용은 감독자 회의에서 결정할것임.
심판및 진행위원장 : 박 재 선 씨
감독자회의 : 6월24일(목) 오후 7시 한국일보사 사무실
연 락 처 : 한국일보사 송광호(☎ : 533-2361) 브랜돈스포츠사 이전영(☎ : 598-3732) 박재선 (☎ : 755-6434)

주 최 : 한국일보 토론토지사
후 원 : 토론토 한인회 대한체육회 캐나다지부

"「權力배후」있다면 밝혀라"

張女人 財務委 이틀째 "관련企業 더있다 名單공개를"

企業誤信케한 구체方法뭐냐
外換法위반서 急旋回이유는
"두行長·共榮·日新대표 拘束하라"

국회財務委는 14일 이틀째회의를 속개, 羅雄培재무장관 金壽鶴 국세청장, 裵秀坤은행감독원장, 朴鳳煥증권감독원장등과 林在務前朝銀, 孔德鍾前商銀은행장들을 출석시켜 李哲熙 張玲子부부의 巨額어음사기사건에 관해 정책질의를 벌였다。이날 밤늦게까지 계속된회의에서 李英駿 朴完奎 孫泰坤 金在暎 金台植 金炳午 李載根(이상民韓) 朴鍾寬 黃炳晙 郭正出 李慈憲 李敏燮 陳懿鍾(이상民正)李聖秀(국민) 李洙鍾의원(議政)등 많은의원들이 질의에나서 이사건과관련된 權力의 배후조종여부와 이사건으로인한 私債증권시장의 對策과 아울러 責任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與野의원들은 背任행위가 확실한 두 銀行長, 직접관련자、共犯인 共榮土建과 日新製鋼대표등을 단순한 경제事犯이 아니라 反國家事犯으로 다스려야 한다며 모두 구속할것과 ▲張여인이 權力層의 비호를 僞裝하고 기업들이 誤信했다면 그구체적 방법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한편 ▲최악의 상태에빠진 증권시장의 대책과▲私金融의 양성화 ▲私債업자들의 세금포탈對策 등을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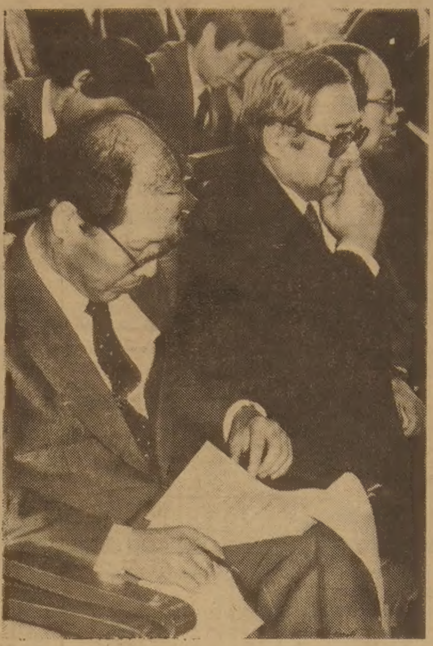
이들은 이번사건에 관련된 기업이 발표된 6개보다 더있다고 지적、공개할것과 최근 갑자기 浮上한 明星그룹의 관련여부를 밝히고 또 당초 검찰이 이사건을 外換관리법 위반으로 끌고가려다가 강경으로 선회한것은 이사건에 얽힌 權力의 비호를 옹호하려고 한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진범이 누구냐고 추궁했다。

의원들은 이밖에▲사건에 관련된 권력기관、정치세력、금융계인사가 있다면 명단을 공개 ▲張여인이 빌려준 5백76억원의 利子소득과 빌려준 내용공개▲張여인의 1천4백76억원의 사용처 공표등을 요구했다。

특히 李洙鍾의원(議司)은『共榮土建이 不渡난 4월30일부터 5월11일 거래정지가 될때까지 共榮주식 4백13만주가 거래되었고 이로인해 선의의 투자자들이 약20억원의 손해를입었다』고 밝히고『共榮의 傍系회사인 東海생명과 기업주의측근、기관투자가들이 부도가나자 소유주식을 무더기로 처리하자 선의의 투자자들은 이를 모르고 사들여 손해를 보았는데 이들에대한 보상대책이있느냐』고 물었다。

羅雄培재무장관은 답변을 통해『大株主및 기관투자자 傍系회사등이 언제 얼마를거래했느냐를 조사하고있다』고 밝히고『共榮土建이 증권거래소에 2백40억원이 예금되어있다고 공시한것은 사실과 다르기때문에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朴鳳煥증권감독원장은 부도후 18억5천만원어치의 4백13만주가 거래된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議員들 안풀리는 궁금증 국회財務委가 연이틀동안 張여인사건을 신랄하게 추궁했지만 의원들의 답답함과 안타까움은 좀처럼 가시지않는듯했다。이와함께「도둑놈」「罪人」「下手人」등의 原色的인발언이 亂舞하는가운데 참고인으로 출석한 문제의 林在務前조흥은행장㊧과 孔德鍾前상업은행장의 표정도 심각하기만하다。

"私債凍結조치 안해"

羅財務답변 현재 政·금융界 관련人士없어

羅장관은『정부는 이번사건과 관련 8·3조치등과같은 私債凍結특별조치를 전혀 고려한바없으며 현재 그러한 조치를 취할필요가 있다는생각을 갖고 있지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이번사건과 관련、短資會社와 제2金融圈의 피해가 많은게 사실』이라면서『그러나 短資社는 자본이나 적립규모등에 있어서 4~5년간 급격한 성장을했기때문에 충격은 있어도 자력으로 회복할수 있으리라고 보며 가능한 제도적인 지원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羅장관은『이번 사건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6개업체외에도 2개업체가 어음을 빌려주었다가 회수했으나 피해는 없다』고 말하고『이번사건에 현재까지 관련된 정치가나 금융계인사는 없는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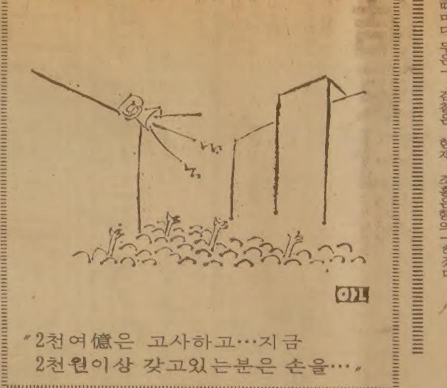
羅장관은『기업이 張여인에게 이용당했지만 사실상 사용한 금액이상의 어음을발행、유통시킨책임은 면할수없다』고 밝히고『수사결과 기업주가 형사책임을 져야할 문제로 밝혀지면 책임져야할것』이라고 말했다。

檢察 "背後누구든 召喚"

行長강제수사「陳述」따라

한편 검찰의 고위당국자는「李씨부부비호설」에 관련、전광업진흥공사사장이며 張씨의 형부인 李圭光씨(57)를 소환할 방침이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대해『지금까지의 수사결과로는 은행이나 기업이 張씨와 거래하는데 李씨가 개입됐다는「진술」을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은행장들에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됨에 따라서는「신빙성있는 진술」을 들을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국민들의 의혹이 張씨의 배후에 권력이 개입돼 있었는지여부에 집중되고있는만큼 어느누구라도 혐의가있다고 인정되면 불러 일단 조사한다는게 검찰의방침이다』고 말했다。

社會漫評



"2천여億은 고사하고…지금 2천원이상 갖고있는분은 손을…"

◇全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不美스런사건 저촉되는 사람 나를포함 地位高下막론 嚴斷"

全대통령 閣議서지시 최근 몇가지事件 政府面目 없어

全斗煥 대통령은 14일 巨額어음不渡사건에 관해『전체 국무위원들은 사후수습에 있어 소신을 갖고 경제에 미치는 피해와 일반국민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다해달라』고 內閣에당부했다。

全대통령은 이날하오 청와대 국무회의를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하고『제5공화국 정부아래에서 부정과 부패는 반드시 척결돼야하며 이목표는 절대로 변할수 없다』는 현정부가갖고있는 확고부동한 방향을 되풀이 강조했다고 李雄熙 청와대대변인이 밝혔다。

全대통령은 또『최근 발생했던 몇가지 불미스런 사건에대해 정부로써 국민에게 대단히 면목이없다』고 개탄하면서『모든국무위원을비롯한 공직자들은 깊은반성이있어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불미로운사건에 저촉되는사람은 대통령을 포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의해 엄단될것』이라고 강조하고『대통령인나와 이정부의 목표는 정치적으로는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관례를 남기는것이며 경제적으로는 국민총생산액을 1천억달러까지 성장시키고 절대빈곤층을 없애자는것。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위대한 민족으로의 도약의기반인 의식개혁을 이룩하자는것』이라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이어『이러한 가운데 안보를 튼튼히해 통일로접근해 나가자는것이 제5공화국 정부가 지향하는화합한 방향』이라고밝히고『이 목표달성을 위해 모든 국무위원들이 있는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中小기업자大會서 치사 기업內實化 긴요

全斗煥 대통령은 14일『아직도 우리기업에殘存하는 비합리적 경영자세에서 탈피해 自助와 창의를 바탕으로 스스로를 內實化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정부는 앞으로 투철한 企業觀을 가지고 생산활동과 受注활동을 열심히하는 등 왕성한 의욕을 보이는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운영자금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육성책을 펴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상오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전국중소기업자대회에 참석、치사를 통해『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술의 落後、자금압박、그리고 販路면의 곤란을 겪고있는 것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하고『지금은 우리의 중소기업이 낙후와 열세의 代名詞로부터 벗어나 안정과 발전의 주역으로 국민경제속에 튼튼한 뿌리를내려야할시점』이라고밝혔다。

全대통령은 또『80년대의對內外的인 경제환경을 고려해 볼때 우리의 기업활동은 새로운 좌표를 확립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이르렀다』고지적、『먼저 對內的인 면에서 우리가 해결해야할 시급한 과제는 우리앞에 가로놓인 경제발전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명확히파악하고 그것을극복하기위해있는힘을다 기울이는것』이라고말했다。

行長拘束 시간문제

직접貸出지시…장부정밀調査

李哲熙·張玲子씨 부부의 거액 어음사기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는 14일하오 국회재무위에 출석했던 전朝興은행장 林在務씨와 전商業은행장 孔德鍾씨를 국회가 폐회된직후 연행、철야심문 중이다。

검찰은 이같은 분석결과에 앞서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전조흥은행전무 申永澈씨 감사 朴廣鍾씨등 본점간부와 德壽지점장 金洙鎬씨、전中島지점장 李斗淳씨(현본점영업부장)상업은행 光化門지점장 金廣顯씨등 지점장들을 불러 조사한결과 張씨의 대출요구가 있을때마다 두은행장이 무담보대출액수를 구체적으로 지시해줬다는 진술을 받은것으로 알려져 두은행장이 배임혐의로 구속될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조흥은행의 대출장부와 共榮토건등 관련회사의 경리장부를 압수、張씨와 거래가시작된 지난해 2월이후 정확한대출총액을 정밀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두은행장들로부터 지난해 2월이후 張씨에대한 무담보대출경위 기업어음결제과정 어음융통 무제한발행 등에따른 배후세력의 압력이나 청탁등이 있었는지에대해 중점적으로 심문하고있다。

검찰은 배후세력 개입여부와 은행비리에 수사의촛점을 맞춰 張씨의 은닉재산이나 해외도피자금을 추적하는데도 수사력을 기울이고있다。

李·張부부甲勤稅 4년간 9백만원

李·張부부가 지난 79년부터 82년까지 최근 4년간 大和産業 韓中日報 국회등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납부한 갑근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는 9백13만5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무부가 14일 국회재무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張여인은 80년부터 82년3월까지 2천3백16만원의 근로소득에 대해 갑근세와 방위세 4백20만6천8백원을、李씨는 79년부터 82년3월까지(80년제외) 2천4백96만원의 근로소득에 대해 갑근세와 방위세 4백92만8천원을 각각 납부했다。

한편 李씨는 지난해에 江南區瑞草洞 대지 4백90·2평을 팔아 소득세 5천8백67만3천원과 방위세 1천1백73만4천원등 총7천40만7천원에 달하는 양도세를 낸적이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地平線

『총잡이가 지키려는 세계의 밑바닥에는 그자신의 명예가있다』고 미국의 영화평론가 로버트·와쇼라는 사람은 서부영화의 특질을 말하고있다。그는「하이·눈」의 보안관 게리·쿠퍼가 그대표적인 예라고 말하고있다。그러나 서부영화도 만드는 사람에 따라 개성이 있다。총잡이를 새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거나、총잡이가 결국 허허벌판을 향해 떠나기도한다。▼스타일의 차이가 있다해도 서부영화의 결론은 똑같다。「정의는 이긴다」는 것이다。미국의 전통의 핵심에 있는 것이 이런 신념이다。서부극이 세계를 정복해서 마카로니·웨스턴이 나오기까지에 이른 이유다。비슷한 현상으로 요즈음 일본에서는 전통적인 무협물인「忠臣藏」을 현대에 맞게 꾸민 공영텔레비전 NHK의 드라마가 인기라한다(한국일보14일자8면보도)。▼47명의 무사들이 억울하게 죽은 영주의 원수를 갚게되는 파란만장한 얘기를 그린 것이 이「忠臣藏」이다。영주를 죽게한 간교한 원수의 목을 베고 47명의 무사들도 자결하는 줄거리다。미국의 서부극 처럼 정의가 이기는 것은 같지만、원수를 갚고 자결한다는것은、일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있다。자결이라는 요소가 끼임 으로써 더、미화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한국의 드라마도 지극히 한국적인 특징들을 지니고있다。새색씨가 구역질을 하면「경사났다」고 하는 것도 그런 예의 하나다。왜 아기를 가진 것을 구역질로만 표현해야되는지 알고도 모를일이다。임신했다는것은 암호로만 표현해야될만큼 우리의 생활은 획일적이고、話術이 없는 사회일까?우리의 현실은 정말 그런것일까?▼한때 드라마에 왜 그렇게 밥먹는 장면이 많으냐는 시비가 있었지만、잠자리가 많다는 것도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다。잠자리라면 섹스를 표현하는 것이 국제적인 상식이지만、우리의 경우엔 부부가 나란히 누워만 있는 장면이 대부분이다。어떻게 보면 싱겁고、어떻게 보면 낯뜨거운 광경이다。아예 없애버리든지、좀더 세련된 표현으로 한발 앞서야될 것이다。▼고래고래 악을 쓰는 대목이 으레 빠지지않는 것도 중대한 문제다。한국인의 일그러진 自畵像일까? 역사극이라면 허리를 굽실거리기만하고、서부극이나 일본의 忠臣藏처럼 정의의 사나이의 용감한 대결보다는 세월의 흐름만이「어울한」을 풀어준다는게 한결같은 定石이다。시대적 감각과、인간에 대한 탐구정신을 바탕으로한 창작정신이 아쉽다고 할수밖에 없다。

한국일보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 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민영숙
(B)368-7961 (R)690-5217

구독신청은 (416) 533·2361

SunLife OF CANADA

김신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Jt)

제3회 김용순무용발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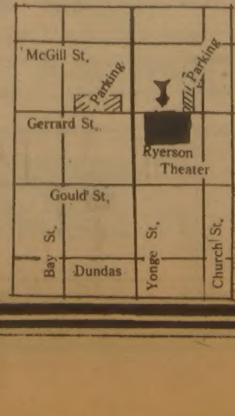
★초호화판 RYERSON극장 무대위에 펼쳐지는 5천년 한민족의 얼!!

★2년의 노력끝에 보여드리는 우리 자녀들의 자랑스러운 민족의 제전!!

★남녀노소 우리 온 가족은 물론 이웃의 캐네디안 친구들에게도 우리의 문화를 자랑하자!!

●일 시 : 1982년6월12일(토) 오후7시30분
●장소 : : Ryerson Theater 43 Gerrard St. E (Yonge & Gerrard)

★입장료 : A석 $8.00 B석 $6.00



출 연 : 김지현, 이민경, 서은정, 송유미, 박쏘냐, 이은미, 김미라, 장진이, 김영임, 김소영, 서혜승, 이경, 이수경, 정은미, 최후로라, 김영희, 곽아나, 곽수미, 박정화, 손스지, 강윤숙, 강진경, 강명진, 김은경, 김은진, 장쥬리아, 배소진, 김용순

찬조출연 : 오재윤, 김정숙

도움주신분 : 유영갑 100불 서준경 100불 이기천 100불 김병권 100불 최우덕 100불 곽정열 100불 김춘탁 100불 한용식 50불 강우석 100불 정태호 100불 손명수(손·BROS) 100불 장필규 100불 김만구(ECOSYS가구점) 100불 김현모(연합상사) 100불 이기훈(무나미트로피) 100불 이창복(펜·아시아) 100불 서형서 50불 유재영 100불

도움주신단체 : 실업인협회 200불 숭공문화협회 200불 배재동창회 200불 라이온스클럽 200불

판 매 처 : ⊙킹스카메라(534-1085) ⊙미도파백화점(536-1692) ⊙노년회(755-8079) (노년회 회원에 한해선 A석을 $6.00에드림) ⊙각 식품점 ⊙각 음식점
총 감 독 : 장기철

주 최 : 한국민속예술후원회(주소 : 619 Bloor St. W. Tor. Ont. M6G 1K8) ☎ : (416)534-1085

후 원 : 토론토총영사관, 토론토한인회, 노년회, 코리아타운번영회, 라이온조클럽, 영리무역, 대한체육회지부, 대한체육회캐나다지부, 대한부인회, 라이온조클럽, 영리무역, 서울여행사, 배재동창회, "88올림픽후원회, 숭공문화협회

한국일보
특집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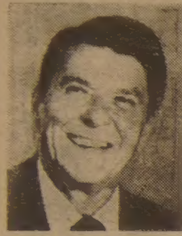
取材팀
◇특집부
朴涌培 부장
鄭逸和 기자
文昌宰 〃
◇사진부
韓 隆 기자
李昌淳 〃
◇특파원
워싱턴 曺淳煥

한국은 미국의 무엇이며 미국은 한국의 무엇인가

「韓·美 100年」을 照明한다

美國民은 많은 共同의 가치를 한국민과 함께 향유

레이건大統領 특별성명 全文



『1882년 5월22일 美합중국과 朝鮮왕국대표는 양국간 외교관계와 상호 수도에 상주공관을 설치토록하는 평화·우호·통상·항해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東北亞역사에 새로운 장을 기록한 것이었으며 한미양국간의 변함없는 同伴관계의 겸허스런 출발을 알리는것이었다.

지난 한세기동안 양국은 엄청난 변화와발전을 목격해왔다. 우리 양국관계는 우리 두나라가 세계조류의 핵심에 위치하지 못하고 있던 시절에 시작됐다.

그러나 한세기후 韓國과 美國은 모든 분야에 걸친 국제문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경제적 변천을 겪어 1백년전 농업사회로부터 도시·공업사회로 발전했다.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번영을 구가했다.

미국민은 그들이 한국역사에 기여한역할, 특히 지난 1백년간의 역할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있다.

1945년 미국軍은 한국의 독립회복에 강력한 위치를 지켰다. 5년뒤인 1950년 미국軍은 한국군과 어깨를 나란히하여 공산침략에 대항해 싸웠다. 또 한국은 越南에서의 공산침략을 격퇴하는 미국을도와 중요한 기여를 했다.

이 모든 기간동안 한미양국 국민은 교사·학자·선교사의 교류를 통해 상호문화발전을 이룩했고 통상과 과학기술협력을 통해 상호경제발전을 도모했다.

미국은 한국출신 미국시민과 교민들의 미국사회에 대한 경험에 박수를 보내고있다.

오늘날 미국민은 많은 공동의 가치를 한국민과 함께 향유하고있다.

우리는 자유의 분위기속에서만 인간의 모든 역량이 발휘되고 결실될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 양국민은 높은 교육수준을 이룩했고 그 결실을 거두었다.

우리는 기업의 자유스런 활동이 적극성과 창의를 고양함을 믿고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근면과 성실이 생활을 향상시키며, 우리 후손들을 위한 보다 훌륭한 세계를 이룩해줄것임을 믿는다.

이제 양국관계가 제2세기로 접어듦에 있어 우리는 지난날의 성과에 만족하며 또한 미래 역시 그럴것임을 전망한다.

미국민은 한국의 벗들과 항상 함께 할것이다. 그러함에 있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헌신이 변치않는 굳건한 힘과 우정의 기초가 될것임을 거듭 확인한다.

우리는 이 위대한 국가·국민들과의 유대를 되새겨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 로널드·레이건은 5월16일부터 22일까지를 韓美간 외교관계, 그리고 양국민간 우정의 유대가 성립된 1백주년을 전국적으로 기념하는 주간으로 선포한다.

그 증거로 1982년, 그리고 美합중국 독립 2백 4년 5월11일 이에 서명한다.「로널드·레이건」』

「제2世紀의 새벽」에 글라이스틴 前大使는 말한다

오는 22일은 한국과 미국이 외교관계를 갖게된 1백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를 축하하기위해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16일부터 22일까지를 한미수교 1백주년 기념주간으로 선포하고 특별성명을 발표했으며, 두나라에서는 갖가지 기념행사와 잔치가 벌어진다. 한미관계의 제2세기로 접어드는 이같은 싯점에 즈음해서『한국은 과연 미국의 무엇이며 미국은 과연 한국의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는것이 이 특별인터뷰와 특집의 취지이다. 윌리엄·글라이스틴 前주한대사(現워싱턴 아시아협회 사무총장)는 10·26과 5·17등 한국에서의 격동의 80년대초반을 지켜본 증인. 본사曺淳煥특파원은 워싱턴에서 그를만나 1시간30분간 한미수교1백주년에 즈음한 두나라의 가치관, 변화되어야할 인식등에 대해 광범한 의견을 나누었다. 인터뷰 전문을 싣는다. 【편집자註】

워싱턴 曺淳煥특파원 特別인터뷰

실망·反感끝나고 堅實한 結束단계
美側은 自己중심의 對韓觀 버리고
한국은「妥協」통한 政治발전 익혀야

◇『한국이 미국에 배울것은 타협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글라이스틴 前주한대사.

—오는 22일은 韓美修交1백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현재의 한미관계를 논평하고 또 미래의 이상적 한미관계도 전망해 주시지요.

▲글라이스틴=한미 두나라는 좋은 시기에 수교 1백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나라는 성숙된 관계에 접어들었읍니다. 다음 세기의 한미관계는 보다 친밀히 결속되고 더균형잡힌 관계가 될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한미관계를 토대로 전망한 것이라고 말할수 있읍니다.

과거의 두나라 관계를 들여다보면 변해야 할것도 있고 또 그대로 계속돼야할 것도 있읍니다. 과거의 한미관계를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거리가 멀고 불투명했던 시기가 있었읍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에의 관심이 일본때문에 가리어졌던 시기가 있었읍니다.

20세기초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국가이익이 일본으로 인해 희생되었읍니다. 일본의 한국점령이 뒤따랐고 일본의 식민지시대에 이어 2차대전으로 연결되었읍니다.

이시기의 한미관계를 텅빈 백지상태라고 표현할 수있겠지요.

이러한 백지관계가 50년이나 되었읍니다. 이런 관계는 다시 있어서는 안될 변화되어야할 관계입니다.

2차대전후 특히 한국전쟁후 한미관계는 극적으로 변했읍니다. 한국을보는 새로운 눈이 미국에 싹텄읍니다. 한국도 미국을 달리보게 되었읍니다.

두나라간의 군사, 경제, 정치관계에서「새로운단계」가 시작되었읍니다. 한미간의 기본적 변화이며 미래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관계입니다.

미군의 한국점령시기와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한국은 미국에 반감도 가졌고 실망도 했을것입니다.

미국도 한국에 대해서 실망했읍니다. 하지만 두나라는 다 서로를 연구한결에 두나라의 안보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읍니다.

한국은 복잡한 관계에 있는 이웃대국들보다 멀리 떨어진 강대국 미국의 보호를 받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는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미국은 한국에 깊은 간여 하는것이 전쟁에 말려드는 위험이 있다는것을 인식하면서도 한미안보관계는 일본의 안보나 아시아정세의 균형을 위해서 긴요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읍니다.

안보관계의 중요성은 건실히 지속될 것입니다. 한미간의 경제관계는 분명히 두나라가 다 이익을본 관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미관계를 전망해 보면 분명히 보다 중요한 관계이며 확실히 전반기의 백지관계와는 다른 것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미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두나라 국민의 가치관이라 할까 가치체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국민들의 특성과 한국 국민들의 특성은 서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 미국 국민들이 보는 가치관과 한국 국민들이 보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가치체계도 다릅니다. 즉 정치체계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두 나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도 갖고있으나 상호의 국가이익이 다르게 나타날때도 없지않습니다.

미국사람들은 물론 다양한 의견을 갖지만 쉽게 총화(컨센서스)에 이르기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쉽게 타협합니다. 타협은미국정치제도에서 하나의 절차가 됩니다. 한국사람들의 특성이나 정치제도에서는 타협보다도 현실적으로 대결이앞서는것같습니다.

타협보다도 대결이 앞서는 것은 한국 국내정치면에서 뿐아니라 한국국제정치관계에서도 나타나는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지식층은 미국사람들과 비슷한 근대적가치관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사람들의 대표적이며 평균적인 가치관은 못됩니다.

한국에서의 평균적 대다수의 가치관은 농민및 도시서민층이 갖는 가치관입니다.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한국사람들이 갖는 가치관은 미국사람들이 갖는 가치관과 다릅니다. 이 다른 가치관이 한미양국관계에 말썽을 일으키는 근원이 되기도 했읍니다.

나는 교육수준이 높고 국제관계에 이해도가 높은 동료들에게 한미두나라의 가치관의 차이를 터득하게 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읍니다.

한국의 지식층과 서민층들간에 가치관이 다르듯이 가치체계는 점차 변화해갈 것입니다.

한국사회의 가치관은 변화가 어떻게 되어갈 것이라고 장담할수는 없으나 그 변화의방향은 중요 관심사입니다.

—귀하는 한국사회나 한국사회의가치관에 대해 미국의 지식층이 터득하도록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다고 했는데 그 문제에대해 좀 자세히.

▲미국사람들은 5년전이나 10년전보다 한국을 더 잘알게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반 미국사람들은 한국을 발전도상국, 심지어는 저개발국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무상원조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일반사람들은 한국을 억압되고 자유운동이 허용되지 않는 폐쇄된 사회로 알고있읍니다. 미국 지방신문들의 사설도 그런 방향으로 나와 말썽을 빚고는 합니다. 물론 이런 미국사람들의 견해는 사실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나는 이런 미국사람들에게 말할때는 한국정부가권위주의적 일진몰라도 독재정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국이 무상원조를 받는 나라는 더군다나 아니며 생활수준이 매우 높아졌으며 경제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미국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한국에대해 알고있는 부정적 이미지는 쉽게 시정될것 같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인권문제영역이 있읍니다. 일반적으로 말해 미국사람들은 미국사회의 가치구조를 한국에 그대로 옮겨가지고가서 그 가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읍니다. 나도 한국대사로 가서 초기에 그런 경향이 없었다고 말할수는 없읍니다. 하지만 대사로서 그나라 사회에 뿌리를 내린 가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자연적인 것이라고 할수있겠읍니다.

미국사람들은 태평양을 사이에두고 한국의 가치구조가 미국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것입니다.

—귀하가 분석한 한국에서의 가치관에 있어서의 우선순위에 대해 논평을 해주십시오.

▲비근한 예로 코끼리에게는 긴 코가있고 표범에게는 검은 반점이 있읍니다. 또 범에게는 검은 줄무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각국민들에게는 각기다른 가치관이 그들의 환경에 따라 다른 형태로 형성되게 마련입니다. 내가 말하는 한국의 가치구조는 귀하와 같은 지식층이 갖고있는것을 말하는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대다수 사람들을 포함하게 되는 농촌사람들, 도시노동층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사람들의 대다수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갖는 가치관의 우선순위의 첫째 것은 좀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살아남는 것입니다. 두번째가 경제향상등 생활수준향상. 세번째가 정치적가치로 민주주의나 자유라는 말이 범주에 들어가지요.

미국의 가치구조는 한국의 것과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의 세번째가 되는 정치적 가치가 대체로 첫째가 되지요. 생활수준의 향상은 첫째가 되기도하고 둘째가되기도 합니다.

살아남는다는것은 걱정할것이 못되는것으로 대다수 미국사람들이 도전받는 문제가 아니어서 우선순위에 오르지않습니다.

미국사람들이 한국의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다는것을 이해하려면 미국사람들의 가치구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과 중산층의 지식인들은 미국사람들이 갖는 가치관과 엇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읍니다. 하지만 한국정부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현상은 소수자에 의해 좌우되는것이 아니고 대다수에 의해 영향받는 것입니다. 물론 한쪽만을 편중해서는 안되며 두쪽에 다 관심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반응에 대한 문제는 소수자의 견해보다는 다수의 견해가 중요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나를 포함해서 미국사람들은 한국국민들의 의견이 보다더 많이 반영되는 대의제도가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사람들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이말에 한국사람들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중요한 사태가 일어나면 한국적 가치구조에 비추어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사람들이나 미국 대통령이 민주주의나 인권문제에 대해서 설교비슷한 말을할때 비록 그것이 한국사람들에게 비현실적인것으로 들릴지라도거기에 귀를 기울일 융화적 자세를 가져야할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변화의 와중에 있읍니다. 현대사회로 발전적으로 변화해가고있읍니다. 국회나 언론이 서구사회처럼 기능하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정부를 비판해야 할것입니다.

한국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이 서구경제 체제와 융화를통해 성취된것이라는 것을 알아야지요.

한국기업들은 해외기업들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경우라도 그들이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수 있어야 할것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학교에서 비한국적 가치가 되는 서구전통과 서구의 정치사회제도를 공부합니다.

사회전반에서 보면 그들은 이상주의적 생각을 갖는편이 됩니다.

그들의 생각이 한국사회에 압력을 주는 현상으로 나타날 때도 있읍니다. 이런 압력이 숨구멍을 찾아 분출되어가야 할것입니다. 한국사회는 이런 압력을 받아 소화할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문제가일어나게됩니다.

한국은 국내문제든 국제문제든 그 환경변화에 잘 조화를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인는 한국의 급격한 변화를 뜻하는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온전한 변화를 해가는것을 말합니다. 한국은 현대세계사와 그문제등에관련해서 점차 自由化해갈것입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정치제도가 부응하는것입니다.

—북한지도층에서도 무력으로라도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가치관이 변할것으로 봅니까. 80년대내에 키신저 전 美국무장관이 제의한 교차승인이 한반도에서 실현될것으로 보입니까.

▲김일성이 북한지도층에 남아있는 한 그전망은 비관적입니다. 하지만80년대에 북한지도층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있읍니다. 지도층이 변하면 그 가치관에도 변화가 생길수는 있읍니다.

—얼마전 워싱턴에 온 한국정부고관은 학생문제는 그렇게 심각한것은 못되고 오히려 노동문제에 더관심을 쏟고 있다고 말했읍니다.

▲노동자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는데 동의합니다. 특히 한국의 현실에 비춰보면 학생들의 한국사회에대한불만은 언제나 있어왔고 또 불안정요인으로 작용했읍니다. 한국사회에서 다른불만이 있는 데다가 노동자들의 불만이 겹치면 말썽이 생길것입니다. 한국노동자들의 가치관도 변화해갈것입니다. 80년초에 한국노동자들은 非현실적 高임금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한국경제는 오르락 내리락한것이나 미국및 일본과의 무역이 호전돼갈것입니다. 한국경제가 좋아지면 임금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것입니다.

노동문제는 조심스럽게 효율적으로 다루어야할 것입니다. 한국노동자들이 저임금을 받고있다는 이야기를 들을수있으나 사실은 아닙니다.

지난2년간에 임금문제는 많이 개선된것으로 압니다. 노동자들의 주택문제등이 남아있다고 하겠읍니다.

한국학생들은 이상주의적이고 정열적이며 또 정치적입니다.

학생들의 사회에 대한 참여를 위험스러운것으로 보기보다는 이상주의적 태도의 한정상적표현으로 본는것이 더 여유있는 입장일것입니다.

—한국의 외교를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외교는 對美관계, 남북관계등 직선적·평면적 측면을 중시하며추진해가는데 능한것같아요. 하지만 예컨대 군축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또 NATO가 약화될때 한국에 어떤 간접적·우회적 영향을 주는가하는등의 문제를 파악하는데는 소홀한것같아요. 일본도 한15년전까지는 거의 같은 실수를 저질렀었읍니다.

—1백년간의 한미관계를통해서 두나라는 서로간에 무엇을 배워야한다고 생각합니까.

▲미국의 헌법이나 정치제도가 흠이 없는 그런 완벽한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미국정치가 별로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미국사람들의 탁월한 타협의기술 때문입니다. 미국사람들은 타협의 가치를 높이평가합니다.

반면에 한국인들은 타협보다 대결에 능한것같아요. 한국인들은 한번 대결하면 타협과조화를 이루는데서투른 것같아요. 대결은 한단계씩 더한 대결로 몰아갑니다. 경직의 길을 택합니다. 한국인들은 미국인들이 타협을 통해 말없이 정치제도를 원활히 발전시켜온 기술을 배워야해요.

미국사람들은 한국인들이 목적을세워 계획을 세워 집중투입하고 열심히 일하며 단시일내에 성취해가는것을 배워야합니다. 올림픽을 서울에유치한데 성공한것은 그 한가지 예로 들수 있는 것입니다.

◇曺淳煥특파원

리셉션·기념비건립·合同예배·演奏등

16일부터 22일까지 兩國 다채로운 행사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은 레이건 미 대통령이 한미수교 1백주년을 맞아 선포한 기념사업주간이다. 이 기간중 양국에서는 갖가지 뜻깊은 행사가 벌어진다. 국내 중요행사는 다음과 같다.

▲기념 리셉션 21일 하오6시30분 世宗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다. 한미수교1백주년기념사업추진위(위원장 金溶植)주최로 열리는 이 행사에는 全斗煥 대통령내외처를 비롯, 레이건 대통령특사 렘니처장군(전미합참의장·전미8군사령관)등 35명의 특사등 국내외 인사 1천여명이 참석, 한미1백년사를 회고하고 우의를 다진다.

▲1백주년기념비기공식 22일 仁川 자유공원에서 양국인사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비 기공식이 열린다. 기념비는 높이 18m에 철골구조물의 공간면적이 1백80평이나 되는 것으로 범선모양. 외부모형은 건축가 姜錫元씨가 설계했으며 조각은 서울大미술대 崔滿麟교수가 담당한다. 건립예산은 3억원이며 금년안에 제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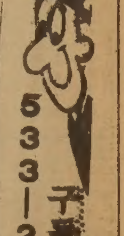
▲한미 합동예배 22일 하오3시 世宗문화회관대강당에서 한미수교 1백주년기념예배준비위원회(위원장 朴玟淳목사)주관으로 열린다. 이날 예배에서 미국의 앙스트롬목사의 특별설교가 있다.

▲외국인묘지 헌화식 한미합동예배추진위원회 주관으로 楊花津외국인묘역에 있는 앨런, 언더우드등 한미수교사주요인물의 묘 18기에 헌화한다.

▲사우드·캐롤라이나大學합창단초청공연 19일 하오7시30분 한미친선회와 기념사업위원회 공동주관으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기념만찬 기념사업추진위원회주최로 22일 하오7시30분 新羅호텔 다이너스티룸에서. 5백여명이 참석하는 이날 만찬에는 한미유대강화에 공이 큰 80여명에 대한 표창수여식도 열린다.

▲로스앤젤레스 필하머니 초청연주회 26·27양일간 世宗문화회관 대강당서.


구독신청은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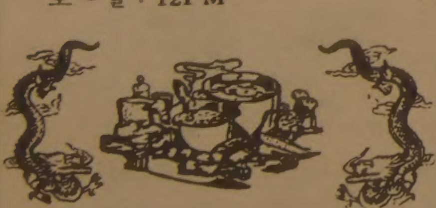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 ~ 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 코너)
977-9734

FIRST AUTO SERVICE
AUTO BODY SHOP
REPAIR

개업 3 주년기념 특별 튜납세일

교민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보답코자 개업 3 주년 특별기간을 설정해 아래와 같이 염가봉사하오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 5월1일~5월말까지
일반차량 : 8 기통… $49.95
6 기통… $42 95
4 기통… $36. 95

※오일및 휠터 교환
류브케이숀 $16. 95
물론 엔진 샴푸도 포함함.

주소 : 15 1 QUEEN ST. W.
☎ : B)532—0200, R)537—5830

특별 성회

강 사 : 나 운 몽 목사
(한국오순절성결회 감독
복음신보사 사장)
일 시 : 1982년 6 월 4 일(금)부터
3 일간, 매일저녁 7 시30분
장 소 : 오순절장로교회
(754 Indian Rd. Tor.)
연 락 처 : ☎ 762—1495
☎ 630—0735
☎ 536—9545

오순절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세택

한국일보 (특집판)

韓·美100年을 照明한다

한국의 눈 美國의 눈

세월따라 변해온 認識의 흐름…文獻으로 본다

나라와 나라의 만남과 그 관계의 계속은 거의 人間事처럼 서로를 올바르게 알기도하고 어떤때는 서로를 오해하기도 한다.

플라톤의 「공화국」 제7편은 어떤 편견, 일방적 외국관에 묶여 저지를 올바른 인식이 오도될 경우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

동굴안에 한무더기의 사슬에 묶인 인간들이 벽을 향해 앉아있다. 머리를 뒤로 돌릴수도 없고 벽만을 봐야하고 등뒤에서는 불빛이 타고있다. 불빛과 묶인 사람사이를 자유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오간다. 묶인 사람들은 벽면에 비친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그림자와 목소리만 듣고 『사람이거니』 생각한다. 『진실은 바로 그림자다』고 느끼는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만남은 이제 1백년이 됐다.

한국이 묶인사람일수도 없고 미국이 걸어다니는 사람일수도 없다.

두나라는 단순히 友誼에서 출발, 血盟으로까지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한미 1백년史중 두나라는 어떤때는 국익, 정책의 잘못등으로 진실을 외면하고 그림자만을 본적도 있다.

두나라의 만남에서 빚어지는 올바른 인식과 잘못된 인식의 차이를 그런대로 한미간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두나라의 역사가, 국제정치학자들의 책을 통해 다음 1백년을 내다보기위해 짧게 더듬어 봤다.

미국은 한국인에게 멀고도 가까운 나라임에 틀림없다.

또한 한국은 미국에 멀리 떨어져있는 그들을 세계에서 제일좋아하는 분단된 나라임에 틀림없다. 【朴涌培기자】

文一平의 「韓·美 50年史」

「美의 日帝침략沮止」 기대를 嘲笑

湖岩 文一平은 (1888~1939) 사학가인동시에 언론인. 그는 1934년 7월16일부터 조선일보 특집란에 「對美관계50년사—交涉과 起源과變遷」이란 연재물을 1백회 실었다.

물론 湖岩의 이런 연재전에 한국과 미국의 만남에 대한 서적은 金允植의 「陰晴史」「尹致昊日記」 초대 駐美公使 朴定陽의 「美行記」「美俗拾遺」등이 있었으며 「承政院日記」「日省錄」「統署日記」등에는 高宗의 미국에 대한 관심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50년사」는 일부 귀족, 지식계급의 전유물이었던 當時의 지배계층의 미국관을 日本 식민통치하에서 대중에 알렸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왜 湖岩은 이를 알리려 했을까? 그는 李鴻의 변을 뚜렷하게 말하고있지않다.

다만 책 전체의 흐름은 美國의 對外政策의 자기이익적인면을 전혀 고려에 넣지않은 韓末궁정외교의 무능을 탓하려는 것인것처럼 보인다. 그는 『한갓 그네에게 의뢰하려고만하여 美國人을 宮內部顧問으로 초빙하여 온다. 또 美國人에게 잇권을 많이양여한다. 그리하여 아무쪼록 미국인의 환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것은 다름 까닭이아니라 美國정부원조를 크게 기대하였음이다』고 밝히고 있다.

1905年 露·日전쟁후 미국이 포츠머드조약을 통해 日本이 韓庭의 外交權을 가졌음을 인정하고 맨먼저 공사관을 폐쇄한것은 『미국정부는 미약한 한국을 위하여 전 책임을 질리없다』는것을 실감못한 지

◇文一平

배층의 對美觀의 誤謬에 기인한다고 보고있다.

그는 高宗이 더어도·루스벨트 대통령에게 1882年의 韓美修好通商條約第一款 『大朝鮮國君主와 大美國 伯理璽天德(프레지던트)및 그商民은 各各 모두 永遠히 和平友好를 지키되 만약에 他國이 不當하게 또는 輕侮하는일을 일으키게되면 相對方政府는 그사건의 통지를 받는대로 원만한 타결을 가져오도록 주선을 다함으로써 그友誼를 표시하야한다』에 의거해 日本을 막아줄것을 기대한것을 조소하고있다. 韓庭은 이미 루스벨트는 親日的인 호레이스·앨런공사를 해임하면서 필리핀영유를위해 日本과 密約했을것임을 명백히한것을 미국에 대한 좋은 心像만 가진채 자기만의 위안을하고있었다.

高宗은 첫 修交 報聘使였던 閔泳翊, 초대공사였던 朴定陽등을 통해 미국은 正義와 人道를 표방하는 나라이며 타국의 영토를 탐내지 않고 政事에 관여않는나라, 특히한국에는 厚히 대접해주는 나라라는 이미지속에, 인식속에 살고 있었다. 湖岩의책을 75년校註한 西江大 李光麟교수는 『오늘 우리사회에서는 또다시 韓美관계가 심각히 논의되고있다. 물론 舊韓국시대와 오늘의 상황은 다르다. 그러나 웬일인지 구한국시대의 한미관계를 되새기는것은 나혼자만은 아닐것이다』고 책을 펴낸 이유를 밝히고 있다.

趙淳昇의 「韓國分斷史」

對韓政策 부재가 分斷초래 주장

乙巳保護條約후 한국과 미국정부의 정부간 관계는 끊겼다.

물론 선교사들과 일부조선총독부하의 美國人과 植民地人 조선인간의 국민관계는 여러방면에서 계속됐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과의 다시 만남은 군국 日本이 41년 12월 미국과 태평양전쟁을 감행 함으로해서 다시 재개되어야만 했다.

趙淳昇박사는 현재 美미주리大의 정치학교수。60년에 미시간大에서 「43~48년사이의 美 對韓政策」으로 박사학위를 얻었고 67년 「世界政治속의 韓國」(82년 서울 形成社에서 韓國分斷史를번역출판됨)이란 책을 냈다.

趙박사는 이 책에서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출발된 戰後의 韓美재회에서 한국전 발발까지를 저고있다.

한국전에 서울大 재학중 장교로 참전했던 그는 自己反省的인 湖岩의 韓美關係史의 안목과는 달리 미국의 대외정책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책을썼다.

그는 『나는 물론 한국인의 입장에서 이글을 쓴다. 나는 이글이 과거의 잘못들을 되풀이 하는것을 피하고 내가 아주 중요하다고 믿는바, 한미 양국민간의 상호이해에 기여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진지한 희망에서 이책을썼을뿐이다』고 서론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겸손과는 달리 趙박사는 한국 분단의 큰이유의 하나는 50년까지의 미국의 對韓政策의 졸속에 기인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있다.

◇趙淳昇박사

그는 프랭크린·루스벨트 대통령의 종전후 세계를연합국끼리의 집단안보로 해결하려는 개인외교와 이를 추종한 군부지도자 (마셜원수등)의 조언이 한국분단의 주요원인이며 ▲서울의 미군정 당국과 워싱턴 정책입안자들 사이의 거의 완전한 협력결여가 혼란과 불일치를 가져와 한국 통일에 장애가 되었고 ▲한국통일에 효과적 정책을 세우지 못했던것은 미국의국가이익에 한국이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한 때문이다고 분석하고있다.

미국은 43년 카이로에서 美·英·中과함께 『조선민중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선언함으로써 한국문제에 韓日合邦후 공식적으로 복귀했다.

이는 결국 한국에 통일정부를 세우겠다는 엄숙한 약속이었지만 소련의참전으로 전쟁이 너무 빨리 끝나자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못가춘채 좌절, 실책을 거듭하다가 한국방어를 위한 마지못한개입을 했다.

기본적으로 한국을 포기하고 철수하겠다는 결함있는 정책은 한국전쟁을 불러 일으켰고 그후 자유·공산세계간의 연관된 긴장들이 한국수호 결의를 굳게했다. 따라서 50~60년까지 10년간 미국의 對韓政策은 그 결의가 확고해졌고 한국을 「민주주의 전시장」으로 만들기위한 갑말도 가지게 됐다.

趙박사는 67년에 앞으로의 10년간을 전망, 미국은 한국의 통일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봤다.

그는 미국의 대한정책이 탄력성과 상상력을 갖기를 바랐다.

咸秉春의 「한국과…아시아세력균형」

서로가 必要하고 有益하며 도움

趙淳昇박사의 표현대로 50~60년의 10년이 미국對韓政策에 있어 「확고한 결의의 시대」였다면 70년들어서는 「不便의 시대」로 치달렸다.

69년 여름 닉슨대통령이 괌에서 제창한닉슨·독트린은 미국의 아시아 제국내의 내란에는 개입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不介入이 한국에는 駐韓美軍철수라는 문제로 부각되어나타났다.

미국은 70~71년사이 주한미군 1개사단을 철수시켰으며 中共과의 문호개방, 베트남에서의 패망등으로 아시아에서 철수를 꾀하려는 기미가 짙었다.

이런때 하버드대학의 법학박사인 延世大 咸秉春교수는 72년 국제문제 전문학술지 「포린·어페어즈」 11월호에 「한국과 새로와지는 아시아의 세력균형」이란 논문을 썼다.

후에 그는 駐美대사를지냈지만 많은 불편을 당하기도했다.

咸박사의 주장은 미국인보다 미국말을 잘하는 한국인 답게 설득력있는것이다. 日本人들은 한국이 그들의 심장부를 향한비수요 머리를 겨눈 피스톨이라고도한다. 그러나 中共이나 소련은 日本의 군국주의가 전아시아로 번지게하는 가교로 생각한다.

◇咸秉春박사

이런 한국이 이 3 세력권에대해 자기방어를 할수있는 국방력이 없는한 한국의 중립은 이루어질수없다. 세나라는 한국이 어느 한나라와 연합할때 다 불안하다.

결국, 한국은 세나라와 平和를 유지해야만 東아시아 전체가 평화스러워지며 이는 미국이 세나라와 각각 축을 지키는 공정한 심판관일때 가능하다.

미국이 이 역할을 露日戰爭때 포기함으로써 결국 태평양전쟁까지 몰고갔다.

미국은 太平洋 국가이며 한반도와 멀리 있는게 아니다.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하고 언제고 재군비의 가능성이 높은 日本을 생각할때 소련, 중공은 모두함께 내심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환영한다.

특히 새로이 문호를 연 중공은 한반도내에서의 미군의 철수를 日本이 다시 경제·군사적으로 한국에 발판을굳히는것을 가장 두려워할게 틀림없다.

한국은 바로 아시아평화의 안정된 쐐기이며 이점화는 미국에도 큰이익인것이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개입·주둔없이는 한국을 둘러싼 제국가들의 분쟁을 축소시킬수 없다.

咸박사는 10일 조선호텔에서 韓美1백주년 기념강연에서 이런 세력균형에기초해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필요하고 또 유익한것처럼 미국에도 한국이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고 相互國益을 주장했다.

헐버트의 「한국의 歷史」

舊韓末 관료의 부패·無能 파헤쳐

英文 「한국역사」(1905年刊)의 저자인 H·B·헐버트(1863~1949)는 한국 어느역사가 못지않게 한국全史에통달한 미국인이다.

그의 역저 「한국의 역사」는 菊版 8백、7백페이지의두권으로된큰책이다.

1886년에 조선왕국의 王立 育英公院(Royal English School)의 영어교사로 한국에와 1907년 미국으로 돌아가기까지 21년간을 한국과함께 살았으며 해방후에 다시왔다가 49년 사망, 楊花津 외국인묘지에 묻혔다.

그는 乙巳保護조약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高宗의密書를 디어도·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전했으며 헤이그 萬國平和회의의 한국대표단 고문이기도 했다.

철저한 東部신교도의 후예인 그의 한국관은해박한 한국역사에대한인식에비해 동정적이기보다엄격한것이다. 『한국인은숫적으로는 중국인들에압도당하고재주면에서는 日本人에뒤진다. 이들은 좋은상인도 아니요 잘싸우는 무사도 아니다. 그러나 기질면에서는 앵글로·색슨과 두나라 사람보다는 많이 닮았고 더불어 살기에는 가장 유쾌한 사람들이다』 그는 「한국의 沒落」이란 또다른 저서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헐버트

그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그가 느꼈던韓末의 정치계급과 그자제들의 권력아부성과 느슨한시대감각은 그를 여러번 분노케했다.

그의 「한국의 歷史」를 校註한 C·N·윔즈교수(美맨스필드州立大)는 正義를 믿고, 모든대중문제는 공개토론되어야하며 개인이나 국가문제에 있어서 진실성이 최고의 가치라고생각하는청교도미국인인23세의헐버트에겐 韓末의 政局과사회는 거역스런 것이었다고 풀이하고 있다.

그는 1895年 閔妃弑害후 한때 高宗의 침소를 권총을 차고 지켜주는호위를 한는등 친근한사이가됐다. 그러나 그는 이런친분과는 달리 ▲한국민족은 모두 평등하다. 이들이 무능한것은 관료들에대한 무조건 복종, 무지때문이다. ▲이들의해방, 독립은 모든국민의 원활한 교육에있으며 한글을 통해 西歐의 문화, 과학지식, 개인과국가개념을 가르쳐야한다.▲기독교 이념은 儒敎보다월등하며 한국사회의 자유발전을 위한 기본으로 삼아야한다. ▲日本은 開明과 近代化의 대표며 러시아는 전제, 무능의 대표다. 한국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속국에는 동종 하나의 수중에 떨어지며 日本의선택권이 높다는 신념을 가지고있었다. 그는 한국이 독립하기위한 日本의 영향속에 있는것이 모순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보호조약 나라를 잃자맨앞장서 독립을 찾는데 협력하는 그 자신으로 모순된 행동을 했다.

볼드윈의 「45년이후의韓·美관계」

美國이 한국서 저지른 잘못 指摘

프랭크·볼드윈은 워싱턴州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大의 교수. 69년 뉴욕의 콜럼비아大에서 「3·1운동—한국의 도전과 일본의 반응」으로 박사학위를 얻었다.

볼드윈은 74년 「평행선없이—1945년 이후 韓美관계」를 편저 했다.

이 책에는 7명의 신진 한국학 학자들이 「미국정책과 한국해방」「유엔과 한국」「한국내란」「미국對亞政策속의 日本과 한국」「한국에서의 資本主義」「한국농민의 상태」「한국에서의 민주주의—48~72년」등 7편의 논문과 이를 해설하는 볼드윈의 논문이 길다.

그는 이 논문에서 戰後 미국과 한국이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평행으로만달렸던 여러일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미국이 전후 통일의 가능성이 가장 짙었을때 38선을 경계로 남한에 군정을 폄으로써 한국내의 수많은 민족주의자들에게 해방군으로서 보다 점령군으로 부각되는 나쁜 이미지를 주었다.

소련의 팽창을 봉쇄정책으로 막으려는 미국의노력은 한국에서 제한전쟁을가져왔고 마침내는 4백50만명의 한국인이 사상되고부상하는 고난을 한국에 가져왔다. 미군은 3만3천6백29명이 죽고 15만명이 부상했다.

그후 20수년이 지났지만 한국의 통일은 더욱 먼거리에 있다.

휴전후 미국은 72년까지 한국내 군원포함 55억달러를 원조했다. 그러나 45~52년까지의 1백17억달러에 비해 적은 액수다.

미국의 「자유수호」라는 대외정책이 한국에 준것은 자유세계의 일원이 되게한것과 李承晩정권의 전제적체제를 굳히게했다.

70년 주한 미대사관 엄·포터는 上院 대외위원회에서 『한국에서는 서서히 실질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지고있다. 의회、대통령선거, 헌법, 보통선거등의 공식적 민주제도는 엄존해있다. 현재 이런제도는 진보해 가고있다』고 증언했다.

볼드윈은 그러나 포터대사가 한국의 정보기관의강화、言論의 탄압등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고지적하고있다.

그는 미국은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면서 한국군을 64~73년까지 연인원 30여만명을 파월케하고 많은군원을 한것처럼 선전하지만 미군의 사용비용에는 훨씬 밑도는 봉급을 지급하고있다고 적고있다.

그래서 한국민에게 미국이 준것은 무엇인가?

미국은 한국에 국무성이나 국방성의 이해를 떠나 민주주의를심어주었는가?

그는 45년이후의 韓美관계는 평행선없는 相互親善의 관계와는 다른것이었다고 결론 짓고있다.

리피버의 「카터가 서울을 망치고있다」

일률적 적용된 人權정책을 批判

80년 6월18일자 뉴욕타임즈 여론 페이지는 「倫理및 공중 정책 센터」이사장인 「어니스트·리피버」의 「카터가 서울을 망치고있다」는 투고를 톱으로 싣고있다.

이때는 『코리아!』하면 서울의 대학생데모, 光州사태등 핏빛질은 광경이 미국신문및 TV를 요란하게 장식할때다.

미국의 언론이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는것에 대해 의구와 비관의 눈을 가질때다.

이때 많은 사람에게 생소한 리피버는 「카터의 인권정책은 한국의 불평분자들의 행동을 民主主義와 人權을 위한것으로 보고있으며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 나른한 이상주의、권력에 굶주린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후에 레이건의 새대통령취임과함께 리피버는 국무성 인권담당책임자로 지명되어 상원에서 거부되는등 소동을 폈지만 이때는 그렇게 널리알려지지않은 연구단체의 장이었다.

모든사람이 뜨겁게 비난을 하고 어제의 친구를 차갑게 쳐다보고있을때 그는 과감히 카터행정부의 對韓정책의 이상적경향을 비판한것이다.

이때 많은 在美한국인을은 역시 『미국은 미국이다. 때리기도 하고 추키기도하는 자유가있는 나다』를 실감했다.

◇리피버

그는 만약 카터의 이런 잘못된 한국사태에대한 인식이 미국의 새對韓정책이 된다면 카터행정부는 또하나의 비극을 낳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10년전 베트남、2년전 이란、니카라과에서처럼 한국에는 강력한중앙집권정부가 필요하다。베트남등 세나라에서 워싱턴이 펼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인권정책의 압력을가한 결과는 이런나라안의반대자에게 외국세력의 지지와 『민족해방』이란 명목을 주었을뿐이다. 소련이 원조한 하노이정권은 베트남을、카스트로가 지원한 산디니스타는 니카라과를、호메이니는 이란을 해방시켰다. 그러나 이런나라에서 인권은 오히려 후퇴했다. 미국은 友邦을 차례로 잃었다. 오도된 미국의 도덕주의는 과국만을 주었다』고 강변했다.

그는 『만약 카터가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면 미국은 日本의 방위와 西太平洋방어에 필요한 경제적 우방을 잃게될것이다』고 경고했다.

카터는 역사에대한무지、낭만적인 이상주의 때문에 뒤죽박죽정책을 편다고 분석했다.

그는 『윤리적이거나 실제적으로 정의할때 정부의 첫째 과제는 통치하는것、두번째는 공정하게 통치하는것、세번째는 민주적으로 통치하는 것이다. 서울의 지배자가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행정하기 어려울때 민주적으로 지배하라고 주장하는것은 불가능을 요구하는것이요、파멸을 초래하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11>

朴婉緖 作 金光培 畵

明暗 ㊺

[illegible] 인재가 [illegible] 다시 [illegible]

『어떻거면 되니? 응. 내가 어떻거면 네 괴로움을 덜고 우리가 옛날같이 되겠니?』

인재는 수지의 눈빛이 안스러워 가슴이 할다. 이록이 번다한 다방속만 아니라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싶었다. 그는 애인의 눈물의 오묘한 맛을 이미 알고있었다.

수지는 수지대로 그녀의 내부에서 느닷없이 발동한 [illegible] 덕을 즐기고 있었다. 그건 번덕이 아니라 한가닥의 미련인지도 몰랐고, 어쩌면 그녀도 모르게 숨어있던 요기(妖氣)인지도 몰랐다.

『나에게 용기를 주어. 난 된 느낌이 들더군. 그땐 참 비참했어』

『우리 오빤 좀 그래. 오빤 나한테맡기고 자긴 어떤일이 있던지 날 믿고만 있으면 돼. 내가 흔들릴 때 자기가 내 뒤에 있다고 생각할수있다는 것만도 큰 용기가 될거야. 너무 쉽게날 포기하지마. 내가 얼마나 엄청난 유혹과 싸워야된다는걸 자기가 조금이라도 이해해준다면 설사 내가배신을 한다고해도 나를 미워할수만은 없을 걸』

『도대체 그 놈팽이가 어느만큼 잘났고 돈이 얼마나 있게 너한테 그렇게 엄청난 유혹이 된다는 거니?』

인재는 그 놈팽이가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주먹을 쥐고 몸을 떨었다. 그러나 그 뒤를 번개처럼 지나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라말야. 자기마저 날버리면 나 날사이야. 날대로 되고말거야』

『시마. 어떻거면 되니? 하라는대로 할께. 같이 도망갈 싶까?』

『우리 누가 죄 졌어? 도망을 치게?』

『그래 우린 아무 잘못도 없어. 않았어. 내가 느이 오빠를 만나보고 담담히 구혼을 할께. 그러면 됐지?』

인재가 갑자기 밝은 얼굴로 칭찬받고 싶은 아이처럼 가슴을 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단순하고 복잡하고 나중 문제고 나 어떡하든 느이 집에 내 존재를 나타내고 싶어』

『그건 그렇게 급하지않아. 요새 가뜩이나 오빠하고 안좋은 사이인데 사기가 나나나봐. 크게 욕 봤어야』

『욕도 벌써 봤만큼 봤어. 전화로 느이 오빠가 나한테 뭐랬는지 알아? 날쎄 외간남자래. 네가 어디로 시집가버리고 내가 긴부가

갈 어떤 남자도 혼다 하고있 남지도 모르는 나 처지에 어느늘에 그의 경계심은 보이지않는 놈팽이 모다를 수지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야, 그쪽이 가진걸로 보나 사회적 지위로 보나 사기하곤 댈게 아니게 빼놓친건 사실이지만 내가심마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죽도록 괴로와했어? 오빠 급쎄 내가 자기같은 빈털터리하고 결혼하면 나한테 주기로한 재산까지 한푼도 안주겠다는 거야. 오빠가 재산상속을 해서 그 오빠 명의로 돼있지만 나중의 상당한 부분이 나한테 떼어주기로 돼있거든. 부모가 안계시다는 내 약점을 오빠 재산으로 커버해주기로 처음부터 마음먹고 있었는데 빈털터리하고 결혼하면 부모없는데다 전혀 뭐 있나는거야. 시지리 고생하는 봐주겠다고 악담까지 하니 내마음이 어떻겠어?』

수지가 괴로와했다는것외 윤곽이 드러날수록 인재의마음은 자꾸만 안으로 오무라들고 있었다.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축

일간지 발행 1주년기념

◎ 교포사회의 등불!

◎ 앞서가는 한국일보!

◎ 더욱 발전 있기를…

영구구독자 최 영 식

張여인 첫남편 拘束영장

共榮약점 探知… 財産은닉
접촉잦던 승려 名單 파악
大檢

대검중앙수사부는 14일 張玲子씨의 첫남편 金守哲씨(53·大成금속사장)를 사기등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했다。검찰은 또 李·張씨부부의 은닉재산수사를위해 평소 張씨와 접촉이 잦았던 승려들의 명단을파악、이들에대한 수사도 함께 펴기로했다。검찰에 의하면 金씨는 전 共榮토건사장 邊康雨씨와 서울大 경영자과정 수료동기생으로 처음 張씨가 共榮토건과 거래를 시작할때 알선을 했으며 그뒤 共榮의 자금사정등 약점을탐지、張씨에게 알려줘 張씨가 실채무액보다 훨씬많은견질어음을 받아내도록했다는것。

金守哲씨 下手人에 공중電話지시

金씨는 또 張씨와 합의이혼한 77년이후부터 최근까지 계속 접촉을 가져왔는데 검찰은 張씨의재산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77억원중 상당액을 金씨가 빼돌려 은닉시켜준게 아닌가 보고있다。

한편 검찰이 승려들에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기로한것은 張씨가 사채업계의 거물로등장하면서 불교로개종한뒤 최근에는 지리산부근에 대규모 절을짓기위해 모승려를 통해 몇십억원의 자금을풀어 임산을 구입했다는 사실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李·張씨부부의 행적으로보아 국내외의 재산도피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것이 아닌가 보고있다。

이들부부는 정식결혼한 2월께부터 하수인들과 직접만나지도 않았으며 이들에대한 전화지시도 집전화대신 공중전화를 이용해왔다는것이다。

李·張씨부부는 매일 아침 9~10시께 일부러 허름한옷차림을 하고 집부근의 공중전화를 이용、하수인들에게 은밀히 거래지시를했으며 하수인들의 거래약속장소에 반드시 나타나 거래현장을 몰래 지켜보기도 했다는것。

검찰은 또 李·張씨부부의 해외및 국내은닉재산을 찾아내기위해 張씨의 오빠(49)등 친척과 사업관계로 자주 만났던 사채업자등을 대상으로한 수사와함께 張씨가 메모지로 사용했던 캘린더를압수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지금까지 알려진것보다 더많은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시켰을 것으로보고 張씨의 오빠를찾고있다。

張씨의 오빠는 뚜렷한 이유없이 지난1월부터 4차례나 해외에 나갔는데 오빠를 통해 돈이 해외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바로 이사람　검찰에 소환된 張玲子씨의 첫남편 金守哲씨。사기등 혐의로 강세수사를 받게될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문 굳게잠겨 金守哲씨 汝矣島집

張여인의 첫남편 金守哲씨(52)가 살고있는 서울 汝矣島 화랑아파트1棟 601호에는 14일하오 문이 굳게 잠겨져 있었다。이날 金씨집앞에는 그의 승용차(롤보서…)가 커버가 씌워진채 세워져있었고 친척이라는 30대여인이 『金씨는 지난10일 여행을 한다며 나간뒤 소식이 없다』고 말했다。이여인은 14일 하오1시께 검찰의 수사관 3명이 3시간가량 집안을 수색했다고전했다。

印鑑증명 사고방지 發給할때 拇印받게 國務會議

국무회의는 14일 印鑑증명과 관련된 사고방지를위해 인감증명을 발급받을때는 인감증명발급대장에 본인이나 대리인이거나를 막론하고 拇印을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시행령개정령을 의결했다。

張여인 1년간海外여행 6번
夫婦가 번갈아… 2번은 同行

張玲子씨는 지난해 6월부터 검찰에 구속되기전까지 1년여동안에 6차례나 해외여행을 했으며 이중 두차례는 남편 李哲熙씨와 동행했음이 밝혀졌다。

張여인의 첫출국은 지난해 6월1일부터 6일까지로 日本과 美國을 다녀왔고 10여일후인 6월18일 남편 李씨와함께 다시 출국했다가 28일 귀국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부는 이어 7월14일 다시 출국한후 8월5일 귀국했으며 9월30일에는 남편李씨혼자 출국했다가 29일 귀국했다。張씨는 또 9월30일부터 10월11일까지 혼자 여행하는등 번갈아 해외로 부부가 출국한 사실도 밝혀졌다。

張씨는 그후 5개월동안 잠잠하다가 올들어 3월9일부터 26일까지 또 4월10일부터 24일까지 두차례 혼자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張씨는 지난해5월10일 유효기간 1년의 일반여권을갖고있다가 올해3월4일 유효기간5년의 상용여권으로 경신했다。

李·張부부의 해외여행은 주로 日本 美國 하와이였고 3차출국때인 지난해 7월14일부터 8월5일까지 23일간은 부부동행으로 日本 美國과 유럽을 여행했다。

張씨가 해외로 나갈때는 金浦공항에 검은양복에 大和배지를 단 건장한 체격의 청년들이 나와 대기했으며 주로 KAL 귀빈실(1등승객)을 이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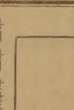
張씨가 마지막으로 日本으로나가던 지난4월8일엔 金浦세관에 3캐럿짜리 다이어반지1개、진주반지1개、진주를박은 다이어 귀걸이1세트를 신고했었다。

깡장이 全盛時代
明洞 私債 브로커 차모씨
"共서방 서른여덟살·라면 서른두살"

상오10시께 서울中區明洞의 10평남짓한 사무실。전화벨이 요란스럽게 울리자 수화기를 낚아챈 원로 「깡장인」(은어로 사채브로커) 朴모씨(52)는 『오늘은 共서방 서른여덟살、라면 서른 두살입니다』고 외친다。사채업계에서만 통하는 은어이기때문에 일반사람들에게는 귀에설수 밖에 없다。

이말의 뜻은 『共榮토건의 이자가 월3푼8리、라이프주택이 3푼2리』라는 뜻이다。

朴씨 사무실의 이같은 대화는「마담張」(張玲子여인)이 검찰에 불려가던 지난달29일까지만해도 전화통에 불이 날만큼 오갔던내용이다。



그럴수밖에 없었던것이 연초까지만해도 사채시장에 나온 다른 기업의 「백판」(융통어음) 시세가 대략 「22세」(월2푼2리)에서「28세」였는데 난데 없이 「共서방」과 「라면」이 쏟아지면서 몇달사이에 「30대」에서 최고 「40대」사이를 오르락 내리락했기 때문。「그야말로 깡장이들이 「몸좋은때」를 만난것。

서울明洞일대에서 20여년의 경력을 쌓아 깡장이들세계에서는「朴사장」으로 통하는 朴씨는 당시의 사채업계를 이렇게 말했다。『매일아침 10시께면 「마담張」의 대리인인 金모씨(H증권고문·전S증권지점장)와 金모씨(S토건 경리부장)등이 흰봉투에 「3천원짜리」(만단위는 생략·즉3천만원짜리) 共서방30~40장씩을갖고와깡장이들에게 「풀어먹였다」』ー朴씨에의하면 당시의 明洞은「共서방과 라면」세상이었다。

심지어 길바닥에 「채권매입」이라고 쓴 간판만 놓고있는 깡장이도、라이터노점상을 겸한는 가난뱅이깡장이도 뒤질세라 손을 댔다。

깡장이들이 「3천원짜리」共서방을 중개해주고 받는 수수료는 고작 2만1천원。이에비해 하수인들은 1천만원의 자금조성에 15만원을받았다니 하루 조성액을 30억원으로 따지면 4천5백만원은 받았을 것이라는게 朴씨 추산이다。

이렇게 몇몇 사채업자들이 재미를 보는사이에 사채시장은 얼어붙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상식을 벗어난 양상이었으나 「배경」이 워낙 그럴듯해 믿을수밖에 없었지요』ー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결코 실수가 없었던 사채박사 朴씨가 자책하듯 뒤늦게 내뱉는 탄식이다。

朴씨는 지금 심정이 괴롭다。자기만 믿고 「3천원」짜리 共서방2장을산 전직은행원과「2천원」짜리 2장을 산 가정주부가 있는데 모두가 날리게 됐기때문이라는것。

朴씨는『이제 깡장이도 그만둬야겠읍니다。그러나 사태는 빨리수습돼야합니다』ー그말만큼은 「큰손」에우는 깡장이의 설움만은 아닌듯했다。【姜東泰기자】

「국민의 疑惑」이 잘못인가
마이크잡은 議員마다 怒한 목소리…
社會部기자 國會財務委 방청記

『국민은 납득치 못한다』『국민의 단죄를 각오하라』『국민이 어떻게 일할의욕이 날것인가』『국민의 의혹은 잘못된 것인가』…국회의사당4층 동편 재무위회의실。13일 낮밤을 꼬박새우고14일 이틀째 마이크를 잡은 의원들은 저마다 「국민」을 목청껏 외치고 있었다。

회의장 칠판에는 「금융에 관한 현안문제보고」라는 차분한 의제가 쓰여있었으나 李哲熙·張玲子여인사건을 질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로 장내는 터져나갈듯했다。

이날 오전 회의는 재무위가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전 朝興은행장·商業은행장이 상오11시25분께 회의장에 들어서면서 열기를 띠기 시작했다。

은행장들은 심경이 어떠냐고 기자들이 묻자 『그저그렇다』고 조그맣게 답변하고어디서오는 길이냐고 재차묻자 『집에서 온다』고대답했다。두눈이 충혈되고 입술이갈라지는등 크게 혼나고있는게 역력했다。

의원들이 두해임 은행장의 형사처벌을 소리높이 외칠때는 시종 눈을감고 고개를 떨군채 미동도 하지안했다。

재무부고위관리들은 조금 달랐다。인책공세가 펼쳐져도 귓속말을 주고받는등 대조를 이루었다。

하오회의에는 羅재무가 참석하지않았다。그래서 개회벽두부터 야당의원들과 朴泰俊위원장간에 가벼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장관 안 나오는 이유가 어디있나』는 야당의원들에게 위원장은 『중대한일이있어 날 가피하게 2시간동안만 자리를 비우겠다는 사전양해가있었다』고달래자 야당의원들은 『이자리에 오는것보다 더중요한일이 도대체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의원들은 목소리는 컸지만 아는게없어 큰고통을 받고있었다。「한간에소문」「증권가에 소문」「신문보도」등을 들이대는게 고작이었다。

그리고 질문의끝은 한결같이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장관은 사퇴할 용의가 없는가』『장관은 대책을 밝혀라』는 말로 끝냈다。모두가 성난 눈초리로 국무위원석을 노려보았으나 그때 장관은 거기없었다。

한의원은 마이크가 필요없을 정도의 큰목소리로『내가 왜 정치를 시작했는가。나는 과연 우려하는 사람인가』하는듯 거듭 물음을 던졌다。

民正黨 의원들은 고함을지르지는 않았지만 발언내용은 수준급。야당의원석에서조차 『잘했다』는 고함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날 의원들은 발언요지를 사전에 메모해가지고 나왔는데 수백억이넘는 숫자가 나올때마다 길다란 숫자의 단위를 밝히기위해 잠시동안씩 숨을멈추고 있었다。【金薰기자】

明洞 三寶증권등서 對策요구
1백여 성난投資者 株價폭락 抗議소동

14일하오1시30분께 서울中區明洞1가의 三寶증권、한신증권、대신증권등 3개회사에 1백여명의 증권투자가들이 몰려 張여인 어음사건파동으로 주가시세가 폭락하고 있는데 대해 당국이 대책을 세워줄것을 요구하며 1시간정도 항의소동을 벌였다。

이들 투자가들은 선의의 증권투자가들이 큰손해를 보고있다며 증권회사는 손실거래(손절매)를 유보시켜 주가및 거래를 동결시켜줄것등을 요구했다。

이들중 10여명은 明洞1街53의1 한신증권 4층매장에서 집기를 부수는등 난동을 부리다 20분만에 자진해산했다。

張玲子부부 濟州·海雲臺에 60억짜리牧場·2억臺부동산

【釜山】검찰이 李哲熙·張玲子부부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海雲臺일대에 싯가 2억원대를 넘는 이들 부부의 부동산이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14일 부산海雲臺구청에 따르면 海雲臺區中洞1493의11등 2필지 3백55·5평이 李씨명의로、中洞1493의14등 5필지 8백16·3평이 張씨 명의로 각각 등기돼있다는것。

李씨부부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海雲臺중심지에 있는 모두 7필지 1천1백71·8평(싯가 2억3천여만원)을 사들인것으로 나타났다。【釜】

【濟州】李哲熙씨는 지난달 19일 濟州에서 3번째로큰기업목장으로 무려 60억원을호가하는 2백45만평규모의 城邑목장(南濟州郡表善面城邑里2494)대표이사로 법인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목장도 사실상 李씨에게 넘어간것으로 알려졌다。

14일 南濟州郡에따르면 表善面城邑里2494등 1천5백여필지 2백45만7천평(8백19㏊)에 이르는 城邑목장은 지난74년 서울中區南大門路4街17의42 주식회사 城邑목장(대표 金相浩)이 직접 운영해오다가 지난4월30일 城邑목장측의 주주총회결의에 따라 회사대표를 李哲熙씨로 바꾸고 회사주소지도 서울中區小公洞1로 변경、이를 南濟州郡에 통보해왔다는것。【釜】

술마시던 士兵 男女2명 射殺
1명은 貫通傷

【瑞山】13일하오7시반께 충남瑞山郡安眠邑승원리 방포식당(주인 김용재·43)에서 술을마시던 육군 모부대소속 최명진 상병(24)이 M16소총으로 함께 있던 이웃다방 종업원 이영자양(26)과 식당주인김씨、주민 이광수씨(37)등 3명을쏘아 이양과 김씨는 숨지고 이씨는 좌측다리에 관통상을 입었다。

최상병은 이날 하오3시반부터 방포식당에서 수군다방 종업원 이양을 불러놓고 술을마시다 하오7시반께 이양이 『시간이 너무 늦었다』며 다방으로 돌아가려하자 갑자기 총을 쏘았다는것。

사고를낸 최상병은 관경찰에 붙잡혀 군수사기관에 넘겨졌다。【瑞】

證人 8명증언들어 鄭載巴군 5회公判

상경여대생 朴尙恩양 피살사건의 鄭載巴피고인(22)에 대한 5회공판이 14일상오10시 서울지검東部지원에서 梁基俊부장판사심리로 속개됐다。이날공판에는 검찰측과 변호인측이 신청한 8명의증인이나와 증언했는데 대검찰청중앙수사부 거짓말탐지기조사관 鄭圖淳씨(29)는 지난1월6일살해된 尙恩양이 사망당시 입고있던 T셔츠에대한 거짓말탐지기조사결과 尙恩양이 입었던 T셔츠부분에서 가슴이 떨린것으로 나타났고 尙恩양 오빠집전화번호부에 대해서도 긴장의 절정을 보여 거짓말을 한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했다。

찻길 孫子구하다 할머니 轢死

11일 상오10시께 서울東大門區新設洞92의40 安岩橋위에서 韓禮順씨(68·여·서울東大門區龍頭洞201)가 차도로 뛰어드는 손자 金成雲군(4)을 구하려다 수도교통소속 서울5사 9776호 시내버스(운전사 李鉉圭·39)에 치여 숨졌다。

◇숨진 韓禮順씨

韓씨는 이날 成雲군을데리고 부근병원에 다녀오던길이었는데 사고장소에서 成雲군이 갑자기 차도가운데로 뛰어들자 뒤따라가 구하려다 변을당했는데 成雲군은 무사했다。

清州시내 3개大學 示威기도6명 拘束

【清州】清州서부경찰서는 14일 清州시내 3개대학 집단시위기도사건과 관련、李畯熙군(23·忠南大법대2년중퇴)등 6명을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들 학생들은 지난10일 오6시15분께 李군이 경영하는 시내 대학서점에 모여 清州大·忠北大·清州師大등 3개대학이 집단시위를 벌이도록 선동하는 불온유인물을 작성 나누어 가진 혐의다。

◇구속자명단
李畯熙(23·忠南大법대2년)車在根(20·清州師大역사과3년)李善姬(女·23·京畿도江華中高교사)崔宰圭(21·外大중어과1년중퇴)洪候晳(23·忠北大대학원생)鄭英蘭(女·23·忠北大원예과4년)

한국인技術者2명 被拉
지난달 23일 이라크 쿠르드族게릴라에

【런던13日=聯合】正友개발소속 文京熙씨(43·운전사·仁川市東區松林4洞8)와 李明鎬씨(32·정비공·경기도 華城郡烏山邑烏山4里69의2)등 한국인 기술자2명이 지난달23일 이라크북부 다우크자비타도로상에서 쿠르드게릴라들에게 납치됐다。

쿠르드민주당(KDP)이 런던에서발표한 성명은 한국인들이 납치된이유와 석방조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않았다。

◇文京熙씨

◇李明鎬씨

한편 正友개발도 이들이 지난달 23일 하오 2시부터 7시사이에 이라크 북부지방 다우크 병원공사 현장에서 5㎞가량 떨어진 곳에 물을 실러가다 실종됐다는 전문이 왔다고 14일 밝혔다。

회사측은 게릴라들이 몸값을 요구할경우 현지 경찰과 군을 통해 흥정에 응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두 기술자의 피납과 관련 正友개발은 8일 해외담당 사장 金鍾模씨(53)를 현지에 급파했다。

이라크 모술에서 90㎞ 떨어진 다우크 마을 병원공사는 正友개발이 이라크에서 수주한 3개병원중하나로 3천5백만달러에 계약 작년12월부터 인부2백명이 작업중인데 오는 83년8월 준공 예정이다。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 W　B536-1692　H245-3539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 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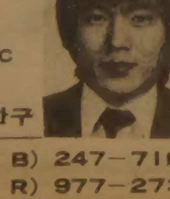
내고향통닭집
냉면 칼국수 전문
658½ BLOOR ST. W.
☎ : 537-0432

Maximode
○ 숙녀를 위한 수입품 블라우스, 이태리 쌔슨 옷을 전시한 현대식 쇼우룸.
○ 가격이 저렴합니다.
★ OPEN : MON(월)~SAT(토)
9 a.m.~5 p.m (오전 9 시~오후 5 시)
147 Spadina Ave. #200(2층)
☎ : 596-1413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영 호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개업 특별봉사
숙녀복(Ladys Wear) 전문
공장생산가격으로 직매합니다.
→상세한 바느질과 고급제품
월~금 : 10시~6시, 토~일 : 10시~4시30분
BOSCHE CO.
292 Parliament St.(at Dundas)
☎ : 362-2300 MR. 리

JAGUAR 종합보험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자동차보험.
＊비지네스 보험.
＊집보험.
＊생명, 상해보험, 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

한국인 不屈의 鬪魂 소개

日NHK特輯방영,「서울하늘에 白球날았다」

◇10년전 어머니 朴順分여사와 누님 張貞子씨(右端) 당시 매니저 黑田淸씨(中央)등과 모국을 방문했던 張勳선수(左에서 2번째).

【東京8日=宋孝彬특파원】우리민족의 얼이담긴 옷이 『이 치마 저고리는 절대로 벗을수없다. 이 한복은 일본사당앞에 열등의식을 갖지말고 떳떳이 살자』 민족차별에 견디지못한 어린張勳이 어머니 朴順分여사에게 한복을 벗을것을 권하자 어머니朴여사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인으로 일본야구계의 영웅이된 張勳에게 한 어머니의 이말은 민족의자부심과 긍지를심어주었다.

NHK는 7일밤 시청률이 가장높은 밤8시 『서울하늘에 백구가 날았다』는 제목으로 한국프로 야구의 개막에 따른 日本야구계의 동향과 張勳의 스토리를약 50분동안 특집방영, 큰 반응을 일으켰다.

이 특집보도는 한국이 36년만에 야간통행금지를 해제하고 중·고교생 두발자유화등 활기차고 밝은 새 모습을 보여주고있으며 이번에는 프로야구의 개막으로 청소년들에게 새꿈을심어주었다고 해설하고 5색 찬란한 프로야구 개막식광경을 자세히 비춰주었다.

"한복은 韓國 民族의 얼" 張勳 一代記 함께 放映

"日本人의 차별·편견 비판 할때왔다"

이와함께 편견과 민족차별속에서 굳건한의지와 불굴의 투혼으로 거인(자이언츠)팀의 최연소 4번타자, 3천안타등 일본야구사상 불멸의 기록을 세운 張勳선수 일대기를 방영하고 日本의 민족차별과 편견은 사회보장문제와 함께 프로야구계에서도 엄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어머니 張여사는 『이한복은 우리민족의 얼이 담긴 옷이다. 이 한복을 야만적이라고 놀리는 일본아이들이 야만인이다. 일본사람한테 열등의식을 갖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여 무엇이든 세계제1인자가 되라』고 張선수를 나무랐다.

이 프로의 張勳스토리는 경남 昌寧郡 大合面에서 1940년 현해탄을건너 日本에 건너온후 아버지를병으로 여의고 어머니 朴順分여사가 張勳형제를 기르는데서부터 시작하고있다.

日本상인이 치마저고리를 입은 朴여사에게 『한국인에게는 곱창을 팔수없다. 곱창을 사려면 치마를 벗고오라』고 朴여사를 때 렸다. 어머니의 이한마디는 張勳이 프로야구계에 들어가 자이언츠의 4번타자가 된 뒤 76년 그가 성장한 히로시마(廣島)에서 경기를 했을때 『조센진 물러가라』 야유를 받고도 조금도 의기를 잃지않고 흔들림을 날 릴수 있었다.

이와같은 민족적차별속에서 日本프로야구계에는 40명이상의 재일동포가 활약하고 있으며 한국프로야구의 개막과 더불어 재일동포선수들이 서울신출을

"이제는 在日한국 野球선수에 긍지심어줘"

꿈꾸고 있다.

日本고교야구선발 대회에서 2년전 강타자로 이름을 날렸던 黃行觀은 日本의 민족적편견에 못이겨 모국의 말도 모른채 高麗大에 입학, 야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5년전 역시 이대회에서 강타자로 이름을 날렸던 黃新大선수는 국적문제로 실업야구에 진출하지못해 혼자서 야구수업을 쌓고 있다.

한국일보에서 주최하는 鳳凰대기쟁탈고교야구대회에 참석시키기위해 재일동포야구선수들을 뒷바라지해온 曺在憲씨는 『처음에는 친구나 여자친구에게 한국인이라는게 밝혀질까 두려워 鳳凰대기에 출전하기를 꺼리는 학생이 많았으나 지금은 모두 기쁘게 서울출전에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曺씨는 『조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기위해 모두 재일동포 야구선수들이 긍지를갖춘 鳳凰대기대회에 참석을 원하고있다』면서 모국의 발전만이 재일동포의 열등의식을 씻어줄수 있다고 설명했다.

韓·日여도 오늘 開幕

제17회 한일 친선 여도대회가 15일 서울체육고에서 열린다.

이번대회는 52kg級부터 1백10kg級까지 10체급에 걸쳐 벌어진다.

◇한국선수단

▲단장 金昌默▲감독 高永昌▲코치 李春植 金準性▲선수=李勇漢(52kg·선창그룹) 李明洙(56kg·인하대) 李龍求(60kg·조폐공) 朴春宗(75kg·조폐공) 李相善(67kg·5kg) 申東澈(82·5kg·한체대) 金喆鉉(90kg·고려대) 李光鉉(90kg·대한준설) 文炳榮(100kg·현대건설) 安準爵(110kg·전식품)

李承勳, 핀토르 타이틀挑戰

내달4일 LA서

WBC 밴텀級

◇6월4일 美國로스앤젤레스에서 프로복싱WBC 밴텀급챔피언 멕시코의 루페·핀토르와 타이틀매치를갖는 밴텀급1위 한국의 李承勳。

프로복싱 WBC(세계권투평의회) 밴텀급1위 李承勳은 오는 6월4일 하오1시반(한국시간) 美國로스앤젤레스에서 독급챔피언 루페·핀토르(멕시코)와 타이틀매치를 벌인다. 李는 오는18일 현지로 떠날 예정이다.

李承勳은 지난80년1월 WBC신설 슈퍼플라이급 챔피언결정전에서 라파엘·오로노(베네수엘라)에게 판정패, 이번이 두번째 세계도전이다.

太平洋·鮮京 치열한得點경쟁…觀衆들 매료

국내선 라이벌… 朴贊淑·朴鎭淑

東京아시아 여자농구 선수권대회(ABC)의 최우수선수 朴贊淑(1m90)과 對中共전서 결승골을 넣었던 朴鎭淑(1m77)이 光州실내체육관서 치열한 득점경쟁을벌여관중을매료시켰다.

여일반 B조 경기에서 太平洋化學의 주전센터인 朴贊淑은 골밑슛으로, 鮮京의 수비를 리드하는 朴鎭淑은 중장거리슛으로 팽팽히 맞섰다.

太平洋化學은 朴鎭淑을 마크하기위해 수비력이 뛰어난 洪英順과 朴美羅를 교대로내보냈으나 朴은 30점이나 올렸다.

鮮京은 필사적으로 朴贊淑을 마크했으나 朴贊淑은 朴鎭淑보다 2점많은 32득점을 올렸다. 【光州=閔炳宅기자】

이날 朴鎭淑은 두번의 자유투를 포함, 모두 21개의 슛을쏘아 15개를 성공시켜 70%의 높은 성공률을 자랑했다.

朴贊淑의 골밑활약과 노련한 개인기는 단연 돋보였다.

NHK컵 첫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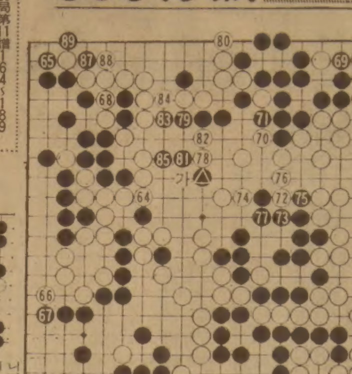
한국 女배구 쿠바에 完敗

한국여자배구대표팀은 14일 日本 오오사카서열린NHK컵쟁탈국제배구대회 첫경기에서 서브리시브의 불안과 경기경험부족으로 쿠바에 3—0으로 완패했다.

한국은지난해11월16일오사까서 벌어진 월드컵대회서는 쿠바에 제1·2세트를 잃은뒤 내리 3세트를 따내 역전승했었다.

◇첫날전적

쿠바 3 (15 15 15 / 9 12 12) 0 한국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20局第11譜 164~189 (각5시간·덤5집반)

白(7段) 河 燦 錫 〈3勝2敗〉

黑(6段) 徐 能 旭 〈2勝3敗〉

우상귀 白집을 깃밟은 河7단은 벌써 승리를 확인하고 느긋하게 마무리 지어갈 요량이고 徐6단은 말할것도 없이 초긴장이다.

다만 초조한마음을 달래며, 끝내기로 추격할 심사임은 분명해 보인다.

좌상귀를 黑65로막은수가 굉장히 컸지만 白도 좌변을 66에모하여 피장파장. 黑67이 불가피할때 河7단은 『이거, 잘아둘차례지?』하고 白68。 실속을 따진다면 9집에해당하는 두터운 끝내기로 河7단다운 수법이다.

白70이하 78로서 ▲표1점을 끊어잡으려하자 黑은79이하 85까지, 필연적진행이며 상호간 고단자의 면목이

최선의 끝내기수법

리에 빠는 참고도의 ◎표는당장 黑1의 강수를 당한다. 白2때 黑3이좋은 수순。이하 黑7까지 선수로 넘어가면 白이 심한손해를 입게된다.

또 黑85다음 당초계산대로 白'가'에 끊어 ▲표를 잡아보았자 별게아니다。그래서 우변을 白86으로 건너간 것이다。그러나 黑도 마침내 좌상귀에서 87 89로 白1점을 끊어잡아 역시 피장파장이다.

여기까지 서로들 최선을 다하는 끝내기가 분출만점인데 黑은 여전히白을 따라잡지 못하고있다. 【一凡】

니타나보이는 이정밀한 마무리수법이다. 白80이침수순중착했다。이수로선 불리81자

가장많은 지역에서 가장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流星의 賊 〈383〉

李炳注 作 李友範 畵

勇名이 天下에 떨치다 ①

홍계남의 전법을 소상하게 살펴보면 실로 근대적이고 합리적이어서 현재에도 그냥 그대로 통용될것 같다.

계남의 당면 목적은 수원성의 탈환이었다. 그런데 계남의 병력은 5백인데 적의 병력은 그 10배쯤으로 추산되었다. 그런데다 적은 병기(兵器)가 압도적으로 우수했다.

그래도 조인식, 신불동은 적과의 싸움에 연전연승했다는 자신에 넘쳐 있기에 수원성을 탈환하는 작전을 개시하자고 서둘렀는데 계남은

『일당백(一當百)의 군사로서 십당일(十當一)하면 필승이오, 일당일(一當一)이면 가승(可勝)인데 일당십(一當十)이면 교술(巧術)이 있어야만 능히 승산이 있다』

고 하여 정전을 피하고 유격전을 전개했다. 그렇게 하여 서서히 적의 세를 소모시키고 아울러 사기를 꺾어 호기를 얻어 일거에 결판을 지으려는 작전이었다.

그 작전에 따라 계남은 양성, 안성, 용인, 진위, 직산, 수원, 남양에 걸쳐 신출귀몰하여 적을 무찌르고 있었는데 당시 수원성내의 적병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부천에서 패배한 이래 그들은 홍계남이란 이름만 들어도 간담이 서늘했던 것이다. 계남이 얘기한대로 유격전에서 성과를 올리며 날을 끌고 있으면 수원성내의 적병들은 자괴(自壞)할 밖에 없었다.

당시 수원성에 있던 부장 구도마좌(九島麻左)가 고향에 보낸 편지가 남아 있는데 다음과 같다.

『매일 매일이 지옥이오. 홍계남이란 장군이 이끄는 조선군사는 실로 귀신이 탄복할지경이오. 북쪽에 처들어왔다고 그리로 달려가면 남쪽의 아군이 패해 있고 그래서 서쪽을 친다는 소식이 있어도 위장일것이라고 방치해두면 영락없이 그곳이 남패를 당하니 말이오. 요컨대 우리는 움직여도 손해, 안움직여도 손해란 묘한 입장에 있소. 병사들은 「홍계남이 온다」는 잠꼬대까지 하는 지경이니 능히 짐작할수 있을거요. 북쪽 전선에선 승승장구하고있는 모양이지만 우리가 주둔하고있는 수원은 홍계남때부터에 영망진창이오…』

아닌게 아니라 홍계남의 작전은 묘했다. 동(東)을 치는 척 하곤 북(北)을 치고 남(南)에서 퇴각하는 척하곤 갑자기 방향을 남으로 돌려 공격하고, 적이 대오를 정제하여 결전하려고 보면 하늘로 날랐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홍계남의 군사는 일명도 시야에 보이지않는 것이다.

수원의 적측 수장(守將) 입화(立花)는 성깔이 급한 놈이었다.

『홍계남이 얼마나 신출귀몰하다고 해도 사람임엔 틀림없지 않느냐.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산과 촌리를 이잡듯 설치면 필히 그놈의 족적을 찾아낼수 있으리라』

하는 명령을 내렸다.

왜적이 날진했다는 소식을 들은 홍계남은 그들의 진 방향을 확인하고 나선 그방향을피한 경로로해서 군사를 수원성으로 향해 출발케 했다. 수원성엔 적이 날과 수백명 머물고 있을 뿐이었다. 계남은 그 허를 찌르려는 것이다.

『계남군(季男軍) 수원성으로 진격중』

이란 소식을 입화가 들은것은 용인에서 였다. 입화는 즉시 군을 수원으로 돌렸다.

한국일보 533·2361

海外스포츠 話題

日 36세教師 투해머서 新記錄 4번째

36세의 현역교사가 투해머에서 올들어 4번째 日本기록을 경신, 큰 화제가 되고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中京大 교사인 투해머선수 시게노부씨는 지난해에 71m72로日本최고기록을수립한바있는데금년들어급격한 기록향상을 보여 매대회때마다 1m씩, 모두 4…

노부·무로부세(室伏重信)。그는 지난9일 2만여관중이 모인가운데 도오쿄국립경기장에서 거행된 국제친선육상대회 투해머서 75m20을 던져자신이 지난4월25일에 세웠던 日本기록 73m92를 한달도못돼 경신했다.

번에걸쳐 이같은 기록을작성했다.

그는 75m20의 기록으로 세계랭킹 20위로 떠올랐는데 세계기록은 蘇聯의 유리·세디크가 80년 모스크바 올림픽서 세운 81m80。

시게노부선수는 고교에 몸담고있어 연습할 틈이 적으나 철저한 체력관리와 훈련으로 기록을 향상시켰다고 말하고 오는 11월 印度아시안게임서 좋은성적을 올릴것을 다짐했다. 【UPI】

※투해머 한국 최고기록은 廣京烈선수가 78년10월 우수선수 공인기록서 세운 63m88。

칼럼재탕口喬數에 ★버렌과 쌍둥이 논쟁

유명한 상담칼럼「디어·애비」의 주인공 애비게일·밴·버렌과 그녀의 쌍둥이자매 앤·랜더즈가 오래묵은 칼럼을 아무런 주석없이 재탕발행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역시 상담칼럼니스트인 앤·랜더즈가 15년전 자신이 쓴 칼럼을 마치 신작품인양 사용해온 사실을 솔직이 시인하고 일단 써먹은 칼럼을 「재사용」한 사실을 솔직이 시인하고 앞으로는 이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아이오와주 체로키에서 발행되는 체로키·데일리·타임즈지 보도에 따르면 밴·버렌양은 최근 유니버설·프레스신디케이트사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는것。밴·버렌양은 이 성명에서 특별한 문제를다룬 일부 칼럼을 다시 사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재사용」이라는 주석을 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다고 해명。【체로키(아이오와)=AP】

海外토픽

포島郵票 최고인기 ★수천弗호가 없어못팔아

포틀랜드우표의 경우 수천달러를 호가하고있다.

가장 인기있는 품목은 오른쪽 구석에 엘리자베드영국 여왕의 두상이없고 포클랜드의 예술상태에 관한 문귀가 없는 날 정도인데 전문가들은 이같은 추세가 앞으로 6개월동안 계속될것같다고 전망.

한 미국우표회사는 포클랜드위기가 발생하기전에 포클랜드우표전지한장을 사들인 후 값이오르면서 우표1장에 5백달러를 받고 팔았는데 지금시세는 3천달러를 호가하며 앞으로 9천달러까지 치솟을것같다. 【런던=UPI】

포클랜드위기가 와중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있는 포클랜드우표수집가들은 틈이 있으며…

60年代 世界휩쓴 팝스2人組

사이먼과 가펑클 再結合할까

솔로로 함께 世界순회公演 한창

◇도오쿄 고라쿠엔 경기장에서 펼쳐진 사이먼과 가펑클의 연주실황。

★…「사운드·오브·사일런스」「도빈슨부인」「험한세상의 다리가 되어」등 우리의 귀에도 익숙한 노래로 60년대를 주름잡았던 사이먼과 가펑클은 재결합할것인가。솔로로 활동중인 이들은 세계 순회공연을 위해 함께 연주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들의 재결합에 판들의 관심이 쏠려있다.

이들은 日本공연을 마치고 런던·파리·베를린등을 순회할 예정이다.

아울러 헤어진것은 1970년。10년동안 인기정상을 누렸었다. 지난해 뉴욕센트럴파크에서 공연을 가졌을때 50만팬이 운집하는 대성황을 이루었었다。이에 힘입어 세계연주여행을 갖고있으나, 재결합문제에 대해서만은 「사운드·오브·사일런스」라는 노래제목처럼 침묵을 지키고있다。팬들은 이들의 아름다운 화음을 다시 듣기를 기대하고있다.

英語 공개講座 개최

3일간 한국일보文化센터

한국일보 문화센터는 18일·21일·22일 3일동안 영어 공개강좌를 개최합니다。지난봄 문을연이래 문화시민의 생활대학으로 성장해온 문화센터는 우리나라의 외국어학습열기에 맞춰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시범을 보여주기위해 다음과같이 영어공개강좌를 개설하오니 많은수강을 바랍니다。수강료는 받지않으며 교재도 무료로 나누어드립니다.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팝토픽

「아이버리」2位서 1位로

美캐시박스選定「텐·톱·팝」

폴·매카트니의 「Evony & Ivory」가 반젤리스의 영화 「불의전차」주제곡을 제치고 이번주 美國싱글팝차트의 톱을 차지했다.

스티비·원더와 함께 노래한 「Evony…」는 지난주 2위에 있었다。이노래는 英國차트에도 3주간 톱을 지키고있다。

지난주 3위였던 리크·스프링필드의「이방인에게는…」이 2위로 뛰었고 지난주 톱이었던 「불의전차」는 3위로 처졌다.

이밖에 텐·톱·팝에 새로 랭크된 곡은 레이·파커·주니어의 「제3의여인」등 두곡。

한편 컨트리·웨스턴·싱글차트의 톱은 지난주 2위였던 윌리·넬슨의 「그대는 항상 내마음속에」가 차지했다.

◇싱글 팝 베스트 10

▲1 (2) ＝「Evony & Ivory」 (폴·매커트니 & 스티비·원더)

▲2 (3) 「Don't Talk to stranger」 (리크·스프링필드)

▲3 (1) 「Main theme from chariot of fire」 (반젤리스)

▲4 (4) 「Freeze flame-flame thrower」 (J·게일즈밴드)

▲5 (5) 「I love rock n' roll」 (존·제트 & 블랙하츠)

▲6 (7) 「867-5309 jenny」 (톰·튜톤)

▲7 (9) 「I've never been to me」 (찰렌)

▲8 (6) 「We got the beat」 (고·고즈)

▲9 (13) 「The other woman」 (레이·파커·주니어)

▲10 (11) 「Did it in a minute」 (대릴·혼 & 존·오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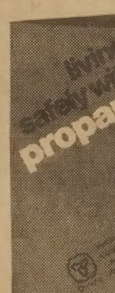
【AP】

SEND OFF THIS COUPON NOW

To: PROPANE SAFETY,
555 Yonge Street, Toronto, Ontario
M7A 2H6.

Please send me your free
20-page handbook,
LIVING SAFELY WITH PROPANE.

NAME: ______
ADDRESS: ______
CITY: ______ P. CODE: ______



당신의 주말을
연기속에서
구합시다!

프로판은 농가, 캠프장, 뒷마당에서 바베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편리한 연료입니다.
이것은 음식을 만들거나, 냉동하거나, 불을켜는데 깨끗하고, 빠르고,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불피우는 재료들과 같이 프로판은 조심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예를들어 당신은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는지요.

●프로판 바베큐는 막혀있는 장소에서는 절대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프로판 실린더는 바깥에 쌓아두어야하며, 매 10년마다 안전도를 검사해야 합니다.

●프로판 실린더는 항상 움직여져야 하며, 수직으로 된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프로판 실린더는 레크레이션널한 차량 바깥에 있어야 하며, 또는 밖으로 곧장 공기가 통할수 있게 차내부에 가스가 꽉 잠긴채로 간막이 내에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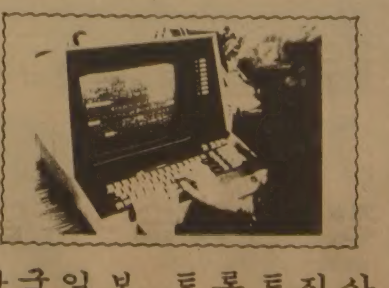
●프로판연료 냉장고는 매년 청소하고, 조절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읍니다.

당신은 이러한 안전한 요소들을 무료 책자에서 더욱 발견할 수 있읍니다. 지금 쿠폰을 우편으로 보내, 책자를 얻으십시요. 이것은 큰참고가 되며, 프로판은 항상 당신이나 당신 가족에게 위험한 것 보다는, 도움을 준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 입니다.

Ministry of Consumer and Commercial Relations
Ontario
Robert Elgie M.D., Minister
William Davis, Premier

식자 안내
〈컴퓨터 사진식자기〉

종전의 사진식자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
(종전 식자비의 2/3선)
★빠른 서비스
특히 책 종류 환영함.



한국일보 토론토지사
☎: (416)533—2361

MLS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금주의 새리스팅

1. (버라이어디 스토아)
주매상 13,500
8,000
6,500
6,000
4,000(일요일 닫음)

2. (버라이어티 스토아와 건물)
다운타운 바쁜 네거리 위치
코너 스토아
주매상 7,000~8,000(2,3층에 아파트 4개 달린 건물)
가격 43만불

3. 도낫츠·숍
●일요일 닫고 하루 12시간만 영업
년 순수익 52,000불
가격 13,5000불
●주매상 8,500, 7,500불 이외에
쇼핑센타내에 있는 몇몇 Gift 및 Smoke Shop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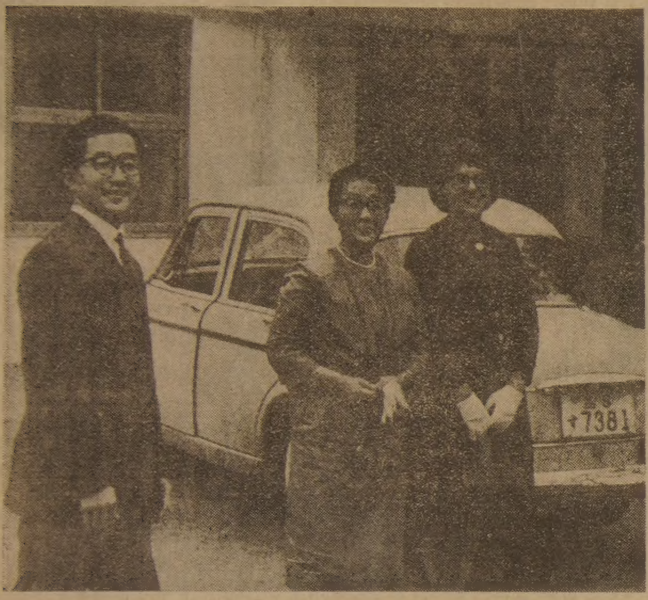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5 (B), 286-1548(R) M3B 1Z3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週刊한국

※언어 학습기구를 이용해서, 당신은 영어나 다른 외국어를 당신집에서 3개월간 배울 수 있읍니다. 이것은 일하거나 바빠 학교에 다닐수 없는 사람을 위해 이루어진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
SAVE-O-WAY AD. CO. 533-7324, 533-4966

李王家의 마지막 世子


◇63년 귀국당시의 李玖씨와 줄리아부부。가운데는 李玖씨 어머니 李方子여사。

李方子여사 "아직은 말할때가 아니다"단호

줄리아女史 樂善齋 가리키며 "노코멘트…"

李玖씨 이혼

본지記者 3주간 추적 特種

純宗의 손자이자 英親王의 외아들인 李玖씨(51)와 파란 눈의 부인 줄리아여사(52)가 9년간의 별거끝에 지난 3월 부부관계를 청산한 것으로 알려졌다。결혼 15년째가 되던 75년부터 한지붕밑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파경설이 나돌기 시작한 李王家의 마지막 世子와 世子嬪관계는, 미국법상의 법률혼 부부였을 뿐 한국법에선 처음부터 사실혼 관계에 지나지 않았다。따라서 한국국적에 혼자서만 입적하고 있는 李玖씨는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해도 법률상 보호를 받을수 있는 입장이었고 줄리아여사는 미국 국적이어서 미국법에 의해서만 혼인 관계를 보호받을 수 있는 묘한 처지였다。63년 부부가 함께 귀국한 후 지금까지 20년간 바깥 주인없는 樂善齋 옆 錫福軒을 외롭게 지키고 있는 줄리아여사와 77년 출국후 해외에서 머물고 있는 李玖씨 간의 「이혼 쌍방 합의설」을 추적한다。

◇77년 사업상이유등으로 일본으로 떠나 체류중인 李玖씨。

□석달뒤 얘기하자

昌德宮 정문에서 원남동 인도쪽으로 70여m 거리에 있는 樂善齋 입구를 들어서면 시멘트 외길을 따라 길 양쪽으로 진록이 벌써 탐스럽다。

전에는 昌德宮 정문을 통해 樂善齋를 다녔으나 보수공사후 이 길만이 통용된다。거목들과 상록수, 철쭉꽃등이 숲을 이룬 古宮의 담장 안을 깊숙이 들어갈수록 정적도 깊어진다。

「출입금지」 팻말이 붙은 樂善齋 바깥 정원문을 지나서 추녀 밑에 걸린 長樂門 현판 아래로 활짝 열린 樂善齋 대문을 들어섰다。

李方子여사를 만나려 왔다고 하자 『마님께선 오늘 자선파티가 있어 분주하십니다』며 50대의 여비서가 용건을 물었다。

美國人 부인 줄리아 女史와 別居끝에 「離婚 쌍방합의」說

올해 82세ㅡ方子여사는 서툰 한국말이었지만, 아들 李玖씨와 며느리 줄리아여사의 이혼문제에 관해서는 말 할 수 없다면서 입을 꽉 다물었다。

아직은 말 할때가 아니라고 했다。그래도 집요 하게 묻자,

『앞으로 3개월 뒤쯤 해서 이야기 하도록 하시죠』

하며 단호한 답변。

그간 이혼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 미묘한 일이 적지않았음을 직감할수 있었다。

아들 李玖씨의 근황에 대해서는 『몸이 아파서 일본에서 휴양을 하고있다』는 짤막한 말로 대신했다。

혹시 이혼문제로 고통을 받고있는것이 아니냐고 하자, 『그런것은 절대로 아니다』면서 『회사 일과 건강때문』이라는 얘기다。

존타클럽의 자선모임이 여곳 정원에서 낮 12시부터 시작돼 옷도 갈아입고 해야한다며 方子여사는 자리를 떴다。

82세의 할머니가 됐지만 역자에 잠깐 앉았던 자세나 대화의 태도등에서도 동양적 절도와 왕가직안의 위엄은 흐트러지지 않은것 같아다。

□쓸쓸한 錫福軒

존타클럽 자선모임에 참가하기 위해 여성회원들이 정원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樂善齋의 대청은 낯익은 女流들이 方子여사를 중심으로 이별 모임준비 마지막 손질을 하느라 부산했다。

다시 樂善齋 정문인 長樂門을 나와 德惠옹주가 기거했던 수강재 옆 錫福軒으로 들어가 줄리아여사를 만났다。

錫福軒의 바깥채는 樂善齋 바깥채와 지붕을 같이 이고 있으며 안채끼리는 뒷 마당이 서로 통해있는 지척의 거리이다。뒷마당 花階엔 묵은 이끼가 끼었지만 화창한 봄볕을 받으며 활짝 핀 철쭉이 왕가의 古屋을 채색하고 있었다。

플래스틱 엷은 테 안경을 쓴 줄리아여사가 어깨 높이쯤 되는 자그마한 주방의 창을 통해 누굴 찾아 왔느냐고 물었다。

『신문사에서 왔다면 존타클럽 모임때문에 왔느냐』며 사교적 미소를 담은 얼굴로 별 경계심 없이 말을 걸었다。

그게 아니라 줄리아여사를 만나러 온것이라고 하자, 서울대미대생들이 견학을 왔으니까 차를 접대할때까지 錫福軒을 좀 둘러보고 있으라면서 창가에서 사라졌다。

칠이 남은 錫福軒 마당 한가운데 만들어놓은 분수대는 오래 전에 물이 마른듯 했고, 댓돌 위를 올라서자 많은 방앞을 이어주는 ㄷ자형의 마루는 뽀얀 먼지가 깔려 古家의 손길이 멈춰버린듯 보였다。

그러나 방 안은 정결했다。문갑등 고가구와 왕실에서 쓰

朴承薰교수 特講 섹스의 社会学 ①

●그 國際가격

최신판 섹스·에로티스라는 책은 보면 결혼을 몇으로 구분하고있다。

첫째 : 하나와 한 구멍(Monogamy)

둘째 : 하나와 몇 여상(Polygamy)

세째 : 한 구멍과 여럿(Polyandry)

네째 : 여럿과 여러 구멍 (Group marriage)

도표에 나타난 미국 부부의 이혼율을 보면 1920년대에는 열쌍중 한쌍, 1940년대는 여섯쌍중 한쌍, 1960년대는 네쌍중 한쌍, 1980년대는 두쌍중 한쌍꼴로 급증하고있다。

이 책 서술의 중요한 부분인「섹스와 사회」 끝결론 하나를 보면 동양인의 결혼은 개인과 개인이 아닌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 되기 때문에 체통과 체면, 이웃과 친척들의 이목이 두려워 이혼율이 적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나 생각나는 일이 있다。

국민학교 동창회라는 게 있다。나이 들어가면 어릴 때 생각들이 난다。약간 화폐가 남는다고 생각한 친구덕으로 중년이 되면 국민학교 동창회가 가끔 열린다。

『자네들 앞으로 몇번 더 할수 있다고 생각하나。』

화양리식당 주인 발언이다。국민학교때부터 수학을 계속 증오해온 나는『새끼』하고 눈에 힘주면서도 선뜻 연민의 눈초리로 바라 보아준다。

『8백 80번 더할수 있다。』

비교적 큰 은행 전무가 된 친구의 답변이다。인생을 오십으로 보고 자는 시간 19년, 일하는 시간 16년, 책보는시간 6년, 여행과 산책 2년, 식사3년, 멍청히 2년, 목욕·이발 1년, 노는것 1년, 그리고 이불 속에 섹스하는 시간이 60일, 약 1천4백40시간이 들어있다。

한번 소요시간을 약7분에서 10분으로 보면 앞으로 5백번은 더 할수 있다는 답이다。

이 친구들 술을 받고주는 꼴을 응시하며 내가 자라온 세대를 점쳐 본다。첫째 검도와 교련만 했기때문에 춤을 잘 못춘다。

둘째 근로동원만 끌려다녀 영어를 잘 모른다。

세째 교련식으로 명령받은 일만 한다。

네째 공복기(空腹期)를 많이 겪어 상에 나온것은 무엇이든 다 훑어 자신다。

다섯째 여자값 치르는 일에 아주 어둡다。

한국전쟁 전후 비교적 길고 긴 공복기를 끌려다니며 살아왔기때문이다。거의 다가 옛 시조에 나오듯 한구멍에서 맞배운 멍청이들인 거다。

일현(一次)주의 라고나 할까。실로 한심벌떡한 세대다。그 중 하나 정도를 빼고는 거의 조강지처 술하에서 기는 아기들이다。거

지 비하면 30대는 다르다。

여배우 A양이 부산 가서 호텔 화장실 속에서 세 남자가 벌인 정말전의 곤욕으로부터 피신했다가 되돌아왔다는 뒤늦은 보도가 화제화 된 일이 있다。

내용은 30대 사장 하나가 하룻밤 50만원으로 A양을 흥정해 부산으로 불렀다。그런데 그 자리에 같이 합석했던 30대 사장 두 친구가 가격 50만원 정도라면 나도 그 정도는 있다。그러니 나도 할 자격이 있다고 덤벼 드는 바람에 왕복 비행기값도 제대로 못건진 채 서울로 돌아왔다는 거다。

이 경우 섹스값 50만원을 건 대 사장이란 친구가 스크린 화면에서 늘 보던 여배우를 직접 자기 두 눈알로 확인해 그니 다소 실망한 거다。

그래서 꾸민 연극으로 못볼것도 없다。딴 두 친구도 값이 열 올리는 척하게 만든 후 계약했던 50만원 건진 셈 된다。질로 섹스값에 있어서는 고금동서를 불문하고 남자쪽이 째째 무궁할 수 있다。그러나 20대는 더욱, 약아졌다。

이유는 텔레비전 보급후에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이다。

섹스도 커머셜같이 헐값으로 흘리는 거다。섹스값의 십자상 때문에 자기 일생을 한 구멍을 위해 십자가를 걸머지고 살아가 보겠다는 40대같은 기특한 사고방식을 지닌 퍼센테이지는 매우 줄었다。

30대·40대가 활자 미디어라는 뜨거운 미디어속에서 살아온 세대라면 지금의 20대는 이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텔리비전 전달에 익숙해져온 세대다。

죽고 사는 연속극도 일정시간만 되면 뚝 끊어지고 라면과 아이스콘 광고가 흐를 것을/그들 뇌수는 잘 기억하고 자란거다。

사랑이고, 섹스고, 나팔이고, 일정시간만 지나서 뚝 끊어지면 커머셜이 흐를 것을 잘 알고들 있다。인생도, 결혼도, 섹스도 오표심각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옛날 종삼(鍾三)이나 양동 시대의 섹스값과 오늘의 섹스값엔 큰 차이가 없다。

물가 앙등률로 따지면 그 시대의 돼지고기 한 근값이 두 근값 정도로 오른 셈이다。

그 값의 표준이 되는 청량리역 옆 588번지 일대값이나 청계천2가·3가·4가·5가 양쪽에 있는 컬러텔리비국 상징인 초록, 하늘, 빨강색 간판 단 맥주 살롱 2층에서 지불되는 섹스값이나 별 큰차가 없다。

국제가격 표준은 그 나라에서 신을 만한 서민 구두 한켤레 값이다。금강, 엘칸토, 에스콰이어, 비제바노등 대중 신발은 2만원서 3만원이면 신을만하다。

그 반값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물론 구두도 구두 나름이겠지만 부산 30대 사장 3명이 50만원, 그러니까 구지나 크리스찬·디오르 정도 값으로 상승시킨바 있고, 우리 국민학교 동창 대다수가 오로지 1혈 위주로 자기네 한삶 다하여 번돈 죄다 값치고들 있는데 비하면, 우리 섹스시장가(價)는 올려야 한다。우리 20대 국제 섹스값만이 덤핑값이라는 건 조속히 조정·상승시킬 필요가 있다。그래야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성병도 퇴치되고, 미국이나 일본 정도의 국제가격유지가 가능할 거다。그러나 우리 가격이 덤핑값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혼율이 아직은 적다고 보는 여성격인 낙관론도 나올 수는 있다。

〈계속〉

토막 소식

30代레즈비언 牧師취임

○…앤·흘즈(31·여)라는 미국의 레즈비언이 신도가 1백80만이며 진보적인 교리로 널리 알려진 통합 예수교회라는 한 신교파의 목사로 임명되었다고。

이 교파는 수습목사들에게 신상명세서와 신학경력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신의 동성애 사실을 시인한 흘즈양은 이를 감추는 것이『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살아야한다』는 기교리에 위배되기때문에 사실대로 기록했다는 것。

현재 미국의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동성애가 과연 성서의 교리에 위배되는 것인가를 놓고 논쟁이 일고 있다고。【外】

축 일간지 발행 1주년기념

교민사회의 목탁인 한국일보사의발전을

축하 하오며 더욱 교민을 위해

일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토론토한인회 회장 박인순외 임원일동

李玖씨、현재 日서 몸이아파 휴양
줄리아女史는 錫福軒서 衣裳만들어 팔아

◇주인 李玖씨가 떠난지 9년째가 되는 錫福軒 서재의 빈 자리가 한층 쓸쓸하다。

◇서재와 붙은 마룻방 문갑위엔 英親王의 상반신 초상화가 놓여있다。

던 목각품과 도자기등이 앞마당에서 마주보이는 4개의 방에 제 자리를 찾아 진열돼 있었고 바하의 음악이 구석방 스피커에서 텅 빈 집안의 적적을 좇고 있었다。

□"아무말 않겠다"

그 바로 옆방 문갑위엔 英親王의 상반신 사진이 세워졌고 그 앞엔 놋으로 만든 향로와 꽃이 담긴 화병과 초가 놓였다。

文房四友가 그려진 8曲병풍으로 벽 한면을 완전히 둘러친 이 집주인의 서재는 英親王 초상화가 있는 바로 옆방—두툼한 보료와 왕실상징 문양을 넣은 보료등받이가 앉은뱅이 탁상 뒤에 떡 버티고 있었다。

그러나 9년전 이 방을 떠난 世子 李玖씨는 이후 한번도 이 자리에 앉지를 않았다。또 그의 아버지 英親王의 사진은 놓여있어도 李玖씨자신의 사진은 이 집안 어디에도 걸려있질 않았다。

사랑채까지 10개도 넘는 다른 방은 굳게 잠겨 있었고 전축이 있는 방에서부터 직각으로 구부러진 다음방은 3평남짓한 좁은 방으로 줄리아여사의 응접실이고 화장실앞 마루를 지나면 바로 줄리아여사의 작업실이 된다。

실내장식과 의상을 전공한 그는 이방에서 옷을 만들어 팔고 바로 옆에 붙은 자그마한 주방에서 혼자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주인 떠난 집을 지켜왔다。

남편 李玖씨와 부인 줄리아여사의 이혼문제가 종결이 났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줄리아여사는 얼굴이 좀 굳어지면서 『그 이야기라면 나는 답변을 않겠다。方子여사에게 물어보라』며 樂善齋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마지막으로 李玖씨를 만난 시기등 궁금한 일을 계속묻자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미안하다』면서 견학 와 있는 서울대 미대생 틈으로 합류해 버렸다。

□"갭 메울수없다"

李玖씨와 줄리아여사의 이혼설은 77년7월27일 李玖씨가 東京뉴오따니호텔에서 가진 후지紙와의 회견이 있으면서부터 굳어졌다。

당시 李玖씨는 『이혼은 내년안에 하겠다。아내도 동의했다』면서 19년 결혼생활의 파경을 처음으로 시인했던것。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올해 3월말이 돼서야 全州李씨 문중사이에서 『세자손(李玖)과 손비가 이혼에 합의했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 항간에선 아직도 이혼문제가 남아있었는가 싶어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러나 이혼은 서로 동의를 했다고 해도 이혼에 따르는 조건을 수락해야 가능하다。동거를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부인할수가 없다。

따라서 77년 일본에서 이혼결심을 밝힌뒤 이들 부부가 19년간 법률상부부로 살아온데 따르는 위자료·손해배상등 문제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경우 이혼 종결의 시한이 따로 있을수가 없다。

물론 줄리아여사쪽에서 모든 요구조건을 포기하고 樂善齋를 떠나버린다면야 문제는 간단히 끝난다。

74년부터 9년간을 독수공방 하면서도 지금까지 樂善齋 옆집을 지키고있는 줄리아 여사의 속셈은 과연 무엇일까?더욱 그는 부부간에 애정이 없으면 쉽게 이혼을 하는 미국사회에서 자란 미국적 가치관을 가진 미국여자가 아닌가。

한편 후지紙 인터뷰 당시 李玖씨는 『줄리아는 두번 유산후 아이를 낳지 못하지만 자손이 없다는것만이 이혼의 전부는 아니다』며 이혼사유를 밝히면서 『한국말을 못한다。더구나 풍속·습관이 아주 다른 사회에서 들어왔기 때、그 갭을 줄이려고 의견

李玖씨「日후지紙와의 회견」서 離婚說 발단
올 宗廟大祭엔 李玖씨 비롯 줄리아女史도 보이지 않아

을 말히면 그녀는 기분어 져빠 역으로 나갔다。이제는 그 갭을 메울수가 없다』고 말하곤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李玖씨의 이같은 주장은 그간 파란 눈의 世子嬪을 못마땅한 눈초리로 보아온 친척과 종친들의 뜻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었다。

□尹妃의 유언

종친들은 대를 이을 자손을 갖기를 기대했고 어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이들의 계대는 자기집안 장손에 하여금 갖기를 소망하는것 여생으로 접요하며 3백50만 全州李氏 전체의 큰 명예로 연녀되고 있어 李玖씨는 물론 줄리아여사로서도 감당키 힘든 일이었다。

더우기 66년1월 純宗의 왕비인 尹大妃가 승하하면서『玖를 잘 돌보시오。대를 이을 사람이니…』하고 유언을 남겼으므로써 이후 종친들은『아이 못낳는 줄리아와 이혼하라』는 압력은「사생활 간섭」이라는 서양적 사고방식의 문제가 될수 없을정도로 크게 대두됐다。

여기에 동·서양 가치관의 대결과 갈등이 복합돼 方子여사도『조언대로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고 李玖씨도 뜻을 굳혔던것으로 전해졌었다。

아뭏든 李玖씨는 77년 사업상의 문제등을 안고 일본으로 떠난뒤 한국엔 두차례 다녀갔을뿐 줄리아여사와는 거의 만나지 않은게 사실이다。

잠시 귀국했을때도 시내 아파트나 호텔에 묵었으며 樂善齋에서도 어머니 方子여사와 기거하는 선관에 머무는등 줄리아여사와는 한방을 쓰지 않았다。

한때는 J화랑 여주인과의 염문설이 파다했었으나『프렌들리한 사이다』라는 李玖씨의 해명이 사실로 확인됨으로써 줄리아여사와의 별거중에 제3의 여인이 있을것이라는 추측들도 빗나갔다。

◇의상 작업실에서 손수 만든 옷가지를 둘어보이는 줄리아여사。

□宗廟大祭 異變

줄리아여사는 李玖씨가 언젠가는 마음을 돌이켜 귀국, 재결합되기를 희망했던것 같다。

그러나 지난 2일 왕가의 가장 크고 중요한 행사인 宗廟大祭에도 제주인 李玖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 서울에 있는 줄리아여사도 올해는 大祭에 참석치 않았다。줄리아여사는 지난해까지도 方子여사와 나란히 世子孫妃의 자격으로 大祭에 참석해왔던 의례에 비춰볼때 큰 이변이 아닐수 없다。

문중에 파다한 소문대로 줄리아여사는 법률적부부관계를 청산한 것일까?

항간에는 위자료로 거액이 오갔을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기도 하지만 종친회쪽에서는 이를 펄쩍 뛰며 부인한다。

『이젠 물러날때가 돼서 물러나는 것일뿐이지 돈이 오가고 하는 그런 체통에 걸리는 일은 있을수 없는 법』이라고 손을 내젓는다。

李玖씨의 애정이 식었음을 알 것이고 또 기다리는 세월도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다。게다가 종친들의 싸늘한 눈총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줄곧 계속돼 줄리아여사가 더 이상 견뎌낼 재간도 없었을 것이라고 한다。

□말않는 樂善齋

더우기 李玖씨에겐 위자료라고 내줄만한 돈도, 재산도 없다고 한다。오히려 新韓航業등 사업을 하다가 빚을 져고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종친들의 결론은 李玖씨가 마음을 돌리지 않았고 줄리아여사는 기다리다 지쳐서 이혼합의서에 서명을 했을것으로 판단하고있다。

이 경우、줄리아여사의 법률대리인과 李玖씨의 대리인간에 합의가 이뤄져 이혼장에 싸인을 하고 이 합의서가 미국법에 의해 처리된것으로 본다는게 종친들의 견해다。

그러나 이들 양쪽 당사자 누구도 입을 떼지 않고있고、종묘대제때도 祭主인 李玖씨가 나타나질않아 어떤 경로와 법적절차를 밟은것인지는 樂善齋 높은 담속에 가리워진채 알길이 없다。

아뭏든 尹妃가 40여년간의 寡守의 恨을 씹고간 한스런 집 錫福軒에서、최후의 王孫妃 파란 눈의 이국녀가 또하나의 恨을 씹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張榮澤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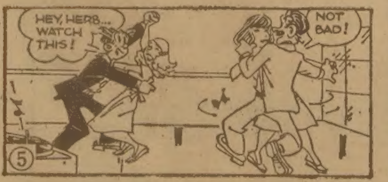
本社독약
블론디
딘·영作

"이봐, 허브— 내게 기가 막힌 생각이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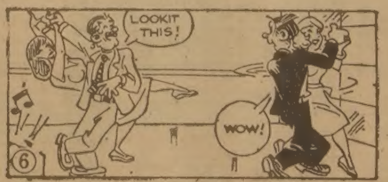
"우리 맘보춤 교습을 받고 마누라들을 새로 개장하는 라틴클럽에 데려가자고!"
"좋아!"

"여보게, 마누라들이 굉장히 놀랄 거야!"
"그렇고 말고!"
—프레드 맥네 댄스 강습소—

"우린 맘보춤의 단기 속성과정을 배우고 싶습니다"
"알았어요, 신사분들…"



"어때, 허브— 이것 좀 봐"
"괜찮은데!"



"여기도 보게!"
"야아!"

"두 분 다 맘보춤을 멋지게 추시는군요"
"선생님은 굉장히 빨리 배우시네요!"

"그거 비싸긴 하지만 틀림없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 거야!"
—프레드 맥네 댄스강습소—

"부인, 맘보춤을 한번 추실까요?"
"이 곡에 맞춰 춤을 춰도 괜찮을까요?"

"전 맘보춤을 출 줄 몰라요"
"저도요"

"자넨 왜 우리 마누라들이 맘보춤을 못춘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나?!"
"그건 내가 물으려던 말일세!"

"또 그 기막힌 아이디어 때문에 망했어!"

주5일
식품점에 신문배달

식품점에 가시면

⊙새로나온 〈한국일보〉가 있읍니다.
⊙아내에의 선물〈주간여성〉도있읍니다.

※토론토한국일보사는 토론토 부근 10개 한국식품점에 당일 발행된 신문을 매일 배달, 판매합니다.(단: 미시사가소재 식품점에는 당분간월·수·금요일만 배달)

—한국일보사—

성균관 대학교 야유회

⊙일 시: 1982년 5월23일(일) 낮12시
⊙장 소: North of Airport Rd. (Conservation Park)
⊙연락처: 김영창 ☎ 233-2471 김춘탁 ☎ 534-1085

※음료수는 동창회에서 제공합니다.
※낚시도 할 수 있읍니다.

성균관 대학교 동창회장
김 영 태

제3회
한국일보사배명인전
도전자결정바둑대회

1. 대국일시: 5월22부터 6월13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대국함.
2. 대국장소: 한국기원
3. 신청마감: 5월30일까지
4. 대국방법: FULL LEAGUE전
5. 신 청 료: $20
6. 시 상: 1·2·3등 TROPHY증정
7. 결승대국: 6월19일 오후2시
8. 시 상: 6월19일 오후6시
9. 기 타: 6월13일까지 대국을 끝내지 못할 경우에는 기권한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승율이 같을 경우에는 승자승 원칙을 적용함.
10. 제2회 우승자: 이세주 아마7단

1982년 5월 5일

한 국 기 원

한국의 妓生

글·全完吉

사내들의 노리개로 훈련받아 재치와 유머감각 풍부
선비들과 詩겨루는등 풍류와 품격 西洋창부와 달라

기생은 선발된 미인이고 분명히 멋과 풍류를 아는 예술인이었으며, 옛 한국 남성들에겐 반드시 필요한 벗이었다. 사나이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생활에 활력을 주면서 예술을 한층 진보시킨 공로자라고 할수도 있다.

風流場

♥詩와 기생

기생이 사나이들의 벗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런지 그들은 재치와 유머를 가득 지니고 있었다.

영의정 李某에게는 玉梅香이라는 기생이 있었다.

어느 날 영의정이 몹시 성을 내며 가죽신으로 옥매향을 마구 때렸는데 어찌나 혹독하게 쳤는지 신발이 네조각이 날 정도였다. 그러나 옥매향은 오히려 웃으면서 『대감께서 저와 같은 小妾때문에 물건 하나가 네개로 늘어 말모서 한 쌍, 활점 두개가 더 생긴 셈이군요. 부디 노여움을 거두시옵소서.』

이 말을 들던 이정승은 웃음이 터져 나와 노여움이 저절로 가셔버렸다. 이 이야기는 徐居正의 太平閑話滑稽傳에 있는데, 서거정은 기생을 사랑하려면 詩에 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詩로 내기를 걸어 기생을 누가 차지하느냐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扶安기생 桂月은 시를 잘 짓고 노래와 거문고에도 뛰어났다. 選上妓가 되어 서울로 올라왔는데 풍류를 사랑하는 뭇 선비가 모여 들었다.

어느 날 柳선비가 그를 찾아갔을 때 金·崔 두 사람이 먼저 와 있었다. 계월이 세 사람을 맞아 술자리를 마련하여 접대하였는데 세 사람이 서로 계월을 독점하려 했다. 계월이 말했다.

『여러분들이 각기 風流場 詩를 읊어 흥을 돋우는 것이 어떨까요. 만일 제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시가 있다면 오늘 저녁에 모시리다. 먼저 賤妓들이 傳稱하는 시를 읊어 드리지요』 하고 다음과 같은 두 절귀의 시를 읊었다.

玉도곤 흰 팔은 여러 사내 베개요/붉은 입술은 여러 손님 맛 보았소/서럿날 여 아니어늘 어이하여 나의 애를 끊고 가는 거요.

三更 밝은 달엔 발굽이 춤을 추고/一陣 바람결에 어붉이 펄렁이네/이 때를 당하여 無恨한 그 맛은/오직 두 사람만이 누릴 것

金이 제일 먼저 七言절귀 한 수로 받았다.

창 밖 三更에 가는 비내릴 제/두 사람 그 마음을 둘이서만 알리다/새정이 흡족치 않아 날이 장차 새려 하니/다시금 소매 잡아 뒷 기약을 물었었소.

이번에는 崔가 차례를 이었다.

껴안고 紗窓을 향해 쉬지 못할 그 일에/반은 교태 머금은 채 반은 부끄러움을 짓는구나/낮은 소리 물어 오되 나를 생각하려는가/금비녀를 다시 꽂고 웃으며 머리 끄덕.

계월이가 웃으면서 두 사람의 시를 평한다.

『앞의 것은 웅졸하고 뒤것이 나으나 격이 낮으니 들을만한 것이 없소.』

그러자 金이 다시 읊는다.

가을 밤/새기 쉬우니/길단 말을 하지 마오/등불 앞에 다가 앉아 비단 치마 풀어 보렴/외눈이 열리니 갑온 동자 반짝이고/두 가슴 합해지니 땀냄새도 향기로와/다리는 청구머리 물결에 헤엄치고/허리는 잠자리라 물에 바삐 잠기는군/나의 그것이 기운 센 것을 언제라도 자랑하리니/사랑 뿌리 깊고 얕음 그대에게 묻노라.

이번에는 시가 잘 되었다고 계월이가 칭찬하였다. 그러자 지금까지 잠자코 있던 柳선비가 계월이더러 韻을 놓으라 하고 운이 떨어지자 곧 읊기 시작했다.

봄을 찾은 호탕한 선비가 운도 높을시고/비취 이불속에 아름다운 인연있어/옥팔뚝을 버티디 두 다리가 우뚝하고/붉은 구멍 채울으니 두줄이 둥글고나/눈매를 처음 보니 안개서린 듯하고/진 하늘 쳐다보니 돈보다 자아지네/그속에 재미나 유별남을 논할진댄/하룻밤 높은 값이 千金에 해당하리.

계월이 탄식한다.

『이는 韻字가 떨어지자마자 읊었는데도 잠자리의 情態를 잘 묘사하였을 뿐아니라 글이 호방하니 단연 으뜸이오』 하더니 柳선비를 향하여,

『貴公께서 이와같이 누추한 곳에 왕림하실줄 몰랐읍니다. 이제 만나뵈니 다행이군요.』 이어 웃으면서 『아 千金에 그칠 것입니까?』

이번에는 金·崔더러 『당신네들의 시는 한잔의 청량음료만도 못하오.』

두 사람이 묵묵히 돌아가자 柳는 그날 밤을 계월과 보냈다. 이와같이 기생들은 풍류를 이해하고 詩才가 뛰어난 선비를 우대하였기에 그들 자신의 품격을 높이고 사나이들에게는 학업에 정진할 자극제 구실을 했던것이다. 더우기 기생이 詩評을 할정도였으니 얼마나 멋장이인가.

♥高麗詩妓

成汝學(朝鮮·生沒年代 未詳)의 續禦眠楯에는 선비와 醫員, 승려, 기생 네 사람이 계를 모아 돌려 가며 잔치를 베푸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다. 어느날 불청객이 나타나 자리를 뜨지 않으므로 詩才를 겨루어 쫓아내기로 작정한다. 그러나 시를 겨룬 결과 낯선 손님의 실력이 제일 뛰어나므로 도리어 上席으로 모시지 않으면 안되었다 한다.

이 詩會에서 기생이 읊은 시와 손님이 읊은 시는 다음과 같다.

하늘엔 天仙이 있고 땅에는 地仙이 있다네/스물 네 글 윗 구멍(肛門)을 한자 유가 뉘게도 아끼지 않음/그 밖의 陽物이 크고 작고 길고 짧음을 나는 관계치 않으리오.

하늘에 이름 없는 별이 있고 땅에도 이름없는 풀이 있소. 창피를 무릅쓰고 한가 잔치 유가 잔치 모두 참여할 뿐/그밖의 주찬이 풍족하건 말건 나는 관계치 않으련다.

黃眞伊처럼 뛰어난 시인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생이 선비들과 酬唱할 정도로 교육을 받았고, 자주 詩會를 가진 점이 서양 어느 나라의 교육받은 娼婦(그리스의 헤타일러가 우리나라 기생처럼 교육받았었다)와도 비교가 안된다. 즉 기생은 한국 문학예술의 核이었다.

이러한 전통과 관습은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었다.

動人紅은 고려때 彭原妓인데 선비에게서 글을 배웠다. 글을 가르치는 선비가 시를 짓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겠다고 하자 자극을 받아 「비단치마를 벗어 술을 사고 옥같은 손을 흔들어 그대를 부른다(買酒羅裳解, 招君玉手搖)」 하였다.

어느 날 兵馬가 길을 갈라서 太守와 장기를 두는데 술이 너무 취하여 어쩔줄 모르다가 시를 읊었는데 「博州에서 都護는 천 잔의 술을 마시고 취하여 동서를 분간 못하도다」 하자 곁에 있던 동인홍이 이렇게 받았다.

「太守가 陣營을 나누어 한판의 장기를 두니 몽롱하여 생사조차 모르는군(太守分營一局棋, 蒙不知生死)」

그런가하면 麟州妓 白蓮은 사신으로 지나다가 정을 맺은 貞肅公이 戀詩를 보내오자 答詩를 지어 바쳤다는 이야기가 崔滋의 〈補閑集〉에 실려 있다.

그러니까 기생들이 高官벼슬아치나 선비들과 어울리기 때문에 동인홍처럼 선비를 찾아가 글 공부를 하게된 것이 필수자격으로 변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編者註△ 全完吉씨의 「한국의 妓生」은 18회로 연재를 중단합니다. 기회를 보아 계속 연재를 고려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애독해주신 독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미스터 펀치

即席연설

H·G·웰즈의 탄생 70주년 축하연에서 선배이며 친구인 버나드·쇼가 즉석 연설을 일석(一席) 했다.

『웰즈군, 자네는 이제부터 80세를 향하여 걸음을 내디디려 하고있네. 나는 이미 90고개를 올라가고있지. 웰즈군, 그런데 왜 우리들의 생일을 사람들이 축하해주는줄 아나? 그건 이제 곧 우리같은 귀찮은 존재들을 떨쳐버릴 수 있다고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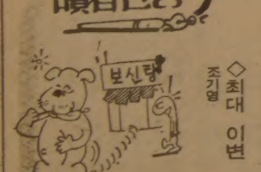
얘기의 샘

還生의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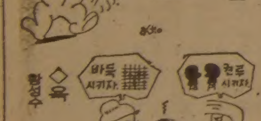
어느날 소설가인 모리다(森田草平)가 스승인 나쓰메·소오세끼(夏目漱石)에게 『…선생님이 만약에 돌아가셨을때, 염라대왕이 선생님을 다시한번 살려서 세상에 되돌려 주겠다면 어떻게 하시겠읍니까?』 하고 물었다. 漱石의 대답 『글쎄, 내 위장병을 고쳐 주고난 뒤라면, 다시 한번 환생(還生)하는것도 나쁘지 않지』

—하기 더운일세—

讀者만평



◇최대 이변 조기영



◇욕심 함성수

讀者 페이지

■投稿환영

김용화

〈경찰관의 禁忌사항〉

1. 내연의 처를 두지 말것.
2. 처가살이를 하지 말것.
3. 집안에 파리를 키우지 말것.

—의령사건후— 이양섭

★〈물가는 잡혔다〉

이번엔 돈을 잡을 차례다.

원아람

〈분실공고〉

그저께 덕수궁 돌담길에서 영자씨와 손가락을 걸고 굳게 다짐한 사랑의 약속을 어젯밤 명동디스코홀에서 정신없이 흔들다 그만 분실하였삽기 오늘자로 그 약속은 무효임을 공고함. 82년 4월30일

때 때 (한국나서회)

〈미래의 속담〉

철판 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한다.

—지하철 사고후— 譚發彈(전국나서문학회)

〈지구는 둥글다〉

고로 인간의 발바닥이 움푹하게 패인다.

김용화

지금 웃는중 落書

〈사부님/오셨읍니까〉

지옥에서 왕년의 살인범 김대두가 우범곤순경에게 하는 말.

하동환 (전국나서문학회)

〈진짜 재수 좋은날〉

임신 9개월된 여인 만나던 날.

—미역장수—

〈지구는 돈다〉

내가 하루종일 돌아다니다가 집에 다시 돌아온걸 보면.

김갑철

〈어쩔수 없어요〉

개꿈 꾼 다음날은 보신탕 생각이 더욱 간절하단 말씀예요.

때 때 (한국나서회 守舊派)

〈우리나라 고유의 간이탈의장〉

치마

〈속 들여다 뵈는 사람들〉

아저씨라 부르니까 서운하다는 아저씨. 아가씨로 불러주니 고마와하는 아줌마.

주영준(전국나서문학회)

〈소잃고 외양간 수리했더니〉

소를 살 돈이 없다.

원아람

〈올림픽개최 내력〉

나고야 좋다지만 우리는 싫어 서울의 하늘아래 올림픽 열고 온누리 세계각국 선수들 모여 서로의 힘과 기량 겨뤄 가면서 한국의 발전상을 알아 보련다.

—IOC위원 일동—

강주현

〈무엇일까요?〉

각 가정은 물론 이·미용실과 양장·양복점에, 엿장수에도 꼭 필요하며 뭣끝목 소변금지구역에도 흔히 그려져 있는것은?

—가위—

강주현

故事通 父母在, 不遠遊

부모가 살아계시면 멀리 가지 말일이다. 만일 나가게되면 반드시 외출을 알리고 그곳에 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곧 자식으로서의 도리요, 부모에게 근심을 끼쳐 드리지 않는 효행의 하나다.

「한국名作」속의 숨은그림 찾기

沈熏의 「常綠樹」

◇沈熏

창밖을 내다보던 영신은 다시금 콧마루가 시큰해졌다. 예배당을 두른 야트막한 담에는 쫓겨나간 아이들이 머리만 내밀고 주욱 매달려서 담안을 넘겨다보고 있지 않은가. 고목이 된 뽕나무가지에 다닥다닥 열린것은 틀림없는 사람의 열매다. 그중에도 키가 작은 계집애들은 나무에도 기어오르지 못하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훌쩍거리고 울기만 한다. 영신은 창문을 말끔히 열어 제쳤다. 그리고 청년과 함께 칠판을 떼어 담밖에서도 볼수있는 창 안턱에다가 버티어 놓고 아래와 같이 커다랗게 썼다.

『누구든지 학교로 오너라.』

『배우고야 무슨 일이든지 한다.』

나무에 오르고, 담장에 매어달린 아이들은 일제히 입을 열어 목이 찢어져라고 그 독본의 구절을 바라보고 읽는다. 바락바락 지르는 그 소리는 글을 외는 것이 아니라 어찌 들으면 누구에게 발악을 하는것 같다.

〈작품중에서〉

■숨은 그림

핀 버선 1짝 팽이 피라미드 양말한짝 금붕어 버섯 고추 군인모자 우유병 우산 곤충채집기 제기 우리나라 지도

구성·權大雄

해외 토픽

泰 하루에 6백58명 精管절제수술 世界新

태국 인구·사회개발협회는 지난 1일 하루에 6백58명에게 정관절제수술을 시술, 세계신기록을 수립했다고 발표. 이 협회 대변인은 방콕의 일요시장으로 사용되던 공터에 천막시술소를 설치, 의사 10여명의 집도로 상오 8시~하오 7시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정관수술을 시술한 결과 작년 12월 같은 곳에서 세웠던 기록(1인 2백65명)을 돌파했다고 주장. 〔AP〕

파키스탄 62세 노인 농욕未遂 쇠고랑

7세 소녀를 농욕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된 파키스탄의 62세 노인이 법정에서 10년형과 함께 15대의 태형에 처해졌으나 너무 늙어 10년간의 수형생활을 감당할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 5년으로 감형처분받았다고. 〔UPI〕

◇野球場에 느닷없이 검은 고양이

시애틀 마리너즈팀의 좌익수 부르스·보호테가 에인절즈—마리너즈전 4회전서 구장으로 뛰어든 검은 고양이를 좇아가고 있다. 에인절즈팀의 보비·그리치가 타석에 들어섰는데 검은 고양이가 그에게 행운을 안겨 주었는지 2루타를 날렸다. 【한국일보 시카고支社】

父母들 총각 지참금 너무 요구해 印尼處女들 울상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서쪽 관광지 니아스섬의 처녀들은 부모들이 구혼해 오는 총각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지참금을 요구함으로써 시집가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걱정.

보도에 따르면 혼기가 된 딸을 가진 어느 부모들은 자기 딸과 결혼을 원하는 총각들에게 재산능력한계를 훨씬 넘는 수백만 루피아와 수십 마리의 돼지를 지참금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마음에 드는 처녀를 아내로 맞으려는 총각은 거액의 돈을 벌어 결혼한 후 수십 번에 걸쳐 여러 빚을 갚아야 하며, 지참금이 비교적 적은 수마트라나 자바로 신부감을 구하러 간다는 것. 〔로〕

日本 처녀들 농촌기피로 시골 靑年들 고민

日本 처녀들의 농촌기피 현상으로 신부감 구하기가 어려운 홋까이도 농촌 청년 25명이 도오쿄의 결혼상담소인 日本청년센터의 주선으로 도오쿄에서 단체 맞선을 볼 예정이라고.

여름 남녀들은 단체 회합을 가진뒤 마음에 드는 상대를 찾아내어, 쌍방이 맞아떨어질 경우, 짝을 지어 나가고, 나머지는 다시 단체토론을 거쳐 상대방을 물색하게 된다는데, 80년 설치된 日本청년센터는 홋까이도 청년 9천명의 신청을 받아놓고 즐거운 비명. 〔東〕

슬로트 머신서 40萬달러 횡재한것, 도박에 날려

56세의 한 홀아비가 슬로트 머신에서 40만달러를 따는 횡재를 했으나 도박으로 며칠만에 거의 탕진해 버렸다고.

라스베이가스의 카지노에서 가장 운 좋은 사나이가 된 세실·번서는 40만달러를 더 벌기위해 슬로트 머신으로 딴 상금 40만달러중 30만달러를 도박에 걸었다가 날려버리고 말았다는 것.

번서는 군인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남은 10만달러는 자식에게 줄 계획이라고 설명. 〔美〕

치아手術 사자가 물어뜯어 獸醫師가 환자로

최근 미 매사스추 찰러지·스테어선에서는 한 수의과대학생과 가축병원 직원이 어금수술을 받기위해 수술로 끌려온 한 사자한테 물어뜯기는 소동이 발생.

사자는 혼란의 와중에서 마살되고 말았는데, 혼비백산한 두 사람은 군데군데 깊은 상처를 입고 봉합수술을 받는등 되레 환자신세가 되었으나 중태는 아니라고. 〔美〕

해외걸작만화

〈無題〉

移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WILL YOU ACCEPT THE CHARGE?

한국의 유명 무역회사 N.Y. 지사 사원이 업무상 급한 용건으로 서울의 본사에 국제전화를 걸었다.

우선 0번을 돌려 Operator (교환)를 불러서 「서울부담으로 전화를 걸겠읍니다」 I'd like to make a collect call. 이라고 한다음 교환이 물어오는 상대방번호등 간단한대답을 끝내고 끊지말고 기다리라는 교환의 말에 한참을 기다려도 무소식. 알고 보았더니 교환이 There's a collect call from Mr. Kim. Will you accept the charge? (미스터킴으로부터 콜렉콜인데요. 요금을 부담하시겠어요?) 라고 계속 이야기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질 못한 서울본사직원이 Pardon me? 만 연발하여 결국 통화를 못하게 되었고 덕택에 큰거래의 계약을 하지못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다.

Collect call 이란 「전화 받는쪽에서 요금을 부담하는 통화」를 말하는것으로 상당히 편리한 제도이다.

그러니까 미국공항에 내려서 친구나 친지에게 전화를 하려면 동전이 없더라도 무조건 0번을돌려 교환을 부른후 I'd like to make a collect call. 이라고 한다음 상대방이 「요금을 부담 하겠다」 O.K. I'll accept the charge. 라고 하면 통화를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전화요금도 그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업무가 시작되는아침 8시~오후 5시까지가 제일 비싸고 오후 5시부터 밤11시까지는 좀 더싸지고 (35% discount) 밤11시~다음날아침 8시까지가 가장 싸다 (60% discount). 그렇지만 지역마다 시간 차이가 있기때문에 중서부인 Chicago 가 밤11시이면 L·A는 9시이고 동부인 N·Y은 밤12시가 되기 때문에 중서부지역에서는 제일요금이 싼 시각인 밤11시에 L·A에는 전화를 걸어도 되지만 N·Y은 밤12시가 되기때문에 너무 늦은 시간이돼 남의집에 전화를 할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

해결책은 다음날 아침 8시 이전에 시카고에서 전화를하면 N·Y은 아침 9시이기때문에 역시 제일 싼 가격으로 통화가 가능하다.

한가지 알아 두어야 할것은 교환의 도움을 받게되면 전화요금이 더 비싸진다는 것이다.

O : May I help you?
B : Yes, I'd like to make a collect call to Seoul, Korea to Mr. Gim.
O : What number, please?
B : 783-2192
O : What's your name, sir?
B : My name is B-a-r-k, Bark.
O : Hello, Mr. Gim? There's a collect call from Mr. Bark. Will you accept the charge?
G : Pardon me?
교환 : 도와드릴까요?
박 : 네, 한국 서울의 Mr. Gim 에게 콜렉콜을 신청하겠읍니다.
교환 : 몇번이죠?
박 : 783—2192
교환 :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 : B-a-r-k, 박입니다.
교환 : 여보세요. Mr. Gim 이세요? Mr. Bark 으로부터 콜렉콜입니다.
요금을 부담 하시겠읍니까?
김 :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읍니까?

※make a call : 전화를 걸다.
【발음】 I'd like : 【아이드 라이크】처럼 끝을 파열시킬 필요 없이 【아잇·라익】 라고 발음한다.

민병철생활영어
책、카세트、비디오

구입처 :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 S. A.
전화 : (312) 966—4050
책 : 제1권(12불) 제2권(12불)제3권(12불)
카세트 : 1권용(33불)2권용(38불)3권용(38불)
비디오 : BETA(60불).
VHS(65불)
※U.S. 마니오더에 한합니다.

해 외 걸 작 만 화

"My wife has a lot of headaches…!"
『마누라가 하도 머리가 아프대서。』
<아스피린>

스물세살의 자서전

人間市場

金洪信 作
崔然石 畵

74

連載소설

지난줄거리

광화문의 괴짜 할아버지 덕에 번개의 소굴을 찾아 내어 도깨비의 부하인 번개를 잡았다. 번개는 끝까지 불지 않다가 혹독한 총찬의 손찌검에 Y여관 천사장과 한패가 되어 돈 번 불행한 여자들을 등쳐 먹은 걸 토해냈다. 미스 황의 잃은 돈을 고스란히 찾기로 합의를 하고 Y여관의 천사장을 잡으러 들어갔다. 안채로 성큼성큼 걸어간 총찬은…

대청에 앉아 텔리비전을 보던 사내가 문을 열어 주었다.

『누굴 찾으슈?』

퍽 건방져 보였다. 나는 좀 머뭇거리며 대청으로 올라섰다. 사내가 나를 노려 보았다. 인상이 수더분하지는 않았다.

『천사장 계슈?』

나도 건방지게 나갔다. 어차피 어런 사내는 내게 대접받기는 글렀다.

『어디서 오셨나?』

머쓱해졌든지 이렇게 엉거주춤 물었다.

『올만한 데서 왔으니까 좀 앉읍시다.』

『그러슈.』

사내는 아래 위를 매섭게 훑어 보았다. 젊은 애가 너무 당돌하게 나오니까 어떤 목적으로 어디서 나왔는지 감을 못잡는 눈치였다. 법을 어겨가며 이상스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나처럼 당돌한 사내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보아하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같소. 장사 잘 되슈?』

천사장이란 사내가 벌름벌름 웃었다.

『보다시피 파리 날지 않소. 이 짓도 못해 먹을 짓요. 그러나 어디서 오셨소? 첨인것 같소.』

『이 양반이 단골손님도 몰라보고 첨이라니.』

『그러지 말고 차근차근 얘길 합시다. 난 정말 뉘신지 모르니까 하는 소리요.』

사내가 눙치고 나왔다. 나는 집안을 주욱 훑어보고 가볍게 웃었다.

『돈벌이가 좋은 것 같아서 내가 이 여관을 살까하고 왔시다.』

『이 사람이 장난하나.』

『얼마면 팔겠소?』

『어디서 왔나잖소? 사람이 유하다고 장난하면 쓰겠소. 나 천강영이라고 합니다. 이 짓해서 밥먹기도 힘든 사람이요. 때려칠수도 없고.』

『세무서서 나온건 아니니까 죽는 소리 마쇼.』

『그러면 어디서 왔소?』

『이 여관 사러 왔다잖소. 얼마면 팔거요? 돈 천이면 될거 아뇨?』

『……。』

어이가 없는지 대꾸하지 않았다. 담배 케이스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내게 내밀었다. 국산담배 거북선이었다.

『흔해빠진 양담배 안내놓고 왜 이 담배를 내놓는 거요? 내가 순산 줄 아슈?』

『이 양반아, 어디서 왜 나왔는지 말해야 상대를 할거 아냐?』

믿는데가 있는지 언성이 높았다. 보통 성깔은 아닌것 같았다. 그 정도 배짱없이 그런 변태업소를 차리지도 못할것이고 몸 팔아 목구멍에 풀칠하는 여자의 등을 쳐먹을 수는 없을것 같았다.

『되게 빠시네. 귀퉁뱅이 맞으려구.』

내 말도 꽤 매웠다.

『뭐라구? 너 뭐하는 자식야.』

『이 여관 사러 왔다잖소. 이런 여관 하려면 귀 먹어야 되는거라면 난 일찌감치 포기하겠시다.』

내가 시비조로 나간다는걸 사내는 알고 있었다. 마흔 살 안팎의 이 능글맞은 사내를 어떻게 골려줘야 할지 내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 자식이 어디와서 행패야, 행패가. 뒈지고 싶어 환장했나. 이런 자식들 보기 싫어서 이 짓도 못해 먹겠네.』

사내는 내가 관공서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챘다. 큼직한 주먹으로 탁자를 쳐가며 눈을 부라렸다. 보통 성깔있는 사내는 아닌것 같았다.

『나같은 놈 보기 싫으면 집어치우슈.』

『너, 어디서 굴러먹다 왔냐? 빽다귀가 성하려면 썩 꺼져.』

사내가 엄포를 놓았다.

『형씨, 내 성깔은 괭일인 줄 아슈? 이거 왜이래. 나도 쌀밥 먹고 살자 이거야. 형씨 혼자 고기 섞어 먹는거 못봐주겠단 말씀야.』

『어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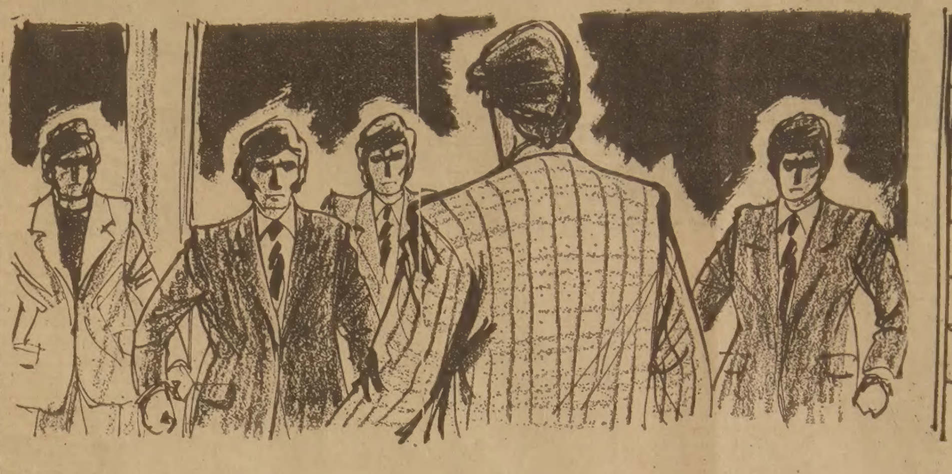
주먹이 먼저 움직였다. 나는 몸을 피하며 사내의 턱을 갈겼다.

『이 새끼 죽인다!』

사내가 탁자를 번쩍 들었다. 찻잔이 쏟아졌다. 시끄러운 소리에 사람들이 몰려 들었다. 나는 탁자 든 사내의 아랫배를 걷어찼다. 사내가 뒹굴었다. 밖에 있던 험상궂은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 들었다.

『한발짝만 들어서면 턱주가리를 보개버린다!』

내가 소리쳤다. 사내들이 주춤거렸



너만 잘먹고 사는게 배아파 왔다, 접근하면 쪼개 버려
2천만원을 내놓겠소 그렇지 않으면 골로 가 보겠소

다. 쓰러졌던 사내가 꿈틀거리며 일어섰다. 다시 걷어찼다. 사내가 뒤로 벌렁 자빠졌다.

사내들이 칼과 방화봉을 들고 몰어섰다. 나는 불펜을 쳐들고 말했다.

『눈깔 빠지기 싫으면 토껴라. 말귀 못알아 먹는 놈은 입원할테니까.』

『어쭈.』

사내들이 뭉텅이로 덤볐다. 간단하게 때려 뉘었다. 마구잡이로 배운 솜씨여서 불펜 한자루로 해결할수 있었다. 대청 마루바닥에 뻗어누운 녀석들을 한쪽으로 몰아놓고 천사장이란 사내를 잡아 일으켰다.

『흥정 좀 하실까?』

『뭘 요구하나?』

『돈.』

『얼마나?』

『기천만원은 내놔야지. 내 솜씨 봤으면 그 정도는 지불할 각오를 했겠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천사장 께서야 사람 볼 줄 알겠지.』

『…。』

말이 없었다. 섣사리 대답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난 강도가 아니 올시다. 천사장 당신이 해먹은 것만 찾아가면 그 뿐인 사람 올시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이걸 한번 들으시면 아시겠지.』

나는 소형 녹음기를 내놨다. 테이프가 돌아갔다. 생생한 현장 녹음 테이프였다. 내가 다그치는 소리와 사내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까지 다 들어있었고 마지막 부분에 미스 황 돈을 챙겨 달아나는 장면까지 다 있었다. 천사장 얼굴이 대번에 실룩거렸다.

『아주머니는 가서 미스 황 데려 오소. 빨리요.』

나를 반갑게 맞아주던 여자가 화들짝 놀라서 안으로 들어갔다. 천사장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 보았다.

『타협하면 될 거 아뇨.』

좀 죽은 목소리였다.

『얼마에 하실까?』

『말해보슈.』

『에누리 없이 2천만원.』

『…。』

천사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미스 황한테 빼먹은 액수보다 조금 많았기 때문이었다.

『이보슈 천사장. 은행금리는 쳐줘야 할 거 아뇨. 미스 황의 정신적 피해보상은 뺀 거요. 그만하면 더럽게도 많이 봐준 거요. 내 말 알아듣겠소?』

『너무 하잖소.』

그는 시간을 끌자는 속셈인 것같았다. 사람이 많은 곳이니까 누구라도 천사장과 손이 닿는 패거리들에게 연락해 줄 거라고 믿는 것 같았다. 나는 이 사내가 쉽게 돈을 내놓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큰손목아지까지 꺾어놓으면 그때서야 순순히 돈을 내놓을지 모를 일이었다.

『이 녹음테이프 값도 쳐준거요. 내 수고비는 물론이고.』

『그 자식 어디 있소?』

『감옥에 보냈지. 수 틀리게 나오면 당신도 보낼 작정요.』

천사장은 미스 황 사건을 부정하지 않았다. 너무 증거가 확실했고 현장에 증인이 있기 때문에 둘러 붙일 수 없었던 것 같았다.

미스 황이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왔다. 밤에 불빛에서 보았던 앳된 여자 모습이 아니었다. 나이에 걸맞게 교태가 흐르는 여인이었다.

『미스 황도 한번 들어보쇼. 만약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이라고 하쇼.』

미스 황은 분위기에 주눅이 들었는지 잠자코 있었다. 녹음 테이프가 돌아갔다. 그녀의 표정이 몹시 참담해 보였다. 그런 어마어마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게 몸서리 쳐지는지 몸을 떨었다.

『내 돈만 찾아주세요. 다른 건 원치 않아요.』

녹음 테이프를 다 듣고 난 미스 황이 천사장의 눈치를 살피며 어렵게 말했다.

『돈을 내놓겠소? 아니면 한번 골로 가보겠소? 돈이 아까우면 골로 가는 게 좋을 거요. 당신같은 사람은 살아 있어봤자 별 뾰족한 게 없을테니까 일찌감치 가시지.』

사내가 눈을 내려깔고 흥정하자는 투로 눈짓을 보냈다.

『아까도 말했지만 흥정은 끝났소. 2천만원 내놓든지 당신이 사라져 주든지 둘 중에 하나 뿐요.』

『지금 그만한 돈이 없소.』

그렇게 나오리란 건 알았다. 남의 피눈물을 짜낼 때는 낄낄거리다가도 제 주머니를 뒤지려고 하면 몸부림치는 게 그런 사내들의 천성이었다. 사기꾼의 독침은 그런 것이었다. 제가 챙긴 돈만 아까운 것이었다. 이런 사내를 법정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적용할 만한 법조문이 없기 마련이었다. 증거도 없애고 상황도 바꾸어버릴 수 있는 위인들이기 때문이었다.

너야말로 개같이 벌어서 똥강아지처럼 사는 놈이군
우리지역까지 왔으니 우선 춤이나 추고 애기해 볼까

『이 바깥채가 당신 집이지?』

『그렇소.』

『내가 뒤져보면 그만한 건 나오겠지. 정 안되면 이 여관 팔면 될거고.』

나는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갔다. 금고를 가리키며 열쇠를 내놓으라고 했지만 사내는 버티었다. 두어번 걷어 질렀다. 이런 고등 사기꾼은 실컷 두들겨 패도 하나님이 웃을 것 같았다. 사내가 고꾸라졌다. 열쇠를 내놓고 번호를 댔다.

금고가 열렸다. 패물과 증권과 현금뭉치가 쏟아져 나왔다. 여러개의 통장과 도장도 나왔다. 나는 찬찬하게 살펴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증권에 투자한 액수가 일개 변태여관을 하는 사람으로선 너무나 컸다. 통장의 현금도 4천여만원이나 되었다.

『당신 개같이 벌어서 똥강아지처럼 사는군.』

나는 사정보지 않고 팼다. 이런 사내는 당분간 기동하기 어렵게 뼈를 주물러 줄 필요가 있었다. 사내가 데굴데굴 뒹굴며 살려달라고 악을 썼다. 보통 끝내기로 다잡아선 버르장머리가 고쳐지는 족속이 아니었다.

『미스 황처럼 해쳐먹은 건이 또 있지? 바른 말 하지 않으면 확 싸지를 거다.』

『없소. 정말 없소.』

『있다고 할 놈이 아니지. 이 개뼈다구 같은 자식아. 불쌍한 여자들한테 해쳐먹는 것도 정도가 있지. 그렇게 일생을 조져줘야 네가 장사는 거냐 말이다. 정당하게 버는 만큼만 벌어 처먹으면 누가 모가지라도 따가냐? 너같이 악독한 놈은 씨알머리를 발라내야 돼. 세상이 좋아서 모가지만은 붙어있는 줄 알아라.』

불뚱이 터져서 곱게 놔둘 수가 없었다. 몸 팔아 돈 벌려고 나온 여자들에게 적당히 뜯어 먹는 거야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니지만 이렇게 치졸한 현금 수집광은 그냥 두고 싶지 않았다.

눅신하게 두들겨 팼다. 이런 사내는 맞아 죽어도 과거의 죄악상을 털어놓지 않는 게 특징이었다. 증거도 없어진지 오래 됐고 구체적으로 고발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과거의 죄악은 영원히 감추어질 수밖에 없었다.

『시키는대로 하겠소.』

천사장은 마루바닥을 엉금엉금 기어다니며 빌었다. 기어다닐 힘을 남겨둔 것은 마지막 마무리를 위한 것뿐이었다.

『그럼 이 자리에서 해결하자.』

『그럽시다.』

『미스 황, 여기 앉아요. 내가 부르는대로 받아 써요. 당신도 이의 없지?』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머리 속으로 정리를 하며 천사장이 미스 황의 돈을 알겨 먹기 위한 사기 숫법을 불렀다. 미스 황이 제 알같은 글씨로 받아 썼다. 천사장이 그 밑에 도장을 찍었다.

『다음은 당신이 받아 써.』

천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저금통장의 양도증을 썼다. 통장의 비밀번호와 도장을 내놓았다.

『내일 은행에서 무사하게 돈을 찾을 때까지 당신은 내 인질야. 미스 황은 운전할 줄 알지?』

『네.』

『그럼 내 차 타고 갔다가 아침에 돈을 찾아가지고 다시 와요. 차 안에 내 후배가 있으니까 그 녀석이 시키는대로만 해요. 저축에서 발은 통장도 있어요. 어서 나가요.』

미스 황은 주춤거리다가 뒷문으로 나갔다. 천사장 표정이 일그러졌다.

『난 당신하고 밤 새우며 술이나 마셔야겠어.』

천사장은 입술을 깨물고 안방으로 엉금엉금 기어갔다. 술상을 차려온 색시들이 나를 흘끔거리며 쳐다보았다. 천사장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옆으로 기댔다.

『누워 계쇼. 내가 불침번할테니.』

천사장은 할 수 없었는지 약방에 사람을 보내고 길게 누웠다.

시간이 꽤 오래 지났다.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잠을 잘 수도 없었다. 은행에서 돈을 찾은 뒤가 아니면 안심할 수가 없었다.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천사장 눈빛이 대번에 빛났다. 나는 그런 천사장의 따귀를 갈겨 주었다.

『싸움질 잘하는 애들 불렀겠지. 시시한 놈들이면 내가 못견디니까. 만약 엉터리 쌈꾼 불러들였으면 그땐 몇대 더 맞을 각오나 해라.』

천사장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지만 천사장이 데리고 있는 애들이 어디 가서 쓸만한 패거리를 불러온것 같았다. 경찰서에 사람을 보내지 않은 것은 제발이 저려서 할수 없었을것 같았다.

내가 방문을 열었다. 대청 아래에 힘께나 써보이는 사내들 셋이 서있었다. 풍채가 만만찮아 보였다.

『임마, 가서 주먹 센놈 열명쯤 데리고 와서 재워라. 느이들 가지고 어디 상대 하겠냐.』

나는 방문을 꽝 닫았다.

『엄씨구…。』

어떤 녀석인지 혀김 빠지는 소리를 했다.

『집에 가서 발 닦고 자라. 몸 풀고 싶으면 도끼라도 들고 오든지. 애들은 일찍 자야 큰다.』

내가 이렇게 말했다. 대청 문이 열리고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아까 당한 녀석들이 내 실력을 보았기 때문에 조무래기를 데려오지는 않았을 것 같았다.

『일찍 자는 게 신상에 좋을텐데.』

나는 방문을 열고 나갔다. 사내들이 말없이 주위를 훑어보았다. 이렇게 서두르지 않는 걸로 미루어 조무래기들은 아니었다. 조무래기들은 폼만 잡고, 동작선만 크게 보여주어 겁으로 때려 잡으려는 허세가 심한 법이었다.

『한판 춤 추려면 마당으로 나갑시다. 보아하니 형씨들 체참은 친구 같은데.』

『그럽시다. 우리 지역에 온 손님인데 대접이나 잘해 드려야지.』

마당으로 나섰다. 사내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무기를 빼어 들거나 욕지거리를 하지 않았다. 제대로 솜씨를 익혔거나 멍어리가 큰 사내들 같았다. 옷매무새도 보통 신사가 아니었다.

『천사장하고 어떻게 되슈?』

『형씨는 남의 지역에 와서 왜 이렇게 노십니까. 조용조용 하시는 게 좋을 거 아닙니까。』

『그거야 맞소. 천사장 저 친구가 불쌍한 여자를 등쳐먹는 걸 두고 볼 순 없잖소. 우선 춤이나 추고 애길 합시다. 형씨들도 그래서 왔을테니까.』

『잠깐, 형씨가 혹시 왕배 아닙니까?』

『그렇소. 날 아슈?』

『그냥 가겠소.』

『그것도 인연요. 누군지나 압시다.』

『동주 형 모시고 있읍니다.』

『이 지역요?』

『그렇습니다.』

『그럼 한잔, 하읍시다. 나도 심심한 판이니까.』

『우리가 입장이 난처해서 그렇습니다. 천사장 입장도 있고.』

『무슨 뜻인가 알겠소.』

나는 그들과 통성명을 하고 돌아왔다. 기대를 걸고 있었던지 천사장이 문쪽에 기대앉아 있었다.

『다행스럽게 제 쓸만한 친구를 뒀소.』

나는 천사장을 옆에 앉히고 밤새 술을 마셨다. 그래봤자 빼주 대여섯 병뿐이었다. 더 마시고 싶었지만 이번 일을 그르치고 싶지 않았다. 천사장은 주눅이 들어 제대로 말대꾸도 하지 못했다.

하나님. 불쌍한 사람들 코 베어가는 사기꾼들만이라도 사그리 쓸어가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벼락은 뒀다가 뭣에 쓰시렵니까? 콩볶아 먹을땐 우리 집 연탄불 빌어다 쓰시고 벼락 좀 때려 주쇼.

아침 열시쯤 미스 황이 돈을 찾아가지고 왔다. 천사장은 약을 바르고 진통제를 먹었지만 밤새 끙끙 앓았다. 얼굴이 노랗게 돈것 같았다.

여자들을 다 모아놓고 보증금과 입대료와 천사장에게 뜯긴 돈을 나누어 주었다. 여자들이 짐을 싸들고 나갔다. 천사장은 내게 각서를 썼다. 결코 여자들을 등쳐먹지 않겠다는 각서였다. 경찰관이 천사장을 데리고 나갔다.

미스 황이 내 팔짱을 끼고 가볍게 걸었다. 우리는 골목끝까지 그렇게 걸었다.

<다음호에 계속>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頂上의 신문 한국일보

한국인의
화초 도(소)매상
가장 저렴한 가격
SHERBOURN써브웨이옆
☎ : 923－9948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한 인
연합상사
25-27 Rangemore Rd.
☎ : 251-6578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신축 복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자체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전기시설 · 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전화: 270－3118 오 현 구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식 품 점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삼 복 식 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 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양 장 점

센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 행 사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화 랑

KIM'S ART GALLERY
각종 유화, 동양화 도매, 각종 Picture Frame
1286 Weston Rd. 전화 : 243－0233

운전학교

AGINCOURT DRIVING SCHOOL
스카브로 지역은 집에서 데려가고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16년간의 경험으로서 특히 신경예민하신 분들과 연세많으신분들께 성심 성의껏 지도해드립니다. 한번 수업에 Parking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실수 있으며 전문가로부터 운전에 관한 모든 필요한 지식을 배우시게 됩니다.
Call Ask Vlado. 291－8304 (오후 4:00－밤 11:00)

오행근운전학교
전화 : 423－3035

이삿짐및 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크로바인쇄소
3351 Lakeshore Blvd. W.
전화 : 251－9587(B) 252－7491(R) 위 정 남

미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Midwest Auto Body Shop 전화 : 751－9280
▲완전 바디 숍. 신용본위
▲260 Midwest Rd. Unit 8 (미드랜드×로렌스)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매매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황 순 일)
전화 : 481－3443

[illegibl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 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장 의 사

장 의 사 (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영정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仁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전화:745－6792(Mr.우)

다년간의 경험으로 성심 성의껏 봉사해 드리겠읍니다.
전화문의도 받읍니다.
전화 : 746－6962 (Mr. Lee) 페인트·월페이퍼

학 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회자)
전화 : 960－0074

Y어린이학교 (김창열)
전화 : 536－1166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정국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보약제와 신경통약이 다량 수입되었읍니다.
교민들에게 특별 염가 제공코져 합니다.
전화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8407,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한약상사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531－7505 서 춘봉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서 울 한 의 원
한의사 김 장 석
전화 : 1－212－762－4694 (New York, U. S. A.)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화 : 530－0522 531－4165(R)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illegible]07, Toronto
전화 : 960－57[illegible](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전 C. A. FIRM ACCOUNTANT
4750 Jane St. Suite No.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한국일보 안내광고＊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45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매·도매함
16 Osler St.
☎ : 762-7255, 7256
762-2700

구 인

캐셔 또는 매니져 구함(남·녀관계 없음)
57 Willows Lane Pickering, Mr.Kim
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숙소 제공해 줄수 있음)

바디·Shop에서 일하실분 구함
(풀타임·파트타임 가능)
전화 : 751-9280

유경험자 토요일,일요일 Variety Store Helper 구함.
영 / 에그린톤 부근.(낮12부터 밤10까지)
전화: 481-2172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535-0708 박 명 진

경험있는 여자자켓 만드실 Full Time 재봉사 구함
(주급 : $220부터~)
전화 : 368-2819 (Mr. Wong)

Full Time 캐쉬어 구함.
(웨스톤 × 휜치) 전화: 741-1465

피아노 레슨 학생구함
경력 : A.R.C.T. U Of T B.M. Performance
전화 : 531-4579 신 수명

입주하셔서 집안일 도와주시고 노인네(여자분) 시중들어 주실분 구함.
전화: 742-8537(5시이후 연락바람.) Mrs. Kim

경험있는 여자 캐셔 구함.(Good Wage)
(스카알렛×이그린톤: 서부지역) 전화: 767-0762

Part Time으로 가게에서 막일 하실분 구함.
전화: 622-8516

Full Time or Part Time 캐셔구함.
동부지역 전화: 422-3121

꽃집에서 일하실 남자 Helper 구함.
다운타운 지역.
전화: 485-9419

Full Time 스토아 헬퍼구함.
리치몬드·힐 지역(Yonge×Hwy 7)
전화: 884-5433

Variety & Grocery Store
매니져 구함.(다운타운 지역)
전화: 368-8138 (오후6시 이후에 연락 바람)

의류수선 (복식 양재, 또는 봉제하청)
동업자 구함 - 기능자에 한해서 남녀 불문
상세문의 오후6시~9시 전화: 530-1046

당신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읍니까?
안내광고(CLASSIFIED)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전화 : (416)533-2361~4

구 혼

결혼상담실 (한국기원 내) 상담자 : 최규찬 김운서
653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3-0168 매일오후 1시~10시

착실한 26세 '터 34세 사이의 신부감 구함
57 Willows Lane Pickering, Ont. (Mr. Kang)
꼭히 관심있으신분은 서신 연락바람.
(비 영주권자라도 관계없음)

매매및 양도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19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399 etc.
937 QUEEN ST. W.
전화 : 364-0984 REMA FURNITURE

성업중인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 렌트: $300(Mon.) 리스: 5년
2988 Lakeshore Blvd. W.

Hunt's Bakery
Jane-Finch Shopping Mall안에
3개월된 새 Store 임.
건강관계로 급매 코져함. 전망좋은 Mall임.
가격: $148,500 다운페이: $45,000
잔액은 Business Loan 가능함.
3주간 Hunt's 본사 School 에서 traing받음.
전화: 635-0187 Mr. Kim

Recreation Farm On Trent - Severn System.
상업성 전망이 밝은 약 30 에이커를 포함한
200 에이커 정도의 레크레이션 농장 팝니다.
많은 수목이 우거졌으며 토론토까지 1시간 거리로서
낚시와 사냥을 할 수있는 좋은 투자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흥미있으신 분은 한국일보의
Miss. 박에게 문의 바랍니다.

공장지대 Office Building 안에 있는 경쟁없는
Donuts Shop. 도너스 만드는 시설이 완비되어 있음.
주매상: $3,500~$4,000
Open: 오전 6:00~오후 6:00
아스킹: $150,000
연락처: 665-0790 Mrs. Lee

Mr. Donuts Franchise
Yonge Street North Thornhill
1500 Sq. Feet
Seats 30, Open 24 hours
Excellent Lease. Call Mr. Pridham 883-3095
The Gormley Group Real Estate

BUSINESS BARGAINS
드라이 크리닝 장비 싸게 팝니다.
4 Drycleaning Plants asking $29,000, $49,000, $69,000, $159,000

2 Variety Stores asking $26,900, $45,000

2 Donuts Shops askig $129,000, $169,000

Call Nick Marali
Selective Realty, Realtor
Days : 751-6850
Evenings: 439-7796

큰 규모의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2,400 sq. ft. 주매상 : $7,500
아스킹 : 7만불+스탁
전화 : 769-9704(5시이후)

80년형 Pontiac Parrisienne Safari Wagon.
거의모든 Option 들어있음 55,000Km. $6,900
전화 : 439-4620

Becker Milk Store Franchise
3731 Lawrence Ave. E.
꼭히 관심 있으신분 내방바람. 전화: 431-3921

성업중인 쥬니어 데파트먼트 스토아 급매
Open Hour : 월-토 (9:00a.m-9:00p.m) 꼭히 관심있는분의 연락바람. 전화 : 1-576-7021, 1-576-9899(밤9시이후)

MITA COPIER 500D (Very Good Codition)
사무실용으로 적합.
전화 : 533-2364 Mrs. 김

꽃가게 급매
전화 : 624-7597

Yonge St. 에 있는 꽃가게 급매
위치: 리치몬드·힐 지역
넓이: 4000 Sq. F.
주인이 이주관계로 적당한 가격에 급매코져 함.
꼭히 관심있으신분 영어로 문의바람.
전화: 773-5530 Mr. Grabner.

토론토에서 가까운 지역의 Motels.
▲19 Unites: $ 93,000 Gross, ▲29 Unites: $101,000 Gross
▲15 Unites: $ 66,000 Gross, ▲16 Unites: $ 72,000 Gross
▲16 Unites+ $110,000 Gross, ▲30 Unites: $200,000 Gross
Call: Andrew 665-6778, 537-4156
Yanka Realty Inc.

식당과(Snack)아이스크림 & 그로서리를 겸한 가게 급매
499 David Dr. (New Market, Ont.)
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50mm 스피커 달린
Sound-Projector
전화 : 368-2819 Mr. 왕

코너에 있는 그로서리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5,000, 아스킹: $49,000(No Agents)
73 Coxwell Ave. (4시 이후 방문 바람)

Variety & Grocery Store 매매
주매상: $4,000이상. Rent: $500
전화: 463-4181

Stock Sale, Giftware, Retail Value,
$10,000이상. Asking : $2,500(Cash)
전화 : 823-6390 Mr. Kim

New Market에 있는 Smoke & Gift Shop급매
시간짧고 주6일 영업 (Lottary머신 있음)
1-895-9581 (저녁9시 이전)

좋은 위치의 빌딩과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로타리오머신과 딴 여러종류의 복권등 있음
전화 : 537-6296 T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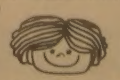
타사업 관계로 (Variety) 급매. Ticket은 별도수입
주매상 : $4,500. 좋은 살림집 꼭히 관심 있으신분 전화요망.
오후5시 이후. 전화: 636-4438

하우스 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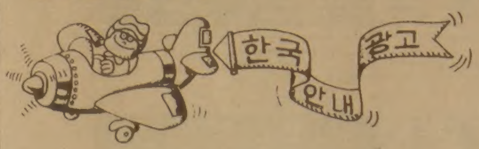
클링튼하우스 · 693 Bloor St. W.
일,주,월, 일정한 기간에 상관없이 Rent하실분.
Christie Subway에서 100m거리 아리랑식당앞.
꼭히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시설완비된 Semi Detached. 3 Bed Room
Rent: $650/mon. (케네디 & 엘스미어지역)
전화: 225-1204

3개의 방이있는 사무실 렌트 합니다.
(Professional Suit) 회계 또는 변호사사무실로 적합.
815 Bloor St. W. 2nd Fl.로 직접 내방 원합니다.

이사

하셨읍니까?
● 주소변경을
잊지 마십시오.
독자번호와 새주소를
곧 알려주세요.
한국일보 독자부
☎ : 533-2361

한국안내광고는···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경우에 필요하며,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떻게 내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경제적일까요?
보다 높은 광고효과로 밝은 내일을 설계하십시오.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읍니다.
날로 번창하는 한국인 취업자의 모습을 한눈에 보실수 있는 한국안내광고는
여러분의 사업과 함께 신장하고 있읍니다.

■ ●매매 및 양도 ●부동산매매
●사업체매매 ●자동차매매
●하우스렌트 ●사무실·점포렌트

■ ●구인 ●구직 ●재봉사 ●찾는사람
●구혼 ●여권분실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순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도 서 판 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 용

ANNIE'S BEAUTY CARE CENTER
Skin Care, Ear Piercing, Fashion Make up.
각종 미용상담에 관해 전화문의도 받읍니다.
6093 Yonge St.(영 × 휜치)
전화 : 223-7884 Mrs. Lee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243-8026(R)

백 화 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번 역 및 통 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사무용구및 계산기

SKY WAY Business Machines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전화 : 675-1295 김 인환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3시30분~오후9시30분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MISTER O FOR MEN
전화 : 964-2606, 869-0589,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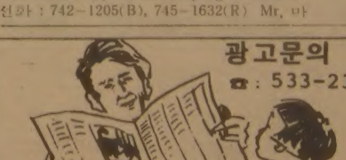
스 포 츠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광고문의
☎ : 533-2361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VISA
master charge

* 한국일보 안내광고 *